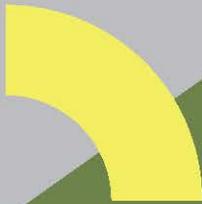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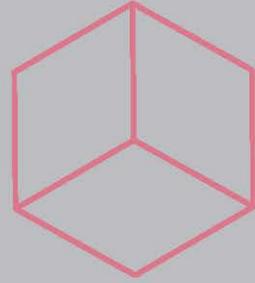


제2차 코로나19 관련 여성·가족 분야별 릴레이 토론회

코로나19 이후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여성노동자 위기 현황과 정책과제



일시 | 2020. 6. 18(목) 14:00~16:00
장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층 국제회의장

| 주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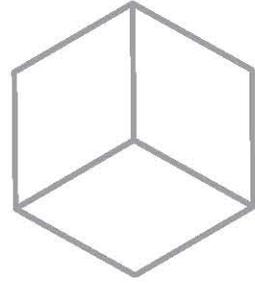


여성가족부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제2차 코로나19 관련 여성·가족 분야별 릴레이 토론회



코로나19 이후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여성노동자 위기 현황과 정책과제



일시 | 2020. 6. 18(목) 14:00~16:00
장소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층 국제회의장



| 주최 |



여성가족부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프로그램

시 간	내 용	
14:00-14:30	발표	<p style="text-align: right;">좌장: 이주희 (이화여자대학교 사회학과 교수)</p> <p>코로나19가 고용보험 사각지대 대면 여성일자리에 미친 영향 실태조사</p> <p>김난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노동연구센터 부연구위원)</p> <p>이선행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노동연구센터 전문연구원)</p>
14:30-15:00	휴식	
15:00-16:00	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현숙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아이돌봄분과 분과위원장) - 김재순 (전국가정관리사협회 협회장) - 김양지영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수) - 박수옥 (방과후강사노조 경기지부장) - 이윤아 (여성가족부 여성인력개발과 과장) <p style="text-align: right;">**이상 가나다순</p>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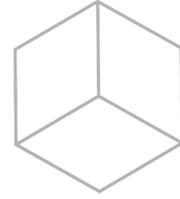
발표

- ▣ 코로나19가 고용보험 사각지대 대면 여성일자리에 미친 영향 실태조사 1
김난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노동연구센터 부연구위원)
이선행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노동연구센터 전문연구원)

토론

- 권현숙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아이돌봄분과 분과위원장) 111
김재순 (전국가정관리사협회 협회장) 125
김양지영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수) 131
박수옥 (방과후강사노조 경기지부장) 133
이윤아 (여성가족부 여성인력개발과 과장) 139

| 발표



코로나19가 고용보험 사각지대 대면 여성일자리에 미친 영향 실태조사

김난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노동연구센터 부연구위원)

이선행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노동연구센터 전문연구원)



코로나19가 고용보험 사각지대 대면 여성일자리에 미친 영향 실태조사

I. 코로나19 전후 일자리 현황	5
(김난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노동연구센터 부연구위원)	
1. 조사개요	5
2. 가사근로자 ¹⁾	9
가. 코로나19 전후 일자리 현황	9
나.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17
다. 코로나19로 인한 자발적 일 중단 경험	20
라. 사회보험 가입 현황	21
마. 정부에 바라는 정책	24
3. 아이돌보미	26
가. 코로나19 전후 일자리 현황	26
나.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39
다. 코로나19로 인한 자발적 일 중단 경험	42
라. 사회보험 가입 현황	44
마. 정부에 바라는 정책	46
4. 방과후학교 강사	48
가. 코로나19 전후 일자리 현황	48
나.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62
다. 코로나19로 인한 자발적 일 중단 경험	66
라. 사회보험 가입 현황	68
마. 정부에 바라는 정책	69
5. 정책적 시사점	72
가. 주요 조사 결과	72
나. 정책적 시사점	75

1) 가정내 가사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용어는 가사도우미, 가정관리사 등 다양하나 본 조사에서는 고용노동부가 20대 국회 2017년 입법예고한 바 있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을 준용하여 가사근로자로 명칭을 통일함. 동법은 20대 국회에 통과되지 못하여 2020년 5월 19일 고용노동부가 재 입법예고하였음.

II. 코로나19 정부 일자리 지원 정책 인지도 및 코로나19 전후 삶의 만족도	76
(이선행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노동연구센터 전문연구원)	
1. 생활안정자금 용자	76
가. 정책개요	76
나. 인지도	76
다. 신청여부	77
라. 지원 수혜 여부	80
마. 도움 정도	81
바. 향후 신청 의사	81
2.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83
가. 정책개요	83
나. 인지도	83
다. 신청여부	84
라. 수혜여부	86
마. 도움 정도	88
바. 향후 신청 의사	89
3.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91
가. 정책 개요	91
나. 인지도	91
다. 신청여부	92
라. 수혜 여부	94
마. 도움 정도	97
바. 향후 신청 의사	98
4. 코로나19 전후 삶의 만족도	99
5. 소결 및 정책적 시사점	104

I. 코로나19 전후 일자리 현황

1. 조사개요

□ 조사 목적

- 코로나19가 고용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고용보험 사각지대 일자리와 코로나19 감염의 위험이 큰 대면서비스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여성에 국한하여 실태를 조사함.

□ 조사 대상

- 가사근로자, 아이돌보미, 방과후학교 강사

□ 조사 기간 : 2020.6.4.-2020.6.8.

□ 조사 방법 : 웹조사

□ 조사 완료

- 총 1,096명. 가사근로자 290명, 아이돌보미 500명, 방과후학교 강사 306명 총 1,096명

□ 조사 내용

- 코로나19 전후 일자리 현황, 코로나19 정부 고용지원정책 인지도 및 활용도, 코로나19 전후 삶의 만족도 등

〈표 I-1-1〉 조사내용

구분	조사항목	문항	대상		
			가사 도우미	아이 돌보미	방과후 학교강사
조사 대상자 선정	○ 일자리 유형	1	●	●	●
	○ 성별	2	●	●	●
	○ 근무 기간	3	●	●	●
	○ 근무 지역	4	●	●	●
A. 가사 도우미	○ 코로나19 이전 방문 가정 수 - 코로나19 이후 방문 가정 수 변화 및 (4월기준) 방문 가정 수	1	●		
	○ 코로나19 이전 주 근무시간 - 코로나19 이후 근무시간 변화 및 (4월기준) 주 근무시간	2	●		

구분	조사항목	문항	대상		
			가사 도우미	아이 돌보미	방과후 학교강사
	○ 코로나19 이전 월평균 수입 - 코로나19 이후 수입 변화 및 (4월기준) 한 달 수입	3	●		
	○ 코로나19로 인한 업무의 어려운 점 - 수입감소, 코로나19 감염위험, 일방적 방문취소, 방문가정의 무시나 갑질	4	●		
	○ 코로나19로 인한 필요 지원	5	●		
B. 아이 돌보미	○ 코로나19 이전 돌봄 가정 수 - 코로나19 이후 돌봄 가정 수 변화 및 (4월기준) 돌봄 가정 수	1		●	
	○ 코로나19 이전 주 근무시간 - 코로나19 이후 근무시간 변화 및 (4월기준) 주 근무시간	2		●	
	○ 코로나19 이전 월평균 수입 - 코로나19 이후 수입 변화 및 (4월기준) 한 달 수입	3		●	
	○ 코로나19 이전 종사 유형 - 코로나19 이후 종사 유형 변동 및 (4월기준) 변동사항	4		●	
	○ 코로나19 연계 취소 경험 여부 - 연계 취소시 후속 조치 여부 및 후속조치 사항	5		●	
	○ 코로나19로 인한 업무의 어려운 점 - 수입감소, 코로나19 감염위험, 일방적 연계취소, 방문가정의 무시나 갑질	6		●	
	○ 코로나19로 인한 필요 지원	7		●	
C. 방과 후 학교 교사	○ 코로나19 이전 출강 학교 수 - 코로나19 이후 출강 학교 수 변화 및 (4월기준) 출강 학교 수 - 출강 학교 수가 감소한 이유	1			●
	○ 코로나19 이전 주 근무시간 - 코로나19 이후 근무시간 변화 및 (4월기준) 주 근무시간 - 근무시간이 변동된 이유	2			●
	○ 코로나19 이전 월평균 수입 - 코로나19 이후 수입 변화 및 (4월기준) 한 달 수입	3			●
	○ 코로나19 이전 채용 경로 - 코로나19 이후 채용 경로 변동 및 (4월기준) 채용 경로 변동사항 - 채용 경로가 변동된 이유	4			●
	○ 코로나19 이후 근로시간 제한 강제적 서약과 관련한 공문서 확인 및 작성 요구 여부 - 공문서 확인 및 작성 요구시 대처 방안	5			●
	○ 코로나19로 인한 업무의 어려운 점 - 수입감소, 코로나19 감염위험, 일방적 계약 파기, 학교 교직원의 무시나 갑질, 수입 개시 불안정	6			●
	○ 코로나19로 인한 추가 일자리	7			●
	○ 코로나19로 인한 필요 지원	8			●
D. 조사 대상자 공동 문항	○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 인한 자의적인 일자리 중단 여부 - 위험수당 및 방역 등의 지원 시 일자리 지속 여부	1	●	●	●
	○ 건강보험 가입 상태	2	●	●	●
	○ 국민연금 가입 상태	3	●	●	●
	○ 고용보험 가입 여부	4	●	●	●

구분	조사항목	문항	대상		
			가사 도우미	아이 돌보미	방과후 학교강사
E. 코로나19 정부 일자리 지원 정책	◦ '생활안정자금 용자' 인지 및 지원 여부 - 인지 시 신청 여부 및 신청하지 않은 이유, 향후 '생활안정자금 용자' 신청 의향 - 지원 여부 및 지원받지 못한 이유, 지원시 도움 정도	1	●	●	●
	◦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인지 및 지원 여부 - 인지 시 신청 여부 및 신청하지 않은 이유, 향후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신청 의향 - 지원 여부 및 지원받지 못한 이유, 지원시 도움 정도	2	●	●	●
	◦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인지 및 지원 여부 - 인지 시 신청 여부 및 신청하지 않은 이유, 향후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의향 - 지원 여부 및 지원받지 못한 이유, 지원시 도움 정도	3	●	●	●
F. 인적사항 및 만족도	◦ 연령	1	●	●	●
	◦ 최종 학력	2	●	●	●
	◦ 혼인 상태	3	●	●	●
	◦ (현재기준) 1년 전후 삶의 만족 수준 - 건강 수준, 고용(일자리), 가계 재무상태, 가족관계, 주위 친지, 친구와의 관계, 전반적 삶의 만족도	4	●	●	●

□ 응답자 인구학적 정보

○ 직업유형별로 연령, 학력, 혼인상태, 근무지역 분포 등을 살펴본 결과

- 가사서비스 및 아이돌보미는 50대 이상이, 방과후학교 강사는 40대 이하가 다수를 차지함.
- 학력의 경우 가사서비스와 아이돌보미는 고졸 이하가 각각 88.0%, 58.2%이고, 전문대졸이 각각 7.6%, 22.2%인데 반해 방과후학교 강사는 전문대졸이 23.5%, 4년제 이상이 72.5%임.
- 혼인상태의 경우 차이는 미미한데, 유배우자 비율이 아이돌보미에게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근무지역에 있어서, 방과후학교 강사는 수도권 근무가 61.6%, 아이돌보미는 수도권 이외가 68.8%이며, 가사서비스는 비슷한 분포를 보임.

○ 방과후학교 강사는 타 직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학력, 젊은 연령대 비중이 높고, 수도권 근무 비율이 높은 특징을 보임.

〈표 I-1-2〉 응답자 인구학적 정보

(단위: 명, %, 세)

전체		전체		가사서비스		아이돌보미		방과후학교 강사	
		1,096		290		500		306	
연령	평균 연령	53.0		56.5		56.1		44.6	
	25~29세	5	0.5	0	0.0	0	0.0	5	1.6
	30~34세	17	1.6	3	1.0	1	0.2	13	4.2
	35~39세	49	4.5	2	0.7	0	0.0	47	15.4
	40~44세	103	9.4	8	2.8	8	1.6	87	28.4
	45~49세	163	14.9	28	9.7	43	8.6	92	30.1
	50~54세	231	21.1	55	19.0	133	26.6	43	14.1
	55~59세	276	25.2	91	31.4	171	34.2	14	4.6
	60~64세	205	18.7	76	26.2	125	25.0	4	1.3
	65~69세	42	3.8	24	8.3	17	3.4	1	0.3
	70~74세	5	0.5	3	1.0	2	0.4	0	0.0
학력	중졸 이하	83	7.6	62	21.4	21	4.2	0	0.0
	고졸	463	42.2	193	66.6	270	54.0	0	0.0
	2~3년제 대학졸	205	18.7	22	7.6	111	22.2	72	23.5
	4년제 대학졸	278	25.4	13	4.5	95	19.0	170	55.6
	대학원 이상	55	5.0	0	0.0	3	0.6	52	17.0
	모름/무응답	12	1.1	0	0.0	0	0.0	12	3.9
혼인상태	미혼	49	4.5	5	1.7	5	1.0	39	12.7
	기혼	884	80.7	220	75.9	423	84.6	241	78.8
	사별	45	4.1	27	9.3	15	3.0	3	1.0
	이혼/별거	118	10.8	38	13.1	57	11.4	23	7.5
지역	서울특별시	189	17.2	33	11.4	92	18.4	64	20.9
	부산광역시	34	3.1	2	0.7	21	4.2	11	3.6
	대구광역시	33	3.0	15	5.2	8	1.6	10	3.3
	인천광역시	60	5.5	12	4.1	31	6.2	17	5.6
	광주광역시	98	8.9	3	1.0	93	18.6	2	0.7
	대전광역시	22	2.0	0	0.0	7	1.4	15	4.9
	울산광역시	42	3.8	0	0.0	42	8.4	0	0.0
	세종특별자치시	5	0.5	0	0.0	3	0.6	2	0.7
	경기도	237	21.6	98	33.8	33	6.6	106	34.6
	강원도	47	4.3	15	5.2	32	6.4	0	0.0
	충청북도	35	3.2	21	7.2	6	1.2	8	2.6
	충청남도	23	2.1	2	0.7	2	0.4	19	6.2
	전라북도	59	5.4	7	2.4	42	8.4	10	3.3
	전라남도	50	4.6	5	1.7	42	8.4	3	1.0
	경상북도	6	0.5	0	0.0	4	0.8	2	0.7
	경상남도	155	14.1	76	26.2	42	8.4	37	12.1
	제주특별자치도	1	0.1	1	0.3	0	0.0	0	0.0

2. 가사근로자

가. 코로나19 전후 일자리 현황

- 가사근로자 근무 경력은 10년 이상이 33.1%로 가장 많고 3년 미만이 19.3%, 3년~5년 미만 16.2%, 5~7년 미만 16.6%, 7년~10년 미만 14.8%로 분포함.
- 연령별로는 30-40대 가사근로자 응답자는 2~3년 미만이 19.5%로 가장 많고 50대와 60대 이상은 10년 이상이 각각 32.9%, 43.7%로 가장 많음. 학력이 높을수록 10년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낮음.
- 배우자 유무와 거주 지역별 근무 경력 분포에는 큰 차이가 없음.

〈표 I-2-1〉 [가사근로자] 근무 경력

(단위: %)

	전체(명)	6개월 이상 ~ 1년 미만	1년 이상 ~ 2년 미만	2년 이상 ~ 3년 미만	3년 이상 ~ 5년 미만	5년 이상 ~ 7년 미만	7년 이상 ~ 10년 미만	10년 이상
전체	(290)	4.1	8.3	6.9	16.2	16.6	14.8	33.1
30-40대	(41)	14.6	12.2	19.5	17.1	17.1	12.2	7.3
50대	(146)	1.4	8.2	6.2	16.4	15.8	19.2	32.9
60대 이상	(103)	3.9	6.8	2.9	15.5	17.5	9.7	43.7
중졸 이하	(62)	3.2	6.5	3.2	11.3	19.4	11.3	45.2
고졸	(193)	3.1	7.8	7.8	16.6	16.6	16.6	31.6
전문대졸 이상	(35)	11.4	14.3	8.6	22.9	11.4	11.4	20.0
유배우	(220)	4.1	10.0	7.3	16.8	17.7	11.8	32.3
무배우	(70)	4.3	2.9	5.7	14.3	12.9	24.3	35.7
서울/경기/인천	(143)	4.2	7.7	7.7	12.6	17.5	15.4	35.0
수도권 이외	(147)	4.1	8.8	6.1	19.7	15.6	14.3	31.3

- 가사근로자의 코로나19 전후 방문 가정 수 변화는 줄어들었다가 74.1%, 변동이 없다가 25.9%로 응답자 10명 중 7명 이상은 방문가정 감소를 경험함
- 연령별로는 30-40대와 50대의 방문 가정수 감소 비율이 75.6%, 76.0%로 75% 이상이고 60대는 70.9%로 60대가 상대적으로 다소 방문 가정수 감소 비율이 낮음. 학력별로는 중졸 이하가 방문가정수 감소 비율이 77.4%로 가장 높음. 무배우자가 유배우자에 비해 방문 가정수 방문 비율이 높음.
- 수도권 이외 지역 가사근로자의 방문 가정 수 감소 비율이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지역 보다 22.1%p 높음

〈표 I-2-2〉 [가사근로자] 코로나19 전후 방문 가정 수 변화

(단위: %, 명)

	전체(명)	변동이 없다	줄어들었다
전체	(290)	25.9	74.1
30-40대	(41)	24.4	75.6
50대	(146)	24.0	76.0
60대 이상	(103)	29.1	70.9
중졸 이하	(62)	22.6	77.4
고졸	(193)	26.4	73.6
전문대졸 이상	(35)	28.6	71.4
유배우	(220)	27.7	72.3
무배우	(70)	20.0	80.0
서울/경기/인천	(143)	37.1	62.9
수도권 이외	(147)	15.0	85.0

- 가사근로자의 코로나19 이전 방문 가정수는 평균 4.2개이고 5개 이상이 41.7%로 가장 많음.
 - 연령별로는 50대가 4.3개로 30-40대 4개, 60대 이상 4.1개에 비해 많음. 학력별로는 중졸 이하가 4.5개로 가장 많고 전문대졸 이상이 3.3개로 가장 적음. 무배우자가 유배우자에 비해 평균 방문 가정수가 0.2개 적음
 - 수도권 이외 지역 가사근로자의 방문 가정 수가 4.6개.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지역은 3.7개로 수도권 이외 지역 가사근로자 방문 가정수가 0.9개 많음.

〈표 I-2-3〉 [가사근로자] 코로나19 이전 방문 가정 수

(단위: %)

	전체(명)	1개	2개	3개	4개	5개 이상	평균(개)
전체	(290)	14.8	14.8	15.5	13.1	41.7	4.2
30-40대	(41)	9.8	14.6	29.3	9.8	36.6	4.0
50대	(146)	14.4	13.7	11.6	15.1	45.2	4.3
60대 이상	(103)	17.5	16.5	15.5	11.7	38.8	4.1
중졸 이하	(62)	19.4	9.7	12.9	11.3	46.8	4.5
고졸	(193)	12.4	15.5	14.5	14.5	43.0	4.2
전문대졸 이상	(35)	20.0	20.0	25.7	8.6	25.7	3.3
유배우	(220)	14.1	13.2	17.3	14.1	41.4	4.2
무배우	(70)	17.1	20.0	10.0	10.0	42.9	4.0
서울/경기/인천	(143)	19.6	14.7	18.2	12.6	35.0	3.7
수도권 이외	(147)	10.2	15.0	12.9	13.6	48.3	4.6

- 가사근로자의 코로나19 이후 평균 방문 가정수는 2.3개이고 1개가 26.6개로 가장 많고 없음도 11.7%로 응답자 10명 중 1명은 아예 일자리가 없음
 - 연령별로는 30-40대와 60대 이상의 방문 가정 수 없음 비율이 14.6%, 13.6%로 50대 9.6%에 비해 높음. 학력별로는 없음의 비율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평균 가정 수는 전문대졸 이상이 1.7개로 고졸 이하 2.4개에 비해 0.7개 적음
 - 수도권 이외 지역 가사근로자의 코로나19 이후 방문 가정 수는 2.4개로 서울/경기/인천 2.2개 보다 0.2개 많고 동시에 방문 가정 수 없음의 비율도 서울/경기/인천 보다 1%p 높음

〈표 I-2-4〉 [가사근로자] 코로나19 이후 방문 가정 수(4월 기준)

(단위: %)

	전체(명)	없음	1개	2개	3개	4개	5개 이상	평균(개)
전체	(290)	11.7	26.6	25.2	13.1	12.8	10.7	2.3
30-40대	(41)	14.6	22.0	26.8	12.2	9.8	14.6	2.4
50대	(146)	9.6	27.4	24.7	15.8	13.7	8.9	2.3
60대 이상	(103)	13.6	27.2	25.2	9.7	12.6	11.7	2.3
중졸 이하	(62)	11.3	21.0	33.9	9.7	12.9	11.3	2.4
고졸	(193)	11.9	24.4	23.3	15.5	13.0	11.9	2.4
전문대졸 이상	(35)	11.4	48.6	20.0	5.7	11.4	2.9	1.7
유배우	(220)	12.3	24.5	24.1	15.0	14.1	10.0	2.3
무배우	(70)	10.0	32.9	28.6	7.1	8.6	12.9	2.2
서울/경기/인천	(143)	11.2	28.7	23.8	15.4	11.2	9.8	2.2
수도권 이외	(147)	12.2	24.5	26.5	10.9	14.3	11.6	2.4

- 가사근로자의 코로나19 전후 방문 가정 수 감소는 평균 2.5개로 3개 이상 감소가 45.6%로 가장 높음
 - 연령별로는 30-40대의 감소수가 2.1개로 50대와 60대의 2.6개 보다 0.5개 적음. 중졸 이하는 2.8개 감소, 전문대졸 이상은 2.2개 감소하여 학력이 높을수록 감소 수가 적음.
 - 수도권 이외 지역의 코로나19 전후 방문 가정 수는 2.6개 감소하여 서울/경기/인천 2.4개 보다 0.2개 많이 감소함.

〈표 I-2-5〉 [가사근로자] 코로나19 전후 방문 가정 수 감소 현황

(단위: %)

	전체(명)	1개	2개	3개 이상	평균(개)
전체	(215)	32.6	21.9	45.6	2.5
30-40대	(31)	51.6	16.1	32.3	2.1
50대	(111)	29.7	22.5	47.7	2.6
60대 이상	(73)	28.8	23.3	47.9	2.6
중졸 이하	(48)	29.2	18.8	52.1	2.8
고졸	(142)	32.4	22.5	45.1	2.5
전문대졸 이상	(25)	40.0	24.0	36.0	2.2
유배우	(159)	30.2	20.8	49.1	2.6
무배우	(56)	39.3	25.0	35.7	2.2
서울/경기/인천	(90)	31.1	26.7	42.2	2.4
수도권 이외	(125)	33.6	18.4	48.0	2.6

주: 코로나19 이후 방문가정수 감소 응답자 대상

○ 가사근로자의 코로나19 전후 근로시간은 줄어들었다가 76.2%, 변동이 없다가 22.8%임.

- 연령별로는 50대의 감소 비율이 80.8%로 가장 높고 30-40대는 68.3%, 60대 이상은 72.8%가 근로시간이 감소한 것으로 응답함. 학력별로는 고졸의 감소 비율이 71.5%로 중졸 이하와 전문대졸이상이 80% 이상인 것과 차이가 있음
- 수도권 이외 지역의 코로나19 전후 근로시간 감소 비율이 85.0%로 서울/경기/인천 67.1% 보다 17.9%p 높음

〈표 I-2-6〉 [가사근로자] 코로나19 전후 근로시간 변화

(단위: %)

	전체(명)	늘어났다	변동이 없다	줄어들었다
전체	(290)	1.0	22.8	76.2
30-40대	(41)	2.4	29.3	68.3
50대	(146)	0.7	18.5	80.8
60대 이상	(103)	1.0	26.2	72.8
중졸 이하	(62)	0.0	16.1	83.9
고졸	(193)	1.6	26.9	71.5
전문대졸 이상	(35)	0.0	11.4	88.6
유배우	(220)	1.4	25.9	72.7
무배우	(70)	0.0	12.9	87.1
서울/경기/인천	(143)	2.1	30.8	67.1
수도권 이외	(147)	0.0	15.0	85.0

- 가사근로자의 코로나19 이전 주 평균 근로시간은 21.7시간으로 15-36시간 미만이 42.4%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15시간 미만이 37.2%를 차지함.
 - 연령별로는 50대가 23.1시간으로 30-40대 18시간, 60대 이상 21.3시간에 비해 김. 학력 별로는 중졸 이하가 24.7시간으로 가장 길고 전문대졸 이상이 17.9시간으로 가장 적음. 무배우자가 유배우자에 비해 평균 근로시간이 2.7시간 김
 - 수도권 이외 지역 가사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이 23시간으로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지역은 20.4시간에 비해 2.6시간 김.

〈표 I-2-7〉 [가사근로자] 코로나19 이전 1주 평균 근로시간

(단위: %)

	전체(명)	15시간 미만	15-36시간 미만	36-40시간 미만	40-52시간 이하	52시간 초과	평균(시간)
전체	(290)	37.2	42.4	1.4	17.2	1.7	21.7
30-40대	(41)	43.9	41.5	2.4	9.8	2.4	18.0
50대	(146)	31.5	45.9	0.7	20.5	1.4	23.1
60대 이상	(103)	42.7	37.9	1.9	15.5	1.9	21.3
중졸 이하	(62)	32.3	43.5	0.0	21.0	3.2	24.7
고졸	(193)	36.8	43.0	1.6	17.6	1.0	21.5
전문대졸 이상	(35)	48.6	37.1	2.9	8.6	2.9	17.9
유배우	(220)	38.6	43.2	0.5	16.4	1.4	21.1
무배우	(70)	32.9	40.0	4.3	20.0	2.9	23.8
서울/경기/인천	(143)	42.0	40.6	1.4	14.7	1.4	20.4
수도권 이외	(147)	32.7	44.2	1.4	19.7	2.0	23.0

- 가사근로자의 코로나19 이후 주 평균 근로시간은 13.2시간으로 15시간 미만이 46.6%로 가장 많음
 - 연령별로는 50대의 근로시간이 13.9시간으로 30-40대와 60대 이상 보다 김. 학력이 높을 수록 평균 근로시간이 짧아 중졸 이하는 14.5시간, 전문대졸 이상은 9.7시간으로 10시만이 안 됨. 무배우자가 유배우자에 비해 1.4시간 더 일 함.
 - 수도권 이외 지역 가사근로자의 코로나19 이후 방문 주 평균 근로시간은 12.3시간으로 서울/경기/인천 14.2시간 보다 1.9시간 적음

〈표 I-2-8〉 [가사근로자] 코로나19 이후 1주 평균 근로시간(4월 기준)

(단위: %)

	전체(명)	0시간	15시간 미만	15-36시간 미만	40-52시간 이하	52시간 초과	평균(시간)
전체	(290)	12.4	46.6	34.8	5.9	0.3	13.2
30-40대	(41)	14.6	56.1	24.4	2.4	2.4	11.6
50대	(146)	10.3	44.5	39.0	6.2	0.0	13.9
60대 이상	(103)	14.6	45.6	33.0	6.8	0.0	12.9
중졸 이하	(62)	14.5	40.3	35.5	9.7	0.0	14.5
고졸	(193)	11.9	45.6	36.8	5.2	0.5	13.5
전문대졸 이상	(35)	11.4	62.9	22.9	2.9	0.0	9.7
유배우	(220)	12.7	46.8	34.5	5.9	0.0	12.9
무배우	(70)	11.4	45.7	35.7	5.7	1.4	14.3
서울/경기/인천	(143)	11.9	43.4	36.4	8.4	0.0	14.2
수도권 이외	(147)	12.9	49.7	33.3	3.4	0.7	12.3

- 가사근로자의 코로나19 전후 근로시간 감소는 평균 11.3시간임. 15시간 미만 감소 비율이 70.1%로 근로시간이 감소한 가사근로자 10명 중 7명 이상에 해당함
 - 연령별로는 30-40대의 감소 시간이 9.8시간으로 40-50대와 60대 11.5시간에 비해 적음. 학력별로는 전문대졸 이상이 9.2시간으로 감소 시간이 고졸, 중졸 이하 보다 적음. 무배우자가 유배우자 보다 근로시간 감소가 0.5시간 적음
 - 수도권 이외 지역의 코로나19 전후 근로시간은 평균 12.6시간 감소하여 서울/경기/인천 9.6시간 보다 3시간 더 많이 감소함

〈표 I-2-9〉 [가사근로자] 코로나19 전후 근로시간 감소 현황

(단위: %)

	전체(명)	15시간 미만	15-36시간 미만	36-40시간 미만	40-52시간 이하	평균(시간)
전체	(221)	70.1	28.1	0.5	1.4	11.3
30-40대	(28)	75.0	25.0	0.0	0.0	9.8
50대	(118)	70.3	28.0	0.8	0.8	11.5
60대 이상	(75)	68.0	29.3	0.0	2.7	11.5
중졸 이하	(52)	67.3	30.8	0.0	1.9	12.3
고졸	(138)	69.6	29.0	0.0	1.4	11.3
전문대졸 이상	(31)	77.4	19.4	3.2	0.0	9.2
유배우	(160)	70.6	27.5	0.0	1.9	11.4
무배우	(61)	68.9	29.5	1.6	0.0	10.9
서울/경기/인천	(96)	79.2	19.8	0.0	1.0	9.6
수도권 이외	(125)	63.2	34.4	0.8	1.6	12.6

주: 코로나19 이후 근로시간 감소 응답자 대상

- 가사근로자의 코로나19 전후 월 평균 수입은 85.9%가 감소하였고 변동이 없음은 13.4%, 늘어났음은 0.7%에 불과함
 - 연령별로는 50대의 감소 비율이 87.7%로 가장 높고 30-40대는 85.3%, 60대 이상은 83.5%가 월 평균 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응답함. 학력별로는 전문대졸 이상의 감소 비율이 91.4%로 고졸 이하가 80% 대인 것에 비해 높음. 무배우자(94.3%)가 유배우자(83.2%)에 비해 높음
 - 수도권 이외 지역의 코로나19 전후 월평균 수입 감소 비율이 95.9%로 서울/경기/인천 75.5% 보다 20.4%p 높음

〈표 I-2-10〉 [가사근로자] 코로나19 전후 월 평균 수입 변화

(단위: %)

	전체(명)	늘어났다	변동이 없다	줄어들었다
전체	(290)	0.7	13.4	85.9
30-40대	(41)	2.4	12.2	85.4
50대	(146)	0.0	12.3	87.7
60대 이상	(103)	1.0	15.5	83.5
중졸 이하	(62)	0.0	11.3	88.7
고졸	(193)	1.0	15.0	83.9
전문대졸 이상	(35)	0.0	8.6	91.4
유배우	(220)	0.9	15.9	83.2
무배우	(70)	0.0	5.7	94.3
서울/경기/인천	(143)	1.4	23.1	75.5
수도권 이외	(147)	0.0	4.1	95.9

- 가사근로자의 코로나19 이전 월 평균 수입은 112.3만원임. 구간별로 50-100만원이 29%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100-150만원이 25.9%로 많고 다음으로 150-200만원이 19.7%를 차지함
 - 연령별로는 50대가 119.1만원으로 30-40대 96.7만원, 60대 108.9만원 보다 많음. 중졸이 하는 122.2만원으로 고졸과 전문대졸에 비해 월 평균 수입이 많음. 유배우 보다 무배우의 월 평균 수입이 많음.
 - 수도권 이외 지역의 코로나19 이전 월평균 수입은 116.8만원으로 서울/경기/인천 107.6만원에 비해 많음

〈표 I-2-11〉 [가사근로자] 코로나19 이전 월 평균 수입

(단위: %)

	전체(명)	50만원 미만	50-100만원 미만	100-150만원 미만	150-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평균(만원)
전체	(290)	14.1	29.0	25.9	19.7	11.4	112.3
30-40대	(41)	19.5	31.7	34.1	9.8	4.9	96.7
50대	(146)	10.3	26.7	28.8	20.5	13.7	119.1
60대 이상	(103)	17.5	31.1	18.4	22.3	10.7	108.9
중졸 이하	(62)	12.9	22.6	24.2	24.2	16.1	122.2
고졸	(193)	13.5	30.6	25.4	20.2	10.4	111.8
전문대졸 이상	(35)	20.0	31.4	31.4	8.6	8.6	97.4
유배우	(220)	14.1	29.1	27.7	19.1	10.0	110.5
무배우	(70)	14.3	28.6	20.0	21.4	15.7	117.8
서울/경기/인천	(143)	16.1	30.1	25.2	19.6	9.1	107.6
수도권 이외	(147)	12.2	27.9	26.5	19.7	13.6	116.8

○ 가사근로자의 코로나19 이후 월 평균 수입은 63.9만원임. 구간별로 50-100만원 이 34.8%로 가장 많고 0원도 12.4%를 차지함.

- 연령별로는 50대가 68.5만원으로 30-40대 52.5만원, 60대 62만원 보다 많음. 중졸이하는 70.7만원으로 고졸과 전문대졸에 비해 월 평균 수입이 많았으나 0원의 비율도 14.5%로 고졸 11.9%, 전문대졸 11.4%에 비해 높음. 유배우 보다 무배우의 월 평균 수입이 많음.
- 수도권 이외 지역의 코로나19 이전 월평균 수입은 56.7만원으로 서울/경기/인천 71.4만원에 비해 적음

〈표 I-2-12〉 [가사근로자] 코로나19 이후 월 평균 수입

(단위: %)

	전체(명)	0원	50만원 미만	50-100만원 미만	100-150만원 미만	150-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평균(만원)
전체	(290)	12.4	31.0	34.8	14.1	5.9	1.7	63.9
30-40대	(41)	14.6	39.0	39.0	2.4	2.4	2.4	52.5
50대	(146)	10.3	27.4	37.0	16.4	7.5	1.4	68.5
60대 이상	(103)	14.6	33.0	30.1	15.5	4.9	1.9	62.0
중졸 이하	(62)	14.5	29.0	30.6	16.1	4.8	4.8	70.7
고졸	(193)	11.9	29.5	36.3	15.0	6.2	1.0	63.9
전문대졸 이상	(35)	11.4	42.9	34.3	5.7	5.7	0.0	52.1
유배우	(220)	12.7	33.6	31.4	14.5	5.9	1.8	62.5
무배우	(70)	11.4	22.9	45.7	12.9	5.7	1.4	68.5
서울/경기/인천	(143)	11.9	25.9	37.1	13.3	9.1	2.8	71.4
수도권 이외	(147)	12.9	36.1	32.7	15.0	2.7	0.7	56.7

- 가사근로자의 코로나19 전후 월 평균 수입은 56.4만원 감소함. 구간별로 50만원 미만 감소가 48.2%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50-100만원이 34.9%를 차지함
 - 연령별로 50대가 57.6만원으로 30-40대 52.4만원, 60대 56.3만원 보다 많이 감소함. 중졸 이하는 58.1만원으로 고졸과 전문대졸에 비해 감소 금액이 많음. 유배우 보다 무배우의 월 평균 수입 감소가 적음
 - 수도권 이외 지역의 코로나19 월평균 수입 감소는 62.7만원으로 서울/경기/인천 48.2만원에 비해 더 많이 감소함

〈표 I-2-13〉 [가사근로자] 코로나19 전후 월 평균 수입 감소 현황

(단위: %)

	전체(명)	50만원 미만	50-100만원 미만	100-150만원 미만	150-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평균(만원)
전체	(249)	48.2	34.9	14.1	1.6	1.2	56.4
30-40대	(35)	57.1	31.4	8.6	0.0	2.9	52.4
50대	(128)	44.5	37.5	14.8	2.3	0.8	57.6
60대 이상	(86)	50.0	32.6	15.1	1.2	1.2	56.3
중졸 이하	(55)	49.1	27.3	21.8	1.8	0.0	58.1
고졸	(162)	45.7	38.9	12.3	1.2	1.9	57.2
전문대졸 이상	(32)	59.4	28.1	9.4	3.1	0.0	49.6
유배우	(183)	47.0	33.9	16.9	1.1	1.1	57.9
무배우	(66)	51.5	37.9	6.1	3.0	1.5	52.3
서울/경기/인천	(108)	51.9	36.1	12.0	0.0	0.0	48.2
수도권 이외	(141)	45.4	34.0	15.6	2.8	2.1	62.7

주: 코로나19 이후 월평균 수입 감소 응답자 대상

나.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 가사근로자의 코로나19로 인한 수입감소 어려움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가 50.7%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여 수입감소에 대해서 그렇다는 82.4%임.
 - 연령별로 50대가 수입감소로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88.4%로 가장 많고 30-40대 75.6%, 60대 이상 76.7%를 차지함. 전문대졸 이상이 88.6%로 수입감소로 어렵다고 응답하였고 무배우는 90% 이상이 수입감소로 어렵다고 응답함.
 - 수도권 이외 지역의 가사근로자는 89.8%가 수입감소로 어렵다고 응답하여 서울/경기/인천 74.8%에 비해 수입감소로 인한 어려움에 대한 비율이 15%p 높음

〈표 I-2-14〉 [가사근로자] 코로나19와 가사근로자 어려움_수입감소

(단위: %)

	전체(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①+②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③+④ 그렇다
전체	(290)	6.9	10.7	17.6	31.7	50.7	82.4
30-40대	(41)	7.3	17.1	24.4	29.3	46.3	75.6
50대	(146)	5.5	6.2	11.6	35.6	52.7	88.4
60대 이상	(103)	8.7	14.6	23.3	27.2	49.5	76.7
중졸 이하	(62)	6.5	9.7	16.1	35.5	48.4	83.9
고졸	(193)	7.8	11.4	19.2	28.5	52.3	80.8
전문대졸 이상	(35)	2.9	8.6	11.4	42.9	45.7	88.6
유배우	(220)	7.7	12.3	20.0	32.3	47.7	80.0
무배우	(70)	4.3	5.7	10.0	30.0	60.0	90.0
서울/경기/인천	(143)	11.2	14.0	25.2	34.3	40.6	74.8
수도권 이외	(147)	2.7	7.5	10.2	29.3	60.5	89.8

○ 가사근로자의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가 23.4%, 그렇다 32.4%로 그렇다가 차지하는 비율이 55.9%임

- 연령별로 50대가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55.5%로 가장 높고 30-40대 51.2%, 60대 이상 58.3%를 차지함. 중졸 이하 62.9%가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 어렵다고 응답하였고 무배우는 62.9%로 유배우자 보다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 수도권 이외 지역의 가사근로자 55.1%가 코로나19 감염위험으로 어렵다고 응답하여 서울/경기/인천 56.6%에 비해 코로나19 감염위험에 대한 어려움에 대한 비율이 1.5%p 낮음

〈표 I-2-15〉 [가사근로자] 코로나19와 가사근로자 어려움_코로나19 감염위험

(단위: %)

	전체(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①+②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③+④ 그렇다
전체	(290)	13.8	30.3	44.1	32.4	23.4	55.9
30-40대	(41)	9.8	39.0	48.8	26.8	24.4	51.2
50대	(146)	16.4	28.1	44.5	34.2	21.2	55.5
60대 이상	(103)	11.7	30.1	41.7	32.0	26.2	58.3
중졸 이하	(62)	11.3	25.8	37.1	35.5	27.4	62.9
고졸	(193)	15.0	31.1	46.1	31.6	22.3	53.9
전문대졸 이상	(35)	11.4	34.3	45.7	31.4	22.9	54.3
유배우	(220)	15.0	31.4	46.4	29.5	24.1	53.6
무배우	(70)	10.0	27.1	37.1	41.4	21.4	62.9
서울/경기/인천	(143)	14.0	29.4	43.4	32.9	23.8	56.6
수도권 이외	(147)	13.6	31.3	44.9	32.0	23.1	55.1

- 가사근로자의 코로나19로 인한 일방적 방문 취소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가 27.6%, 그렇다 41.4%로 그렇다가 차지하는 비율이 69%임
 - 연령별로 50대가 코로나19로 인한 일방적 방문 취소로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74.7%로 가장 높고 30-40대는 53.7%, 60대 이상은 67%를 차지함. 학력별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일방적 방문 취소로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은 68~69%로 큰 차이가 없음. 무배우자는 74.3%로 유배우자 보다 코로나19로 인한 일방적 방문 취소로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 수도권 이외 지역의 가사근로자 76.9%가 코로나19로 일방적 방문 취소로 어렵다고 응답하여 서울/경기/인천 60.8%에 비해 코로나19 감염위험에 대한 어려움에 대한 비율이 16.1%p 높음

〈표 I-2-16〉 [가사근로자] 코로나19와 가사근로자 어려움_일방적 방문 취소

(단위: %)

	전체(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①+②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③+④ 그렇다
전체	(290)	12.4	18.6	31.0	41.4	27.6	69.0
30-40대	(41)	12.2	34.1	46.3	22.0	31.7	53.7
50대	(146)	8.9	16.4	25.3	46.6	28.1	74.7
60대 이상	(103)	17.5	15.5	33.0	41.7	25.2	67.0
중졸 이하	(62)	14.5	16.1	30.6	38.7	30.6	69.4
고졸	(193)	11.9	19.2	31.1	42.5	26.4	68.9
전문대졸 이상	(35)	11.4	20.0	31.4	40.0	28.6	68.6
유배우	(220)	14.1	18.6	32.7	42.3	25.0	67.3
무배우	(70)	7.1	18.6	25.7	38.6	35.7	74.3
서울/경기/인천	(143)	19.6	19.6	39.2	39.2	21.7	60.8
수도권 이외	(147)	5.4	17.7	23.1	43.5	33.3	76.9

- 가사근로자의 코로나19로 인한 방문가정의 무시나 갑질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가 5.2%, 그렇다 14.1%로 그렇다가 차지하는 비율이 19.3%임
 - 연령별로 30-40대가 방문가정의 무시나 갑질로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22%로 50대 이상 보다 높은 편이고 학력별로는 전문대졸 이상과 중졸 이하가 고졸 보다 방문가정의 무시나 갑질이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무배우자가 유배우자 보다 방문가족의 무시나 갑질로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 수도권 이외 지역의 가사근로자 21.8%가 코로나19로 방문가정의 무시나 갑질이 어렵다고 응답하여 서울/경기/인천 16.8%에 비해 방문가정의 무시나 갑질에 대한 어려움에 대한 비율이 5%p 높음

〈표 I-2-17〉 [가사근로자] 코로나19와 가사근로자 어려움_방문가정 무시나 갑질

(단위: %)

	전체(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①+②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③+④ 그렇다
전체	(290)	34.1	46.6	80.7	14.1	5.2	19.3
30-40대	(41)	46.3	31.7	78.0	19.5	2.4	22.0
50대	(146)	27.4	52.1	79.5	17.1	3.4	20.5
60대 이상	(103)	38.8	44.7	83.5	7.8	8.7	16.5
중졸 이하	(62)	30.6	48.4	79.0	11.3	9.7	21.0
고졸	(193)	34.2	48.2	82.4	13.5	4.1	17.6
전문대졸 이상	(35)	40.0	34.3	74.3	22.9	2.9	25.7
유배우	(220)	36.8	45.9	82.7	13.6	3.6	17.3
무배우	(70)	25.7	48.6	74.3	15.7	10.0	25.7
서울/경기/인천	(143)	40.6	42.7	83.2	13.3	3.5	16.8
수도권 이외	(147)	27.9	50.3	78.2	15.0	6.8	21.8

다. 코로나19로 인한 자발적 일 중단 경험

- 가사근로자의 코로나19로 일을 스스로 중단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서 27.2%가 그렇다고 응답함.
 - 연령별로 30-40대 가사근로자가 스스로 일을 중단한 경험 비율이 41.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60대가 28.2%, 50대 22.6%를 차지함. 학력별로는 고졸 이상이 중졸 이하 보다 일 중단 경험 비율이 높음. 일 중단 경험에 배우자 유무로 인한 차이는 크지 않음.
 - 수도권 이외 지역 가사근로자 중 29.3%가 스스로 일을 중단한 경험이 있어 서울/경기/인천 지역 가사근로자 보다 4.1%p 높음

〈표 I-2-18〉 [가사근로자] 코로나19와 가사근로자 자발적 중단 경험

(단위: %)

	전체(명)	예	아니오
전체	(290)	27.2	72.8
30-40대	(41)	41.5	58.5
50대	(146)	22.6	77.4
60대 이상	(103)	28.2	71.8
중졸 이하	(62)	24.2	75.8
고졸	(193)	28.0	72.0
전문대졸 이상	(35)	28.6	71.4
유배우	(220)	27.3	72.7
무배우	(70)	27.1	72.9

	전체(명)	예	아니오
서울/경기/인천	(143)	25.2	74.8
수도권 이외	(147)	29.3	70.7

- 코로나19로 일을 자발적으로 중단한 가사근로자 중 75.9%는 위험수당이나 방역 지원이 있었다면 일을 중단하지 않았다고 응답함
 - 위험수당이나 방역 지원이 있었다면 일을 중단하지 않았음 비율은 연령별로 50대가 81.8%로 가장 높고 전문대졸 이상은 100%임. 무배우는 84.2%로 유배우 73.3% 보다 높음.
 - 수도권 이외 지역 가사근로자는 79.1%로 서울/경기/인천 72.2% 보다 높음

〈표 I-2-19〉 [가사근로자] 코로나19와 가사근로자 위험수당 및 방역지원시 일자리 유지 여부
(단위: %, 명)

	전체(명)	예	아니오
전체	(79)	75.9	24.1
30-40대	(17)	70.6	29.4
50대	(33)	81.8	18.2
60대 이상	(29)	72.4	27.6
중졸 이하	(15)	80.0	20.0
고졸	(54)	70.4	29.6
전문대졸 이상	(10)	100.0	0.0
유배우	(60)	73.3	26.7
무배우	(19)	84.2	15.8
서울/경기/인천	(36)	72.2	27.8
수도권 이외	(43)	79.1	20.9

주: 자발적으로 일을 중단한 경험 있는 응답자 대상

라. 사회보험 가입 현황

- 가사근로자 건강보험 가입은 피부양자 직장가입 비율이 51.7%로 가장 높고 지역가입자 29.3%, 본인 직장가입자 14.1%, 의료수급권자 3.1%, 건강보험 미가입 비율인 1.7%임.
 - 연령별로 30-40대의 본인 직장가입자 비율이 26.8%로 가장 높음. 미가입 비율은 30-40대와 60대 이상이 각각 2.4%, 2.9%로 50대 0.7%에 비해 3배 이상 높음
 - 서울/경기/인천 가사근로자는 수도권 이외 지역 가사근로자 보다 본인 직장가입자, 피부양 직장가입자, 미가입 비율이 높음

〈표 I-2-20〉 [가사근로자] 건강보험 가입 상태

(단위: %)

	전체(명)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의료수급권자	직장가입피부양자 (※직장에 다니는 부모, 배우자, 자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올라간 상태)	미가입 (※6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상태)
전체	(290)	14.1	29.3	3.1	51.7	1.7
30-40대	(41)	26.8	26.8	2.4	41.5	2.4
50대	(146)	11.6	34.9	3.4	49.3	0.7
60대 이상	(103)	12.6	22.3	2.9	59.2	2.9
중졸 이하	(62)	6.5	25.8	4.8	59.7	3.2
고졸	(193)	15.0	31.6	2.6	50.3	0.5
전문대졸 이상	(35)	22.9	22.9	2.9	45.7	5.7
유배우	(220)	15.9	25.0	2.7	55.0	1.4
무배우	(70)	8.6	42.9	4.3	41.4	2.9
서울/경기/인천	(143)	17.5	25.2	0.7	54.5	2.1
수도권 이외	(147)	10.9	33.3	5.4	49.0	1.4

○ 가사근로자 국민연금 가입은 미가입이 52.8%로 절반 이상을 차지함. 지역가입자는 19.3%, 임의 가입자는 16.9%, 직장가입자는 11%임.

- 연령별로 60대의 미가입 비율이 68.9%로 30-40대 34.1%, 50대 46.6% 보다 높음. 중졸 이하의 미가입 비율도 66.1%로 60대와 함께 높음. 무배우자의 미가입 비율이 55.7%로 유배우자 51.8% 보다 높음
- 서울/경기/인천 가사근로자는 수도권 이외 지역 가사근로자 보다 국민연금 미가입 비율이 낮음

〈표 I-2-21〉 [가사근로자] 국민연금 가입 상태

(단위: %)

	전체(명)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미가입 (※ 국민연금에 가입한 적 없거나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290)	11.0	19.3	16.9	52.8
30-40대	(41)	26.8	19.5	19.5	34.1
50대	(146)	7.5	28.1	17.8	46.6
60대 이상	(103)	9.7	6.8	14.6	68.9
중졸 이하	(62)	4.8	12.9	16.1	66.1
고졸	(193)	11.9	22.3	17.1	48.7
전문대졸 이상	(35)	17.1	14.3	17.1	51.4

	전체(명)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미가입 (※ 국민연금에 가입한 적 없거나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유배우	(220)	12.3	19.1	16.8	51.8
무배우	(70)	7.1	20.0	17.1	55.7
서울/경기/인천	(143)	13.3	18.9	15.4	52.4
수도권 이외	(147)	8.8	19.7	18.4	53.1

- 가사근로자 고용보험 가입은 미가입이 84.1%로 10명 중 8명이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임
 - 연령별로는 50대의 미가입 비율이 90.4%로 가장 높고 중졸 이하가 87.1%로 높음. 무배우자가 88.6%로 유배우자 보다 높음.
 - 서울/경기/인천 가사근로자는 수도권 이외 지역 가사근로자 보다 고용보험 미가입 비율이 낮음

〈표 I-2-22〉 [가사근로자] 고용보험 가입 여부

(단위: %)

	전체(명)	가입	미가입	가입여부를 잘 모름
전체	(290)	9.7	84.1	6.2
30-40대	(41)	19.5	68.3	12.2
50대	(146)	6.2	90.4	3.4
60대 이상	(103)	10.7	81.6	7.8
중졸 이하	(62)	6.5	87.1	6.5
고졸	(193)	10.4	83.4	6.2
전문대졸 이상	(35)	11.4	82.9	5.7
유배우	(220)	9.5	82.7	7.7
무배우	(70)	10.0	88.6	1.4
서울/경기/인천	(143)	11.9	79.7	8.4
수도권 이외	(147)	7.5	88.4	4.1

- 가사근로자의 코로나19로 정부에 바라는 정책 1순위는 '재난지원금 등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금, 보조금 등'이 38.6%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가사근로자 노동자성 인정 보장 법 제정'이 15.5%,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 지원' 15.5%, '방문 취소시 빠른 연계' 12.8%이 10% 이상을 차지함
 - 연령별로 30-40대는 '재난지원금 등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금, 보조금 등'과 '가사근로자 노동자성 인정 보장 법 제정', '대체 일자리 지원', '가사서비스 활동시 방역 물품 지원'을 원하는 비율이 50대 이상에 비해 높음. 50대 이상은 30-40대에 비해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 가입 지원'과 '방문 취소시 빠른 연계', '은행 대출 등 금융적 지원'을 원하는 비율이 높음.
- 수도권 이외 지역의 가사근로자 44.9%가 '재난지원금 등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금, 보조금 등'을 원하여 서울/경기/인천 32.2%에 비해 12.7%p 높음. 서울/경기/인천 가사근로자는 '가사근로자 노동자성 인정 보장 법 제정'을 바라는 비율이 20.3%로 수도권 이외 지역 보다 9.4%p 높음

〈표 I-2-23〉 [가사근로자] 정부에 바라는 점_1순위

(단위: %)

	전체(명)	재난지원금 등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금, 보조금 등	가사근로자 노동자성 인정 보장 법 제정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 지원	방문 취소시 빠른 연계	부대 비용 지원(교통비, 점심식사 제공 또는 점심식사비 등)	대체 일자리 지원	가사서비스 활동시 방역 물품 지원	은행 대출 등 금융적 지원
전체	(290)	38.6	15.5	15.2	12.8	8.3	6.6	2.1	1.0
30-40대	(41)	41.5	19.5	9.8	9.8	7.3	7.3	4.9	0.0
50대	(146)	39.0	14.4	15.8	11.6	9.6	6.8	2.1	0.7
60대 이상	(103)	36.9	15.5	16.5	15.5	6.8	5.8	1.0	1.9
중졸 이하	(62)	40.3	14.5	17.7	12.9	6.5	6.5	0.0	1.6
고졸	(193)	36.8	16.6	15.0	13.5	7.8	7.3	2.1	1.0
전문대졸 이상	(35)	45.7	11.4	11.4	8.6	14.3	2.9	5.7	0.0
유배우	(220)	38.6	14.1	15.0	13.2	8.6	6.4	2.7	1.4
무배우	(70)	38.6	20.0	15.7	11.4	7.1	7.1	0.0	0.0
서울/경기/인천	(143)	32.2	20.3	14.0	15.4	8.4	7.0	2.1	0.7
수도권 이외	(147)	44.9	10.9	16.3	10.2	8.2	6.1	2.0	1.4

마. 정부에 바라는 정책

- 가사근로자의 코로나19로 정부에 바라는 정책 2순위는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 지원' 20.4%, '가사근로자 노동자성 인정 보장 법 제정'이 17.8%, '부대 비용 지원(교통비, 점심식사 제공 또는 점심식사비 등)' 15.6%, '방문 취소시 빠른 연계' 14.4%, '재난지원금 등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금, 보조금 등'이 14.1%를 차지함
 - 연령별로 30-40대는 '부대 비용 지원(교통비, 점심식사 제공 또는 점심식사비 등)'을 원하는 비율이 29.7%로 가장 높고 50대와 60대 이상은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 지원'을 원하는 비율이 21.5%, 23.5%로 가장 높음
 - 수도권 이외 지역의 가사근로자는 서울/경기/인천 가사근로자 보다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 지원', '부대 비용 지원', '가사근로자 방역 지원', '은행 대출 지원'을 원하는 비율이 높음

〈표 I-2-24〉 [가사근로자] 정부에 바라는 점_2순위

(단위: %)

	전체(명)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 지원	가사근로자 노동자성 인정 보장 법 제정	부대 비용 지원(교통비, 점심식사 제공 또는 점심식사비 등)	방문 취소시 빠른 연계	재난지원금 등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금, 보조금 등	가사근로자 활동시 방역 물품 지원	은행 대출 등 금융적 지원
전체	(270)	20.4	17.8	15.6	14.4	14.1	3.7	1.5
30-40대	(37)	8.1	21.6	29.7	16.2	8.1	8.1	2.7
50대	(135)	21.5	16.3	15.6	11.1	13.3	3.7	0.7
60대 이상	(98)	23.5	18.4	10.2	18.4	17.3	2.0	2.0
중졸 이하	(61)	24.6	18.0	14.8	16.4	9.8	1.6	4.9
고졸	(178)	20.8	17.4	14.6	12.4	15.7	3.4	0.6
전문대졸 이상	(31)	9.7	19.4	22.6	22.6	12.9	9.7	0.0
유배우	(207)	20.3	18.4	16.9	14.5	14.0	2.9	1.4
무배우	(63)	20.6	15.9	11.1	14.3	14.3	6.3	1.6
서울/경기/인천	(136)	18.4	19.1	14.7	14.7	16.2	2.9	0.7
수도권 이외	(134)	22.4	16.4	16.4	14.2	11.9	4.5	2.2

주: 2순위 응답자 대상

○ 가사근로자의 코로나19로 정부에 바라는 정책 1순위와 2순위를 합한 비율은 '재난지원금 등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금, 보조금 등'이 51.7%로 가장 높고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 지원' 34.1%, 다음으로 '가사근로자 노동자성 인정 보장 법 제정'이 32.1%, '방문 취소시 빠른 연계' 22.6%, '부대 비용 지원'이 22.8%로 응답자 10명 중 2명 이상이 선택함.

- 60대 이상이 '재난지원금 등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금, 보조금 등'을 원하는 비율은 53.4%로 가장 높고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 지원'도 60대 이상이 38.8%로 가장 높음.

'가사근로자 노동자성 인정 보장 법 제정'을 원하는 비율은 30-40대가 39%로 가장 높음

- 수도권 이외 지역의 가사근로자 중 절반 이상인 55.8%가 '재난지원금 등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금, 보조금 등'을 원하여 서울/경기/인천 47.6%에 비해 8.2%p 높음

〈표 I-2-25〉 [가사근로자] 코로나19와 가사근로자 바라는 점_1+2순위(중복응답)

(단위: %)

	전체(명)	재난지원금 등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금, 보조금 등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 지원	가사근로자 노동자성 인정 보장 법 제정	방문 취소시 빠른 연계	부대 비용 지원 (교통비, 점심식사 제공 또는 점심식사비 등)	대체 일자리 지원	가사근로자 활동시 방역 물품 지원	은행 대출 등 금융적 지원
전체	(290)	51.7	34.1	32.1	26.2	22.8	18.3	5.5	2.4
30-40대	(41)	48.8	17.1	39.0	24.4	34.1	12.2	12.2	2.4
50대	(146)	51.4	35.6	29.5	21.9	24.0	23.3	5.5	1.4
60대 이상	(103)	53.4	38.8	33.0	33.0	16.5	13.6	2.9	3.9
중졸 이하	(62)	50.0	41.9	32.3	29.0	21.0	16.1	1.6	6.5
고졸	(193)	51.3	34.2	32.6	24.9	21.2	21.2	5.2	1.6
전문대졸 이상	(35)	57.1	20.0	28.6	28.6	34.3	5.7	14.3	0.0
유배우	(220)	51.8	34.1	31.4	26.8	24.5	17.3	5.5	2.7
무배우	(70)	51.4	34.3	34.3	24.3	17.1	21.4	5.7	1.4
서울/경기/인천	(143)	47.6	31.5	38.5	29.4	22.4	19.6	4.9	1.4
수도권 이외	(147)	55.8	36.7	25.9	23.1	23.1	17.0	6.1	3.4

3. 아이돌보미

가. 코로나19 전후 일자리 현황

- 아이돌보미 근무 경력은 7년~10년 미만이 25.4%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3년~5년 미만이 20.4%, 5~7년 미만 20.2%, 10년 이상 15.2%로 절반 이상이 아이돌보미 경력 5년 이상임.
- 연령별로는 30-40대는 3년~5년 미만이 30.8%로 가장 많고 6개월 ~1년 미만도 13.5%로 50대 이상 연령보다 6배 이상 많음. 50대와 60대 이상은 7년~10년 미만이 25.7%, 31.9%로 가장 높음.
- 학력별로 고졸 이하는 7년~10년 미만 비율이 29.9%로 가장 많고 전문대졸은 3~5년 미만이 27%, 대졸 이상은 5년~7년 미만이 26.5%로 학력에 따른 아이돌보미 경력 분포가 상이함
- 서울/경기/인천 지역 아이돌보미는 7년~10년 미만 비율이 33.3%로 가장 높고 수도권 이외 지역 아이돌보미는 5년~7년 미만이 22.1%로 가장 높음

〈표 I-3-1〉 [아이돌보미] 근무 경력

(단위: %)

	전체(명)	6개월 이상 ~ 1년 미만	1년 이상 ~ 2년 미만	2년 이상 ~ 3년 미만	3년 이상 ~ 5년 미만	5년 이상 ~ 7년 미만	7년 이상 ~ 10년 미만	10년 이상
전체	(500)	4.2	7.2	7.4	20.4	20.2	25.4	15.2
30-40대	(52)	13.5	15.4	15.4	30.8	11.5	5.8	7.7
50대	(304)	3.6	7.9	7.2	20.7	20.1	25.7	14.8
60대 이상	(144)	2.1	2.8	4.9	16.0	23.6	31.9	18.8
고졸 이하	(291)	3.4	4.8	6.9	17.9	21.3	29.9	15.8
전문대졸	(111)	4.5	11.7	9.0	27.0	11.7	19.8	16.2
대졸 이상	(98)	6.1	9.2	7.1	20.4	26.5	18.4	12.2
유배우	(423)	4.7	7.8	6.9	18.9	20.1	26.2	15.4
무배우	(77)	1.3	3.9	10.4	28.6	20.8	20.8	14.3
서울/경기/인천	(156)	3.2	5.8	5.8	19.2	16.0	33.3	16.7
수도권 이외	(344)	4.7	7.8	8.1	20.9	22.1	21.8	14.5

- 아이돌보미의 코로나19 전후 방문 가정 수 변화는 줄어들었다가 43.2%, 변동이 없다가 55.2%, 늘어났다가 1.6%로 응답자 2명 중 1명은 방문가정수 변화가 없음
 - 연령별로는 줄어들었다가 차지하는 비율은 60대 이상이 45.8%로 가장 높음. 변동이 없다는 50대가 56.1%로 가장 높음. 학력별로 고졸 이하에서 학력이 높을수록 변동이 없다는 비율이 1~2%p 씩 상승함.
 - 수도권 이외 지역 아이돌보미의 방문 가정 수의 변동 없음은 54.9%이고 서울/경기/인천에서 55.8%로 0.9%p 높음. 늘어났다 비율은 수도권 지역이 서울/경기/인천 보다 1.4%p 높음

〈표 I-3-2〉 [아이돌보미] 코로나19 전후 돌봄 가정 수 변화

(단위: %)

	전체(명)	늘어났다	변동이 없다	줄어들었다
전체	(500)	1.6	55.2	43.2
30-40대	(52)	1.9	55.8	42.3
50대	(304)	1.3	56.6	42.1
60대 이상	(144)	2.1	52.1	45.8
고졸 이하	(291)	1.0	54.0	45.0
전문대졸	(111)	3.6	56.8	39.6
대졸 이상	(98)	1.0	57.1	41.8
유배우	(423)	1.9	55.1	43.0
무배우	(77)	0.0	55.8	44.2
서울/경기/인천	(156)	0.6	55.8	43.6
수도권 이외	(344)	2.0	54.9	43.0

- 아이돌보미의 코로나19 이전 돌봄 가정수는 평균 1.8개이고 1개가 49%로 가장 많음
 - 연령별로 평균 돌봄 가정수도 1.8개로 동일한 가운데 1개가 차지하는 비율은 30-40대가 51.9%로 가장 높고 50대 49.3%, 60대 이상은 47.2%로 연령이 많을수록 낮아짐.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이 1.9개로 고졸 이하 1.8개, 전문대졸 1.7개 보다 많음. 무배우자가 유배우자에 비해 평균 돌봄 가정수가 0.2개 적음
 - 지역별 돌봄가정수도 1.8개로 동일함. 1개가 차지하는 비율은 서울/경기/인천이 51.3%로 수도권 이외 지역 48% 보다 높음

〈표 I-3-3〉 [아이돌보미] 코로나19 이전 돌봄 가정 수

(단위: %)

	전체(명)	1개	2개	3개	4개	5개 이상	평균(개)
전체	(500)	49.0	34.6	11.6	1.8	3.0	1.8
30-40대	(52)	51.9	26.9	13.5	3.8	3.8	1.8
50대	(304)	49.3	34.5	11.2	2.3	2.6	1.8
60대 이상	(144)	47.2	37.5	11.8	0.0	3.5	1.8
고졸 이하	(291)	48.5	35.1	11.7	2.1	2.7	1.8
전문대졸	(111)	50.5	35.1	11.7	0.9	1.8	1.7
대졸 이상	(98)	49.0	32.7	11.2	2.0	5.1	1.9
유배우	(423)	50.4	33.6	11.6	2.1	2.4	1.8
무배우	(77)	41.6	40.3	11.7	0.0	6.5	2.0
서울/경기/인천	(156)	51.3	34.0	9.6	1.9	3.2	1.8
수도권 이외	(344)	48.0	34.9	12.5	1.7	2.9	1.8

- 아이돌보미의 코로나19 이후 평균 돌봄 가정수는 1.2개로 한 가정만 돌보는 비율이 59.2%로 60% 가까이 됨. 돌봄 가정 없음 비율도 15.0%로 조사됨.
 - 연령별로 돌봄 가정수는 1.2개로 동일하고 돌봄 가정 없음 비율은 50대가 15.8%로 30-40대 11.5%, 60대 이상 14.6% 보다 많음. 한 가정만 돌보는 비율은 30-40대가 61.5%로 가장 많음. 돌봄 가정이 없다는 비율은 유배우자가 15.4%로 무배우자 보다 13% 보다 높음.
 - 수도권 이외 지역 아이돌보미의 코로나19 이후 돌봄 가정 수는 1.2개이며 서울/경기/인천도 1.2개로 동일함. 없음은 서울/경기/인천이 15.4%로 수도권 이외 지역 14.8% 보다 높음

〈표 I-3-4〉 [아이돌보미] 코로나19 이후 돌봄 가정 수

(단위: %)

	전체(명)	없음	1개	2개	3개	4개	5개 이상	평균(개)
전체	(500)	15.0	59.2	21.4	2.8	1.2	0.4	1.2
30-40대	(52)	11.5	61.5	23.1	3.8	0.0	0.0	1.2
50대	(304)	15.8	58.9	20.7	3.3	1.0	0.3	1.2
60대 이상	(144)	14.6	59.0	22.2	1.4	2.1	0.7	1.2
고졸 이하	(291)	16.8	58.4	20.6	2.7	0.7	0.7	1.1
전문대졸	(111)	12.6	58.6	26.1	2.7	0.0	0.0	1.2
대졸 이상	(98)	12.2	62.2	18.4	3.1	4.1	0.0	1.2
유배우	(423)	15.4	59.6	20.3	3.1	1.2	0.5	1.2
무배우	(77)	13.0	57.1	27.3	1.3	1.3	0.0	1.2
서울/경기/인천	(156)	15.4	60.9	19.2	1.9	1.3	1.3	1.2
수도권 이외	(344)	14.8	58.4	22.4	3.2	1.2	0.0	1.2

- 아이돌보미의 코로나19 전후 돌봄 가정 수 감소는 평균 1.5개로 1개 감소가 70.8%로 가장 높음
 - 연령별로는 30-40대와 50대가 평균 1.5개 감소하였고 60대 이상은 1.4개 감소하여 50대 이하 보다 돌봄 가정 수 감소가 적음. 학력별로는 전문대졸의 돌봄 가정수 감소가 1.3개로 가장 적고 대졸 이상이 1.7개로 가장 많음
 - 수도권 이외 지역의 코로나19 전후 돌봄 가정 수는 1.5개 감소하여 서울/경기/인천 1.4개 보다 많이 감소함.

〈표 I-3-5〉 [아이돌보미] 코로나19 전후 돌봄 가정 수 감소 현황

(단위: %)

	전체(명)	1개	2개	3개 이상	평균(개)
전체	(216)	70.8	19.4	9.7	1.5
30-40대	(22)	68.2	13.6	18.2	1.5
50대	(128)	68.0	23.4	8.6	1.5
60대 이상	(66)	77.3	13.6	9.1	1.4
고졸 이하	(131)	71.8	19.1	9.2	1.5
전문대졸	(44)	72.7	20.5	6.8	1.3
대졸 이상	(41)	65.9	19.5	14.6	1.7
유배우	(182)	72.0	19.8	8.2	1.4
무배우	(34)	64.7	17.6	17.6	1.8
서울/경기/인천	(68)	77.9	16.2	5.9	1.4
수도권 이외	(148)	67.6	20.9	11.5	1.5

주: 코로나19 이후 돌봄가정수 감소 응답자 대상

○ 아이돌보미의 코로나19 전후 근로시간은 줄어들었다가 69.4%, 변동이 없다가 23.6%, 늘어났다 7%임.

- 연령별로는 30-40대와 60대 이상의 감소 비율이 각각 73.1%, 72.9%로 50대 감소 비율 67.1% 보다 높음. 학력별로는 고졸의 감소 비율이 67.7%로 전문대졸 69.4%, 대졸 이상 74.5%로 학력이 높을수록 감소 비율이 높음. 유배우자 보다 무배우자의 감소 비율이 더 높음
- 수도권 이외 지역의 코로나19 전후 아이돌봄 시간 감소 비율이 65.7%로 서울/경기/인천 77.6% 보다 높음

〈표 I-3-6〉 [아이돌보미] 코로나19 전후 근로시간 변화

(단위: %)

	전체(명)	늘어났다	변동이 없다	줄어들었다
전체	(500)	7.0	23.6	69.4
30-40대	(52)	9.6	17.3	73.1
50대	(304)	6.6	26.3	67.1
60대 이상	(144)	6.9	20.1	72.9
고졸 이하	(291)	5.5	26.8	67.7
전문대졸	(111)	7.2	23.4	69.4
대졸 이상	(98)	11.2	14.3	74.5
유배우	(423)	8.0	23.4	68.6
무배우	(77)	1.3	24.7	74.0
서울/경기/인천	(156)	3.2	19.2	77.6
수도권 이외	(344)	8.7	25.6	65.7

○ 아이돌보미의 코로나19 이전 주 평균 돌봄근로시간은 22.8시간으로 15-36시간 미만이 44.2%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15시간 미만이 33.4%를 차지함.

- 연령별로는 30-40대 평균 돌봄근로시간이 25.9시간으로 가장 길고 다음으로 60대 이상이 23.1시간, 50대가 22.1시간으로 상대적으로 가장 짧음.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가 23.3시간으로 가장 길고 전문대졸 22.4시간, 대졸 이상이 21.8시간으로 학력이 높을수록 근로시간이 짧아짐. 무배우자는 26.1시간으로 유배우자 22.2시간 보다 평균 근로시간이 3.9시간 김
- 수도권 이외 지역 아이돌보미의 평균 근로시간이 22.7 시간으로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지역 23시간에 비해 0.3시간 짧음.

〈표 I-3-7〉 [아이돌보미] 코로나19 이전 1주 평균 근로시간

(단위: %)

	전체(명)	15시간 미만	15-36시간 미만	36-40시간 미만	40-52시간 이하	52시간 초과	평균(시간)
전체	(500)	33.4	44.2	1.6	20.0	0.8	22.8
30-40대	(52)	32.7	36.5	0.0	30.8	0.0	25.9
50대	(304)	34.5	44.4	2.3	17.8	1.0	22.1
60대 이상	(144)	31.3	46.5	0.7	20.8	0.7	23.1
고졸 이하	(291)	33.7	41.9	2.1	21.6	0.7	23.3
전문대졸	(111)	32.4	46.8	1.8	18.0	0.9	22.4
대졸 이상	(98)	33.7	48.0	0.0	17.3	1.0	21.8
유배우	(423)	35.0	43.0	1.9	19.1	0.9	22.2
무배우	(77)	24.7	50.6	0.0	24.7	0.0	26.1
서울/경기/인천	(156)	35.9	39.1	1.9	21.2	1.9	23.0
수도권 이외	(344)	32.3	46.5	1.5	19.5	0.3	22.7

○ 아이돌보미의 코로나19 이후 주 평균 근로시간은 15.3시간으로 15시간 미만이 41.4%로 가장 많음. 0시간도 15.6%로 조사됨.

- 연령별로는 30-40대가 19.5시간, 50대가 14.9시간, 60대 이상이 14.6시간으로 연령이 많을 수록 돌봄시간은 짧아짐. 학력이 높을수록 평균 근로시간이 짧아 고졸 이하는 15.7시간, 전문대졸 15.2시간, 대졸 이상은 14.1시간임. 무배우자는 16.3시간으로 유배우자 15.1시간에 비해 1.2시간 더 일 함.
- 수도권 이외 지역 아이돌보미의 코로나19 이후 방문 주 평균 근로시간은 15.7시간으로 서울/경기/인천 14.2시간 보다 1.5시간 적음.
- 0시간이 차지하는 비율은 30-40대가 11.5%로 가장 낮고 고졸 이하가 17.5%로 가장 높음. 수도권 이외 지역이 15.4%로 서울/경기/인천 16% 보다 낮음

〈표 I-3-8〉 [아이돌보미] 코로나19 이후 1주 평균 근로시간(4월 기준)

(단위: %)

	전체(명)	0시간	15시간 미만	15-36시간 미만	36-40시간 미만	40-52시간 이하	52시간 초과	평균(시간)
전체	(500)	15.6	41.4	31.6	0.6	9.8	1.0	15.3
30-40대	(52)	11.5	30.8	40.4	0.0	13.5	3.8	19.5
50대	(304)	16.4	42.1	30.3	1.0	9.9	0.3	14.9
60대 이상	(144)	15.3	43.8	31.3	0.0	8.3	1.4	14.6
고졸 이하	(291)	17.5	37.1	33.7	0.7	10.0	1.0	15.7
전문대졸	(111)	12.6	45.9	28.8	0.0	12.6	0.0	15.2
대졸 이상	(98)	13.3	49.0	28.6	1.0	6.1	2.0	14.1

	전체(명)	0시간	15시간 미만	15-36시간 미만	36-40시간 미만	40-52시간 이하	52시간 초과	평균(시간)
유배우	(423)	15.8	42.1	30.3	0.7	9.9	1.2	15.1
무배우	(77)	14.3	37.7	39.0	0.0	9.1	0.0	16.3
서울/경기/인천	(156)	16.0	46.2	28.8	0.6	6.4	1.9	14.2
수도권 이외	(344)	15.4	39.2	32.8	0.6	11.3	0.6	15.7

- 아이돌보미의 코로나19 전후 돌봄근로시간은 평균 11.8시간 감소함. 15시간 미만 감소 비율이 67.1%로 근로시간이 감소한 아이돌보미 10명 중 6.7명에 해당함
 - 연령별로는 30-40대의 감소 시간이 10.3시간으로 40-50대와 60대 11.7시간, 12.6시간에 비해 적음.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와 대졸 이상이 평균 12시간 감소하여 동일하고 전문대졸은 11.1시간 감소하여 고졸 이하와 대졸 이상 학력자에 비해 감소시간이 적음. 무배우는 13.2시간, 유배우자는 11.5시간 감소하여 무배우자가 1.7시간 더 많이 감소함
 - 수도권 이외 지역의 코로나19 전후 근로시간은 평균 11.9시간 감소하여 서울/경기/인천 11.6시간 보다 0.3시간 더 많이 감소함

〈표 I-3-9〉 [아이돌보미] 코로나19 전후 근로시간 감소 현황

(단위: %)

	전체(명)	15시간 미만	15-36시간 미만	36-40시간 미만	40-52시간 이하	52시간 초과	평균(시간)
전체	(347)	67.1	27.4	0.6	4.6	0.3	11.8
30-40대	(38)	68.4	31.6	0.0	0.0	0.0	10.3
50대	(204)	69.1	25.0	0.0	5.4	0.5	11.7
60대 이상	(105)	62.9	30.5	1.9	4.8	0.0	12.6
고졸 이하	(197)	62.9	32.0	1.0	4.1	0.0	12.0
전문대졸	(77)	75.3	18.2	0.0	5.2	1.3	11.1
대졸 이상	(73)	69.9	24.7	0.0	5.5	0.0	12.0
유배우	(290)	67.2	27.6	0.7	4.1	0.3	11.5
무배우	(57)	66.7	26.3	0.0	7.0	0.0	13.2
서울/경기/인천	(121)	67.8	24.0	0.8	7.4	0.0	11.6
수도권 이외	(226)	66.8	29.2	0.4	3.1	0.4	11.9

주: 코로나19 이후 돌봄근로시간 감소 응답자 대상

- 아이돌보미의 코로나19 전후 월 평균 수입은 71%가 감소하였고 변동이 없음은 20.6%, 늘어났음은 8.4%임
 -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의 감소 비율이 74.3%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30-40대 71.2%, 50대는

71.2%가 월 평균 수입이 감소한 것으로 응답함.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가 70.1%, 전문대졸은 71.2%, 대졸 이상은 73.5%로 학력이 높을수록 감소 비율이 상승함. 무배우자(74%)가 유배우자(70.4%)에 비해 감소 비율이 높음

- 수도권 이외 지역의 코로나19 전후 월평균 수입 감소 비율이 67.4%로 서울/경기/인천 78.8% 보다 낮음

〈표 I-3-10〉 [아이돌보미] 코로나19 전후 월 평균 수입 변화

(단위: %)

	전체(명)	늘어났다	변동이 없다	줄어들었다
전체	(500)	8.4	20.6	71.0
30-40대	(52)	11.5	17.3	71.2
50대	(304)	6.6	24.0	69.4
60대 이상	(144)	11.1	14.6	74.3
고졸 이하	(291)	7.9	22.0	70.1
전문대졸	(111)	8.1	20.7	71.2
대졸 이상	(98)	10.2	16.3	73.5
유배우	(423)	9.5	20.1	70.4
무배우	(77)	2.6	23.4	74.0
서울/경기/인천	(156)	5.1	16.0	78.8
수도권 이외	(344)	9.9	22.7	67.4

○ 아이돌보미의 코로나19 이전 월 평균 수입은 123.5만원임. 구간별로 100-150만원이 30%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50-100만원이 25.4%를 차지함.

- 연령별로는 50대가 119.5만원으로 30-40대 139.8만원, 60대 126.1만원 보다 적음.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가 127만원으로 전문대졸 118.5만원, 대졸 이상 119만원 보다 월평균 수입이 많음. 유배우 보다 무배우의 월 평균 수입이 많음.
- 수도권 이외 지역의 코로나19 이전 월평균 수입은 121.4만원으로 서울/경기/인천 128.3만원에 비해 많음

〈표 I-3-11〉 [아이돌보미] 코로나19 이전 월 평균 수입

(단위: %)

	전체(명)	50만원 미만	50-100만원 미만	100-150만원 미만	150-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평균(만원)
전체	(500)	9.2	25.4	30.0	19.4	16.0	123.5
30-40대	(52)	7.7	19.2	28.8	17.3	26.9	139.8
50대	(304)	10.2	26.0	31.6	18.4	13.8	119.5
60대 이상	(144)	7.6	26.4	27.1	22.2	16.7	126.1

	전체(명)	50만원 미만	50-100만원 미만	100-150만원 미만	150-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평균(만원)
고졸 이하	(291)	9.3	23.0	29.9	19.9	17.9	127.0
전문대졸	(111)	10.8	27.0	31.5	16.2	14.4	118.5
대졸 이상	(98)	7.1	30.6	28.6	21.4	12.2	119.0
유배우	(423)	9.9	27.0	29.3	19.4	14.4	120.2
무배우	(77)	5.2	16.9	33.8	19.5	24.7	142.1
서울/경기/인천	(156)	11.5	22.4	26.9	20.5	18.6	128.3
수도권 이외	(344)	8.1	26.7	31.4	18.9	14.8	121.4

○ 아이돌보미의 코로나19 이후 월 평균 수입은 88.1만원임. 구간별로 50-100만원이 30%로 가장 많고 0원도 15.6%를 차지함.

- 연령별로는 30-40대 113.4만원으로 50대 83.3만원, 60대 89만원 보다 많음.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는 88만원, 전문대졸 86.6만원, 대졸 이상 89.8만원임. 유배우(86.4만원)보다 무배우(96.9만원)의 월 평균 수입이 더 많음.
- 수도권 이외 지역의 코로나19 이전 월평균 수입은 89.8만원으로 서울/경기/인천 84.1만원에 비해 5.7만원 많음
- 월 평균 수입 0원의 비율은 30-40대가 11.5%로 가장 낮고 고졸 이하가 17.5%로 가장 높음. 서울/경기/인천이 16%, 수도권 이외 지역이 15.4%로 수입 0원 비율이 높음

〈표 I-3-12〉 [아이돌보미] 코로나19 이후 월 평균 수입

(단위: %)

	전체(명)	0원	50만원 미만	50-100만원 미만	100-150만원 미만	150-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평균(만원)
전체	(500)	15.6	13.8	30.0	19.4	12.6	8.6	88.1
30-40대	(52)	11.5	11.5	28.8	9.6	19.2	19.2	113.4
50대	(304)	16.4	16.1	28.0	21.7	10.5	7.2	83.3
60대 이상	(144)	15.3	9.7	34.7	18.1	14.6	7.6	89.0
고졸 이하	(291)	17.5	13.4	26.1	21.0	13.4	8.6	88.0
전문대졸	(111)	12.6	14.4	36.9	15.3	11.7	9.0	86.6
대졸 이상	(98)	13.3	14.3	33.7	19.4	11.2	8.2	89.8
유배우	(423)	15.8	14.9	29.6	19.4	12.3	8.0	86.4
무배우	(77)	14.3	7.8	32.5	19.5	14.3	11.7	96.9
서울/경기/인천	(156)	16.0	17.3	30.1	16.7	12.2	7.7	84.1
수도권 이외	(344)	15.4	12.2	29.9	20.6	12.8	9.0	89.8

- 아이돌보미의 코로나19 전후 월 평균 수입은 56만원 감소함. 구간별로 50만원 미만 감소가 50.4%로 절반을 상회하고 다음으로 50-100만원이 29.3%를 차지함
 - 연령별로 50대가 56.8만원으로 30-40대 50.7만원, 60대 이상 56.1만원 보다 많이 감소함. 고졸 이하가 61.3만원 감소하여 전문대졸 49.6만원, 대졸 이상 48.1만원 보다 12만 이내 더 많이 감소함. 유배우(54.7만원) 보다 무배우(62.7만원)의 월 평균 수입 감소가 적음
 - 수도권 이외 지역의 코로나19 월평균 수입 감소는 55.4만원으로 서울/경기/인천 57.2만원에 비해 적게 감소함

〈표 I-3-13〉 [아이돌보미] 코로나19 전후 월 평균 수입 감소 현황

(단위: %)

	전체(명)	50만원 미만	50-100만원 미만	100-150만원 미만	150-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평균(만원)
전체	(355)	50.4	29.3	13.5	4.5	2.3	56.0
30-40대	(37)	51.4	32.4	13.5	2.7	0.0	50.7
50대	(211)	51.7	26.1	14.7	5.2	2.4	56.8
60대 이상	(107)	47.7	34.6	11.2	3.7	2.8	56.1
고졸 이하	(204)	44.6	31.9	15.7	4.9	2.9	61.3
전문대졸	(79)	55.7	29.1	10.1	3.8	1.3	49.6
대졸 이상	(72)	61.1	22.2	11.1	4.2	1.4	48.1
유배우	(298)	51.7	27.9	13.8	5.4	1.3	54.7
무배우	(57)	43.9	36.8	12.3	0.0	7.0	62.7
서울/경기/인천	(123)	49.6	31.7	9.8	5.7	3.3	57.2
수도권 이외	(232)	50.9	28.0	15.5	3.9	1.7	55.4

주: 코로나19 이후 월평균 수입 감소 응답자 대상

- 아이돌보미의 코로나19 이전 종사 유형은 ‘가사제외 시간제 돌봄’이 84.4%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영아종일제 돌봄’이 16.8%로 많음. ‘특별 돌봄(기관파견, 질병감염아동(긴급) 돌봄 등)’은 5.4%, ‘가사포함 시간제 돌봄(가사포함)’이 2.8%로 가장 적음
 - ‘가사제외 시간제 돌봄’이 차지하는 비율은 연령별로는 큰 차이가 없음.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와 전문대졸이 83.8%로 동일한 반면, 대졸 이상은 86.7%로 높음. 무배우자는 ‘영아종일제 돌봄’이 차지하는 비율이 16.5%로 유배우자 18.2% 보다 낮음
 - 서울/경기/인천 지역은 ‘가사제외 시간제 돌봄’이 차지하는 비율이 85.3%로 수도권 이외 지역 84% 보다 1.3%p 높음. 수도권 이외 지역은 ‘가사포함 시간제 돌봄(가사포함)’이 차지하는 비율이 3.2%로 서울/경기/인천 1.9%에 비해 높음

〈표 I-3-14〉 [아이돌보미] 코로나19 이전 아이돌보미 종사 유형(중복응답)

(단위: %)

	전체(명)	가사제외 시간제 돌봄	영아종일제 돌봄	특별 돌봄(기관파견, 질병감염아동(긴급 돌봄 등))	가사포함 시간제 돌봄(가사포함)
전체	(500)	84.4	16.8	5.4	2.8
30-40대	(52)	84.6	15.4	1.9	1.9
50대	(304)	84.5	17.4	5.3	2.6
60대 이상	(144)	84.0	16.0	6.9	3.5
고졸 이하	(291)	83.8	18.9	6.9	2.1
전문대졸	(111)	83.8	13.5	1.8	2.7
대졸 이상	(98)	86.7	14.3	5.1	5.1
유배우	(423)	84.6	16.5	5.2	3.3
무배우	(77)	83.1	18.2	6.5	0.0
서울/경기/인천	(156)	85.3	17.9	7.1	1.9
수도권 이외	(344)	84.0	16.3	4.7	3.2

○ 아이돌보미의 코로나19 전후 종사 유형에 변동있음은 12.4%, 변동없음은 87.6%로 대부분 변동이 없음.

- 변동이 없었음. 비율은 학력이 30-40대가 90.4%로 가장 높고 연령이 많을수록 변동없었음 비율은 낮아짐.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의 변동없었음 비율이 83.7%로 고졸 이하 88.7%, 전문대졸 88.3% 보다 낮음. 무배우자가 유배우자 보다 변동없었음
- 서울/경기/인천 지역은 변동 없었음 비율이 84%로 수도권 이외 지역 89.2% 보다 낮음

〈표 I-3-15〉 [아이돌보미] 코로나19 전후 아이돌보미 종사 유형 변동 여부

(단위: %)

	전체(명)	변동이 있었다	변동이 없었다
전체	(500)	12.4	87.6
30-40대	(52)	9.6	90.4
50대	(304)	12.2	87.8
60대 이상	(144)	13.9	86.1
고졸 이하	(291)	11.3	88.7
전문대졸	(111)	11.7	88.3
대졸 이상	(98)	16.3	83.7
유배우	(423)	12.5	87.5
무배우	(77)	11.7	88.3
서울/경기/인천	(156)	16.0	84.0
수도권 이외	(344)	10.8	89.2

- 아이돌보미의 코로나19 이후 종사 유형은 ‘가사제외 시간제 돌봄’이 85.6%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영아종일제 돌봄’이 13.4%로 많음. ‘특별 돌봄(기관파견, 질병감염아동(긴급) 돌봄 등)’은 5.8%, ‘가사포함 시간제 돌봄(가사포함)’이 2.8%로 가장 적음
 - ‘가사제외 시간제 돌봄’이 차지하는 비율은 30-40대가 82.7%로 50대 85.2%, 60대 이상 87.5% 보다 낮음. 학력별로는 전문대졸이 87.4%로 고졸 이하 84.9%, 대졸 이상 85.7% 보다 높음.
 - 무배우자는 ‘영아종일제 돌봄’이 차지하는 비율이 14.3%로 유배우자 13.2% 보다 높음. 코로나19 이전에 무배우자의 ‘영아종일제 돌봄’이 유배우자 보다 낮은 것과는 반대가 됨.
 - 서울/경기/인천 지역은 ‘가사제외 시간제 돌봄’이 차지하는 비율이 85.3%로 수도권 이외 지역 85.8%로 차이가 크지 않음. 서울/경기/인천 지역은 ‘특별 돌봄(기관파견, 질병감염아동(긴급) 돌봄 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9%로 수도권 이외 지역 4.4% 보다 2배 이상 높음

〈표 I-3-16〉 [아이돌보미] 코로나19이후 아이돌보미 종사 유형(중복응답, 4월 기준)

(단위: %)

	전체(명)	가사제외 시간제 돌봄	영아종일제 돌봄	특별 돌봄(기관파견, 질병감염아동(긴급) 돌봄 등)	가사포함 시간제 돌봄(가사포함)
전체	(500)	85.6	13.4	5.8	2.8
30-40대	(52)	82.7	13.5	1.9	3.8
50대	(304)	85.2	13.2	6.3	3.0
60대 이상	(144)	87.5	13.9	6.3	2.1
고졸 이하	(291)	84.9	15.8	6.9	2.1
전문대졸	(111)	87.4	9.9	4.5	1.8
대졸 이상	(98)	85.7	10.2	4.1	6.1
유배우	(423)	85.3	13.2	5.9	3.1
무배우	(77)	87.0	14.3	5.2	1.3
서울/경기/인천	(156)	85.3	12.8	9.0	1.9
수도권 이외	(344)	85.8	13.7	4.4	3.2

- 아이돌보미의 코로나19로 연계취소 경험 있음은 76.2%, 없음은 23.8%로 10명 중 7.6명은 연계 취소 경험을 함
 - 연계 취소 경험 있음 비율은 학력이 60대 이상이 80.6%로 30-40대 61.5%, 50대 76.6% 보다 높음. 연령이 많을수록 연계취소 경험 비율이 상승함.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의 연계취소 경험 비율이 77.6%로 고졸 이하 75.6%, 전문대졸 76.6% 보다 높음. 무배우자가 유배우자 보다 연계취소 경험 비율이 3.5%p 높음.
 -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연계취소 경험 비율은 82.1%로 수도권 이외 지역 73.5% 보다 낮음

〈표 I-3-17〉 [아이돌보미] 코로나19로 인한 연계 취소 경험 유무

(단위: %)

	전체(명)	있음	없음
전체	(500)	76.2	23.8
30-40대	(52)	61.5	38.5
50대	(304)	76.6	23.4
60대 이상	(144)	80.6	19.4
고졸 이하	(291)	75.6	24.4
전문대졸	(111)	76.6	23.4
대졸 이상	(98)	77.6	22.4
유배우	(423)	75.7	24.3
무배우	(77)	79.2	20.8
서울/경기/인천	(156)	82.1	17.9
수도권 이외	(344)	73.5	26.5

- 아이돌보미의 코로나19로 연계취소 후 센터 후속조치가 있었다는 응답은 12.1%, 없었다는 87.9%로 대부분의 센터에서 돌봄가정 연계 취소 후 조치를 하지않음
 - 연계 취소 후 센터의 후속 조치가 있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학력이 60대 이상이 19.8%로 가장 높고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와 대졸 이상이 13.2%로 전문대졸 8.2% 보다 높음. 무배우 아이돌보미 중 센터 조치 경험 비율이 4.9%로 가장 낮음
 -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연계취소 후 센터 조치 경험 비율은 7.8%로 수도권 이외 지역 14.2% 보다 낮음

〈표 I-3-18〉 [아이돌보미] 연계 취소 후 센터 후속조치 유무

(단위: %)

	전체(명)	있었다	없었다
전체	(381)	12.1	87.9
30-40대	(32)	6.3	93.8
50대	(233)	9.0	91.0
60대 이상	(116)	19.8	80.2
고졸 이하	(220)	13.2	86.8
전문대졸	(85)	8.2	91.8
대졸 이상	(76)	13.2	86.8
유배우	(320)	13.4	86.6
무배우	(61)	4.9	95.1
서울/경기/인천	(128)	7.8	92.2
수도권 이외	(253)	14.2	85.8

주: 연계취소 경험 있는 응답자

- 아이돌보미의 코로나19로 연계취소 후 센터 후속조치는 ‘다른 연계 대기 중 임’이 54.3%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다른 연계를 받고 아이돌봄활동을 함’은 45.7%를 차지함.
- ‘다른 연계를 받고 아이돌봄활동을 함’ 비율은 서울/경기/인천이 50%로 수도권 이외 지역 44.4% 보다 높음. 서울/경기/인천 지역은 앞서 연계 취소 후 센터 후속 조치 비율은 수도권 이외 지역 보다 낮았으나 다른 연계를 한 비율은 수도권 이외 지역 보다 높음

〈표 I-3-19〉 [아이돌보미] 센터 후속조치 관련 구체적 내용

(단위: %)

	전체(명)	다른 연계를 받고 아이돌봄활동을 함	다른 연계 대기 중 임
전체	(46)	45.7	54.3
30-40대	(2)	50.0	50.0
50대	(21)	42.9	57.1
60대 이상	(23)	47.8	52.2
고졸 이하	(29)	41.4	58.6
전문대졸	(7)	57.1	42.9
대졸 이상	(10)	50.0	50.0
유배우	(43)	46.5	53.5
무배우	(3)	33.3	66.7
서울/경기/인천	(10)	50.0	50.0
수도권 이외	(36)	44.4	55.6

주: 연계취소 후 센터의 조치가 있었다는 응답자

나.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 아이돌보미의 코로나19로 인한 수입감소 어려움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가 41.8%, 그렇다 35.2%를 합한 비율은 77%로 10명 중 7.7명이 수입감소로 어렵다고 응답함
- 연령별로 60대가 수입감소로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79.9%로 가장 많고 30-40대는 76.9%, 50대 75.7%임.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이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78.6%로 고졸 이하와 전문대졸 76.6% 보다 높음. 무배우는 83.1%가 수입감소로 어렵다고 응답하여 유배우 75.9% 보다 높음.
- 수도권 이외 지역의 아이돌보미는 72.7%가 수입감소로 어렵다고 응답하여 서울/경기/인천 86.5%에 비해 수입감소로 인한 어려움에 대한 비율이 3.8%p 낮음

〈표 I-3-20〉 [아이돌보미] 코로나19와 아이돌보미 어려움_수입감소

(단위: %)

	전체(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①+②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③+④ 그렇다
전체	(500)	2.6	20.4	23.0	35.2	41.8	77.0
30-40대	(52)	0.0	23.1	23.1	36.5	40.4	76.9
50대	(304)	2.3	22.0	24.3	35.9	39.8	75.7
60대 이상	(144)	4.2	16.0	20.1	33.3	46.5	79.9
고졸 이하	(291)	2.4	21.0	23.4	35.4	41.2	76.6
전문대졸	(111)	0.9	22.5	23.4	31.5	45.0	76.6
대졸 이상	(98)	5.1	16.3	21.4	38.8	39.8	78.6
유배우	(423)	2.6	21.5	24.1	35.2	40.7	75.9
무배우	(77)	2.6	14.3	16.9	35.1	48.1	83.1
서울/경기/인천	(156)	1.9	11.5	13.5	33.3	53.2	86.5
수도권 이외	(344)	2.9	24.4	27.3	36.0	36.6	72.7

○ 아이돌보미의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가 27.6%, 그렇다 37.6%로 그렇다가 차지하는 비율이 65.2%임

- 연령이 높을수록 코로나19감염 위험으로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승하여 30-40대는 63.5%, 60대 이상은 67.4%임. 학력별로는 전문대졸이 감염위험으로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71.2%로 고졸 이하 62.5%, 대졸 이상 66.3% 보다 높음. 무배우는 64.9%로 유배우자 65.2% 보다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에 0.3%p 차이가 남
- 수도권 이외 지역의 아이돌보미 61.3%가 코로나19 감염위험으로 어렵다고 응답하여 서울/경기/인천 73.7%에 비해 코로나19 감염위험에 대한 어려움에 대한 비율이 12.4%p 낮음

〈표 I-3-21〉 [아이돌보미] 코로나19와 아이돌보미 어려움_코로나19 감염위험

(단위: %)

	전체(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①+②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③+④ 그렇다
전체	(500)	10.4	24.4	34.8	37.6	27.6	65.2
30-40대	(52)	13.5	23.1	36.5	32.7	30.8	63.5
50대	(304)	10.5	25.0	35.5	38.2	26.3	64.5
60대 이상	(144)	9.0	23.6	32.6	38.2	29.2	67.4
고졸 이하	(291)	12.4	25.1	37.5	36.8	25.8	62.5
전문대졸	(111)	9.0	19.8	28.8	38.7	32.4	71.2
대졸 이상	(98)	6.1	27.6	33.7	38.8	27.6	66.3
유배우	(423)	10.2	24.6	34.8	37.6	27.7	65.2
무배우	(77)	11.7	23.4	35.1	37.7	27.3	64.9

	전체(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①+②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③+④ 그렇다
서울/경기/인천	(156)	6.4	19.9	26.3	37.2	36.5	73.7
수도권 이외	(344)	12.2	26.5	38.7	37.8	23.5	61.3

- 아이돌보미의 코로나19로 인한 일방적 연계 취소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가 28.4%, 그렇다 34.2%로 그렇다가 차지하는 비율이 62.6%임
 - 연령별로 60대 이상이 코로나19로 인한 일방적 연계 취소로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68.1%로 가장 높고 30-40대는 50%, 50대 이상은 62%를 차지함. 학력별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일방적 연계 취소로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은 학력이 높을수록 상승하여 고졸 이하는 60.5%인 반면 대졸 이상은 68.4%로 조사됨. 무배우자는 66.2%로 유배우자 61.9% 보다 코로나19로 인한 일방적 연계 취소로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 수도권 이외 지역의 아이돌보미 58.7%가 코로나19로 일방적 연계 취소로 어렵다고 응답하여 서울/경기/인천 71.2%에 비해 코로나19 감염위험에 대한 어려움에 대한 비율이 12.5%p 높음

〈표 I-3-22〉 [아이돌보미] 코로나19와 아이돌보미 어려움_일방적 연계 취소

(단위: %)

아이돌보미	전체(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①+②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③+④ 그렇다
전체	(500)	13.0	24.4	37.4	34.2	28.4	62.6
30-40대	(52)	17.3	32.7	50.0	13.5	36.5	50.0
50대	(304)	12.8	25.0	37.8	37.5	24.7	62.2
60대 이상	(144)	11.8	20.1	31.9	34.7	33.3	68.1
고졸 이하	(291)	15.8	23.7	39.5	31.3	29.2	60.5
전문대졸	(111)	6.3	30.6	36.9	34.2	28.8	63.1
대졸 이상	(98)	12.2	19.4	31.6	42.9	25.5	68.4
유배우	(423)	13.7	24.3	38.1	32.6	29.3	61.9
무배우	(77)	9.1	24.7	33.8	42.9	23.4	66.2
서울/경기/인천	(156)	11.5	17.3	28.8	34.6	36.5	71.2
수도권 이외	(344)	13.7	27.6	41.3	34.0	24.7	58.7

- 아이돌보미의 코로나19로 인한 방문가정의 무시나 갑질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가 5.4%, 그렇다 12.4%로 그렇다가 차지하는 비율이 17.3%임
 - 연령별로 50대가 방문가정의 무시나 갑질로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19.1%로 30-40대 17.3%, 60대 이상 15.3% 보다 높음. 학력별로는 전문대졸이 21.6%로 고졸 이하 15.5%, 대졸 이상 20.4% 보다 높음. 전문대졸 이상의 아이돌보미들이 고졸 이하 보다 방문가정의

- 무시나 갑질에 대한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무배우자(20.8%)가 유배우(17.3%)자보다 방문가족의 무시나 갑질로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
- 수도권 이외 지역의 아이돌보미 16%가 코로나19로 방문가정의 무시나 갑질이 어렵다고 응답하여 서울/경기/인천 21.8%에 비해 방문가정의 무시나 갑질에 대한 어려움에 대한 비율이 5.8%p 낮음

〈표 I-3-23〉 [아이돌보미] 코로나19와 아이돌보미 어려움_방문가정의 무시나 갑질 (단위: %)

아이돌보미	전체(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①+②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③+④ 그렇다
전체	(500)	36.8	45.4	82.2	12.4	5.4	17.8
30-40대	(52)	46.2	36.5	82.7	7.7	9.6	17.3
50대	(304)	35.9	45.1	80.9	13.8	5.3	19.1
60대 이상	(144)	35.4	49.3	84.7	11.1	4.2	15.3
고졸 이하	(291)	39.9	44.7	84.5	10.3	5.2	15.5
전문대졸	(111)	29.7	48.6	78.4	17.1	4.5	21.6
대졸 이상	(98)	35.7	43.9	79.6	13.3	7.1	20.4
유배우	(423)	36.9	45.9	82.7	10.9	6.4	17.3
무배우	(77)	36.4	42.9	79.2	20.8	0.0	20.8
서울/경기/인천	(156)	32.1	46.2	78.2	14.1	7.7	21.8
수도권 이외	(344)	39.0	45.1	84.0	11.6	4.4	16.0

다. 코로나19로 인한 자발적 일 중단 경험

- 아이돌보미가 코로나19로 아이돌보미 일을 스스로 중단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서 13.8%가 그렇다고 응답함.
 - 연령별로 30-40대 아이돌보미가 스스로 일을 중단한 경험 비율이 11.5%로 가장 낮고 50대가 15.1%로 가장 높음. 학력별로는 전문대졸이 18.9%로 일 중단 경험 비율 높음. 무배우자는 11.7%로 유배우자 14.2% 보다 일 중단 경험 비율이 낮음
 - 수도권 이외 지역 아이돌보미 중 12.8%가 스스로 일을 중단한 경험이 있어 서울/경기/인천 지역 아이돌보미 16% 보다 3.2%p 낮음

〈표 I-3-24〉 [아이돌보미] 코로나19와 아이돌보미 중단 경험

(단위: %)

아이돌보미	전체(명)	예	아니오
전체	(500)	13.8	86.2
30-40대	(52)	11.5	88.5
50대	(304)	15.1	84.9
60대 이상	(144)	11.8	88.2
고졸 이하	(291)	11.7	88.3
전문대졸	(111)	18.9	81.1
대졸 이상	(98)	14.3	85.7
유배우	(423)	14.2	85.8
무배우	(77)	11.7	88.3
서울/경기/인천	(156)	16.0	84.0
수도권 이외	(344)	12.8	87.2

○ 코로나19로 아이돌보미를 중단한 경험이 있는 아이돌보미 중 89.9%는 위험수당이나 방역 지원이 있었다면 일을 중단하지 않았다고 응답함

- 위험수당이나 방역 지원이 있었다면 일을 중단하지 않았음 비율은 연령별로 60대가 94.1%로 가장 높고 학력별로는 전문대졸이 95.2%로 가장 높음. 무배우는 88.9%로 유배우 90%에 비해 1.1%p 낮음.
- 수도권 이외 지역 아이돌보미는 90.9%로 서울/경기/인천 88% 보다 높음

〈표 I-3-25〉 [아이돌보미] 코로나19와 아이돌보미 위험수당 및 방역지원시 일자리 유지 여부

(단위: %)

아이돌보미 중단경험 있음	전체(명)	예	아니오
전체	(69)	89.9	10.1
30-40대	(6)	83.3	16.7
50대	(46)	89.1	10.9
60대 이상	(17)	94.1	5.9
고졸 이하	(34)	88.2	11.8
전문대졸	(21)	95.2	4.8
대졸 이상	(14)	85.7	14.3
유배우	(60)	90.0	10.0
무배우	(9)	88.9	11.1
서울/경기/인천	(25)	88.0	12.0
수도권 이외	(44)	90.9	9.1

주: 자발적으로 일을 중단한 경험 있는 응답자 대상

라. 사회보험 가입 현황

- 아이돌보미 건강보험 가입은 직장가입자가 85.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피부양자 직장가입 비율이 8.2%, 지역가입자 4.8%, 의료수급권자 1%, 건강보험 미가입 비율인 0.2%에 불과함.
- 연령별로 본인 직장가입자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은 50대로 87.2%를 차지하고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이 86.7%로 가장 높음. 미가입 비율은 50대가 0.3%로 나머지 연령대가 0%인 것과 차이가 있음
- 서울/경기/인천 아이돌보미는 수도권 이외 지역 아이돌보미 보다 본인 직장가입자, 의료수급자, 피부양자 직장가입 비율이 높음

〈표 I-3-26〉 [아이돌보미] 건강보험 가입 상태

(단위: %)

아이돌보미	전체(명)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의료수급권자	직장가입피부양자 (※직장에 다니는 부모, 배우자, 자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올라간 상태)	미가입 (※6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상태)
전체	(500)	85.8	4.8	1.0	8.2	0.2
30-40대	(52)	84.6	7.7	0.0	7.7	0.0
50대	(304)	87.2	4.3	1.0	7.2	0.3
60대 이상	(144)	83.3	4.9	1.4	10.4	0.0
고졸 이하	(291)	85.9	4.5	1.4	8.2	0.0
전문대졸	(111)	84.7	4.5	0.0	9.9	0.9
대졸 이상	(98)	86.7	6.1	1.0	6.1	0.0
유배우	(423)	86.3	4.0	0.7	8.7	0.2
무배우	(77)	83.1	9.1	2.6	5.2	0.0
서울/경기/인천	(156)	87.8	1.9	1.3	9.0	0.0
수도권 이외	(344)	84.9	6.1	0.9	7.8	0.3

- 아이돌보미 국민연금 가입은 직장가입이 72%, 임의가입이 8.4%, 지역가입이 5.6%, 미가입이 14.8%임.
- 연령별로 직장가입 비율은 30-50대는 90% 이상을 차지하고 60대는 27.1%로 1/3 수준으로 낮음. 60대 이상은 미가입 비율이 43.8%로 가장 높음.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와 대졸 이상의 미가입 비율이 16.2%, 15.3%로 전문대졸 7.2% 보다 높음. 무배우자의 미가입 비율이 27.3%로 유배우자 11.6% 보다 높음
- 서울/경기/인천 아이돌보미는 수도권 이외 지역 아이돌보미 보다 국민연금 직장가입 비율, 지역가입자 비율은 낮고 임의가입자와 미가입 비율은 높음

〈표 I-3-27〉 [아이돌보미] 국민연금 가입 상태

(단위: %)

아이돌보미	전체(명)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미가입 (※ 국민연금에 가입한 적 없거나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전체	(500)	72.0	5.6	8.4	14.0
30-40대	(52)	90.4	0.0	7.7	1.9
50대	(304)	90.1	3.9	3.9	2.0
60대 이상	(144)	27.1	11.1	18.1	43.8
고졸 이하	(291)	69.8	6.2	7.9	16.2
전문대졸	(111)	77.5	4.5	10.8	7.2
대졸 이상	(98)	72.4	5.1	7.1	15.3
유배우	(423)	74.9	5.0	8.5	11.6
무배우	(77)	55.8	9.1	7.8	27.3
서울/경기/인천	(156)	65.4	4.5	9.6	20.5
수도권 이외	(344)	75.0	6.1	7.8	11.0

- 아이돌보미 고용보험 가입은 가입이 87.4%로 10명 중 8명이 고용보험 가입 상태임
 - 연령별로는 50대의 가입 비율이 89.1%로 가장 높고 전문대졸이 85.6%로 고졸 이하 88%, 대졸 이상 87.8% 보다 낮음. 무배우자가 유배우자 보다 가입 비율이 0.5%p 낮음
 - 서울/경기/인천 아이돌보미는 수도권 이외 지역 아이돌보미 보다 고용보험 미가입 비율이 5%p 낮음

〈표 I-3-28〉 [아이돌보미] 고용보험 가입 여부

(단위: %)

아이돌보미	전체(명)	가입	미가입	가입여부를 잘 모름
전체	(500)	87.4	4.8	7.8
30-40대	(52)	86.5	3.8	9.6
50대	(304)	89.1	4.6	6.3
60대 이상	(144)	84.0	5.6	10.4
고졸 이하	(291)	88.0	5.2	6.9
전문대졸	(111)	85.6	3.6	10.8
대졸 이상	(98)	87.8	5.1	7.1
유배우	(423)	87.5	4.7	7.8
무배우	(77)	87.0	5.2	7.8
서울/경기/인천	(156)	84.0	6.4	9.6
수도권 이외	(344)	89.0	4.1	7.0

마. 정부에 바라는 정책

- 아이돌보미의 코로나19로 정부에 바라는 정책 1순위는 ‘아이돌보미 기초근무시간 보장’이 50%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재난지원금 등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금,보조금 등’이 18.6%, ‘연계 취소시 빠른 연계’와 ‘아이돌봄 이용 비용 국가와 지자체 부담 확대’가 9.8%, ‘부대 비용 지원(교통비, 점심식사 제공 또는 점심식사비 등)’이 8.4%를 차지함.
 - ‘아이돌보미 기초근무시간 보장’은 30-40대가 61.5%로 가장 높고 학력별로는 전문대졸이 52.3%로 가장 높음. 무배우자는 유배우자 보다 ‘재난지원금 등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금, 보조금 등’을 바라는 비율이 높음
 - 수도권 이외 지역의 아이돌보미 51.2%가 ‘아이돌보미 기초근무시간 보장’을 원하여 서울/경기/인천 47.4%에 비해 높음.

〈표 1-3-29〉 [아이돌보미] 코로나19와 아이돌보미 바라는 점_1순위

(단위: %)

아이돌보미	전체(명)	아이돌보미 기초근무시간 보장	재난지원금 등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금, 보조금 등	연계 취소시 빠른 연계	아이돌봄 이용 비용 국가와 지자체 부담 확대	부대 비용 지원(교통비, 점심식사 제공 또는 점심식사비 등)	아이돌봄 활동시 방역 물품 지원	대체 일자리 지원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 지원	은행 대출 등 금융적 지원
전체	(500)	50.0	18.6	9.8	9.8	8.4	1.4	0.8	0.8	0.4
30-40대	(52)	61.5	11.5	3.8	15.4	5.8	0.0	0.0	1.9	0.0
50대	(304)	50.7	20.4	6.6	9.9	9.5	1.3	0.3	0.7	0.7
60대 이상	(144)	44.4	17.4	18.8	7.6	6.9	2.1	2.1	0.7	0.0
고졸 이하	(291)	50.5	16.8	9.6	11.0	8.9	1.4	0.3	1.0	0.3
전문대졸	(111)	52.3	22.5	8.1	5.4	9.0	0.9	0.9	0.9	0.0
대졸 이상	(98)	45.9	19.4	12.2	11.2	6.1	2.0	2.0	0.0	1.0
유배우	(423)	51.1	17.7	9.9	9.7	8.7	1.7	0.7	0.5	0.0
무배우	(77)	44.2	23.4	9.1	10.4	6.5	0.0	1.3	2.6	2.6
서울/경기/인천	(156)	47.4	22.4	12.2	7.7	6.4	1.3	1.3	1.3	0.0
수도권 이외	(344)	51.2	16.9	8.7	10.8	9.3	1.5	0.6	0.6	0.6

- 아이돌보미의 코로나19로 정부에 바라는 정책 2순위는 ‘부대 비용 지원(교통비, 점심식사 제공 또는 점심식사비 등)’이 24.7%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아이돌봄 이용 비용 국가와 지자체 부담 확대’이 22.4%, ‘아이돌보미 기초근무시간 보장’이 21.6%, ‘재난지원금 등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금, 보조금 등’ 11.9%로 선택함
 - ‘부대 비용 지원(교통비, 점심식사 제공 또는 점심식사비 등)’은 60대가 28.7%로 가장 높고 학력별로는 고졸 이하가 27.9%로 높음. 무배우자는 유배우자 보다 ‘아이돌보미 기초근무시간

보장'을 바라는 비율이 높음

- 서울/경기/인천 아이돌보미는 수도권 이외 지역의 아이돌보미 보다 '부대 비용 지원(교통비, 점심식사 제공 또는 점심식사비 등)', '재난지원금 등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금, 보조금 등', '연계 취소시 빠른 연계'를 바라는 비율이 높음

〈표 I-3-30〉 [아이, 돌보미] 코로나19와 아이돌보미 바라는 점_2순위

(단위: %)

아이돌보미	전체(명)	부대 비용 지원(교통비, 점심식사 제공 또는 점심식사비 등)	아이돌봄 이용 비용 국가와 지자체 부담 확대	아이돌 보미 기초근무시간 보장	재난지원금 등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금, 보조금 등	연계 취소시 빠른 연계	아이돌봄 활동시 방역 물품 지원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 지원	대체 일자리 지원	은행 대출 등 금융적 지원	기타
전체	(486)	24.7	22.4	21.6	11.9	7.0	4.1	3.9	3.3	0.8	0.2
30-40대	(48)	25.0	22.9	20.8	12.5	4.2	4.2	2.1	6.3	2.1	0.0
50대	(295)	22.7	23.7	22.0	11.9	7.1	4.1	4.4	3.1	0.7	0.3
60대 이상	(143)	28.7	19.6	21.0	11.9	7.7	4.2	3.5	2.8	0.7	0.0
고졸 이하	(283)	27.9	19.8	20.5	12.0	7.8	4.2	3.9	2.8	1.1	0.0
전문대졸	(109)	20.2	26.6	22.9	10.1	6.4	4.6	3.7	4.6	0.0	0.9
대졸 이상	(94)	20.2	25.5	23.4	13.8	5.3	3.2	4.3	3.2	1.1	0.0
유배우	(410)	25.1	22.7	21.2	11.7	6.3	4.9	4.1	2.9	0.7	0.2
무배우	(76)	22.4	21.1	23.7	13.2	10.5	0.0	2.6	5.3	1.3	0.0
서울/경기/인천	(151)	28.5	19.9	16.6	14.6	10.6	4.0	3.3	1.3	1.3	0.0
수도권 이외	(335)	23.0	23.6	23.9	10.7	5.4	4.2	4.2	4.2	0.6	0.3

주: 정부에 바라는 정책 2순위 응답자

- 아이돌보미가 코로나19로 정부에 바라는 정책 1순위+2순위는 '아이돌보미 기초근무시간 보장'이 71%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부대 비용 지원(교통비, 점심식사 제공 또는 점심식사비 등)'이 32.4%, '아이돌봄 이용 비용 국가와 지자체 부담 확대' 31.6%, '재난지원금 등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금, 보조금 등' 30.2%로 10명 중 3명 이상이 바라는 정책임.
- '아이돌보미 기초근무시간 보장'은 30-40대가 80.8%로 가장 높고 학력별로는 전문대졸이 74.8%로 가장 높음. 무배우자는 유배우자 보다 '재난지원금 등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금, 보조금 등'을 바라는 비율이 높음
- 수도권 이외 지역의 아이돌보미 74.4%가 '아이돌보미 기초근무시간 보장'을 원하여 서울/경기/인천 63.4%에 비해 높음.

〈표 I-3-31〉 [아이돌보미] 코로나19와 아이돌보미 바라는 점_1+2순위(중복응답)

(단위: %)

아이돌보미	전체(명)	아이돌보미 기초근무 시간 보장	부대 비용 지원 (교통비, 점심식사 제공 또는 점심 식사비 등)	아이돌보미 이용 비용 국가와 지자체 부담 확대	재난 지원금 등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금, 보조금 등	연계 취소시 빠른 연계	아이돌보미 활동시 방역 물품 지원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 지원	대체 일자리 지원	은행 대출 등 금융적 지원	기타
전체	(500)	71.0	32.4	31.6	30.2	16.6	5.4	4.6	4.0	1.2	0.2
30-40대	(52)	80.8	28.8	36.5	23.1	7.7	3.8	3.8	5.8	1.9	0.0
50대	(304)	72.0	31.6	32.9	31.9	13.5	5.3	4.9	3.3	1.3	0.3
60대 이상	(144)	65.3	35.4	27.1	29.2	26.4	6.3	4.2	4.9	0.7	0.0
고졸 이하	(291)	70.4	36.1	30.2	28.5	17.2	5.5	4.8	3.1	1.4	0.0
전문대졸	(111)	74.8	28.8	31.5	32.4	14.4	5.4	4.5	5.4	0.0	0.9
대졸 이상	(98)	68.4	25.5	35.7	32.7	17.3	5.1	4.1	5.1	2.0	0.0
유배우	(423)	71.6	33.1	31.7	29.1	16.1	6.4	4.5	3.5	0.7	0.2
무배우	(77)	67.5	28.6	31.2	36.4	19.5	0.0	5.2	6.5	3.9	0.0
서울/경기/인천	(156)	63.5	34.0	26.9	36.5	22.4	5.1	4.5	2.6	1.3	0.0
수도권 이외	(344)	74.4	31.7	33.7	27.3	14.0	5.5	4.7	4.7	1.2	0.3

4. 방과후학교 강사

가. 코로나19 전후 일자리 현황

- 방과후학교 강사 경력은 10년 이상이 45.4%로 가장 많음. 다음으로 7년~10년 미만 24.8%, 5~7년 미만 12.7%으로 5년 이상이 82.9%를 차지함
- 연령별로는 10년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은 20-30대 23.1%, 40대 44.1%, 50-60대는 72.6%로 연령이 높을수록 경력 기간도 김.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이 46.4%, 전문대졸이 41.7%임.
- 서울/경기/인천 거주 방과후학교 강사의 10년 이상 경력 비율은 50.3%로 절반을 상회하고 수도권 이외 거주는 37.8%가 10년 이상 경력임

〈표 I-4-1〉 [방과후학교 강사] 근무 경력

(단위: %)

	전체(명)	6개월 이상 ~ 1년 미만	1년 이상 ~ 2년 미만	2년 이상 ~ 3년 미만	3년 이상 ~ 5년 미만	5년 이상 ~ 7년 미만	7년 이상 ~ 10년 미만	10년 이상
전체	(306)	1.6	4.2	2.6	8.5	12.7	24.8	45.4
20-30대	(65)	3.1	7.7	7.7	12.3	16.9	29.2	23.1
40대	(179)	1.7	3.4	1.1	10.1	12.8	26.8	44.1
50-60대	(62)	0.0	3.2	1.6	0.0	8.1	14.5	72.6
전문대졸	(72)	4.2	4.2	5.6	6.9	13.9	23.6	41.7
대졸 이상	(222)	0.9	4.5	1.8	9.0	12.2	25.2	46.4
모름/무응답	(12)	0.0	0.0	0.0	8.3	16.7	25.0	50.0
유배우	(241)	1.7	3.3	2.5	9.1	12.0	24.9	46.5
무배우	(65)	1.5	7.7	3.1	6.2	15.4	24.6	41.5
서울/경기/인천	(187)	1.6	4.3	1.6	5.9	9.1	27.3	50.3
수도권 이외	(119)	1.7	4.2	4.2	12.6	18.5	21.0	37.8

○ 방과후학교 강사의 코로나19전후 출강 학교수 변화는 줄어들었다가 91.5%, 변동이 없다가 7.5%, 늘어났다가 1%로 10명 중 9명의 방문 학교수가 감소함.

- 연령별 출강 학교 감소 비율은 40대가 93.9%로 가장 높고 20-30대 92.3%, 50-60대가 83.9%로 50-60대는 90%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낮음. 학력별로는 전문대졸이 97.2%로 대졸 이상 90.5%로 보다 감소 비율이 높음
- 방과후학교 강사의 출강 학교 감소 비율은 수도권 이외 지역(90.8%)이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지역(92%) 보다 높음

〈표 I-4-2〉 [방과후학교 강사] 코로나19 전후 출강 학교 수 변화

(단위: %)

방과후학교 강사	전체(명)	늘어났다	변동이 없다	줄어들었다
전체	(306)	1.0	7.5	91.5
20-30대	(65)	1.5	6.2	92.3
40대	(179)	1.1	5.0	93.9
50-60대	(62)	0.0	16.1	83.9
전문대졸	(72)	1.4	1.4	97.2
대졸 이상	(222)	0.9	8.6	90.5
모름/무응답	(12)	0.0	25.0	75.0
유배우	(241)	0.4	7.9	91.7
무배우	(65)	3.1	6.2	90.8
서울/경기/인천	(187)	1.6	6.4	92.0
수도권 이외	(119)	0.0	9.2	90.8

- 방과후학교 강사의 코로나19 이전 출강 학교수는 평균 3.2개이고 4개가 22.2%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5개 이상 20.9%, 3개 20.6%로 분포함
 - 연령별이 많을수록 출강 학교수도 많아서 50-60대는 3.3개, 20-30대는 2.8개임. 학력별로 전문대졸이 3.3개로 대졸 이상 3.1개 보다 0.2개 많음
 - 수도권 이외 지역 방과후학교 강사의 출강 학교 수가 2.7개.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지역은 3.5개로 수도권 이외 지역 방과후학교 강사의 출강 학교 수가 0.8개 적음

〈표 I-4-3〉 [방과후학교 강사] 코로나19 이전 출강 학교 수

(단위: %)

방과후학교 강사	전체(명)	1개	2개	3개	4개	5개 이상	평균(개)
전체	(306)	17.6	18.6	20.6	22.2	20.9	3.2
20-30대	(65)	21.5	21.5	21.5	23.1	12.3	2.8
40대	(179)	18.4	15.1	20.7	24.6	21.2	3.2
50-60대	(62)	11.3	25.8	19.4	14.5	29.0	3.3
전문대졸	(72)	12.5	19.4	18.1	33.3	16.7	3.3
대졸 이상	(222)	20.3	18.0	22.1	18.0	21.6	3.1
모름/무응답	(12)	0.0	25.0	8.3	33.3	33.3	3.8
유배우	(241)	16.6	18.7	21.6	22.4	20.7	3.2
무배우	(65)	21.5	18.5	16.9	21.5	21.5	3.1
서울/경기/인천	(187)	10.7	15.5	23.0	24.1	26.7	3.5
수도권 이외	(119)	28.6	23.5	16.8	19.3	11.8	2.7

- 방과후학교 강사의 코로나19 이후 평균 출강 학교수는 0.4개이고 없음이 81%로 10명 중 8명에 해당함. 다음으로 1개가 8.8%, 2개가 4.2%임.
 - 연령별로는 20-30대와 40대의 출강 학교 수 없음 비율이 84.6%, 85.5%로 50-60대 64.5%에 비해 높음. 학력별로는 없음의 비율은 전문대졸이 88.9%로 대졸 이상 79.7% 보다 높음
 - 방과후학교 강사의 코로나19 이후 출강 학교 수는 수도권 이외 지역이 0.4개로 서울/경기/인천 0.5개 보다 0.1개 적음. 출강 학교 없음의 비율도 수도권 이외 지역이 서울/경기/인천 보다 4.7%p 낮음

〈표 I-4-4〉 [방과후학교 강사] 코로나19 이후 출강 학교 수(4월 기준)

(단위: %)

방과후학교 강사	전체(명)	없음	1개	2개	3개	4개	5개 이상	평균(개)
전체	(306)	81.0	8.8	4.2	1.6	1.6	2.6	0.4
20-30대	(65)	84.6	6.2	1.5	3.1	1.5	3.1	0.4
40대	(179)	85.5	8.4	2.2	1.1	1.7	1.1	0.3
50-60대	(62)	64.5	12.9	12.9	1.6	1.6	6.5	0.9
전문대졸	(72)	88.9	5.6	2.8	1.4	1.4	0.0	0.2
대졸 이상	(222)	79.7	10.4	4.1	1.4	1.4	3.2	0.5
모름/무응답	(12)	58.3	0.0	16.7	8.3	8.3	8.3	1.3
유배우	(241)	80.5	10.4	3.3	1.7	1.2	2.9	0.4
무배우	(65)	83.1	3.1	7.7	1.5	3.1	1.5	0.4
서울/경기/인천	(187)	82.9	5.3	4.3	1.6	2.1	3.7	0.5
수도권 이외	(119)	78.2	14.3	4.2	1.7	0.8	0.8	0.4

주: 출강 학교수가 감소한 응답자

○ 방과후학교 강사의 코로나19 전후 출강 학교 수 감소는 평균 3개로 3개 이상 감소가 58.9%로 절반을 초과함

- 연령별로는 40대의 감소수가 3.1개로 20-30대 2.7개, 50대-60대 2.9개 보다 많음. 전문대졸은 평균 3.2개 감소, 대졸 이상은 2.9개 감소함
- 수도권 이외 지역의 코로나19 전후 출강 학교 수는 2.5개 감소하여 서울/경기/인천 3.3개 보다 0.8개 적게 감소함.

〈표 I-4-5〉 [방과후학교 강사] 코로나19 전후 출강 학교 수 감소 현황

(단위: %)

출강 학교 수 줄어듦	전체(명)	1개	2개	3개 이상	평균(개)
전체	(280)	22.9	18.2	58.9	3.0
20-30대	(60)	26.7	21.7	51.7	2.7
40대	(168)	20.8	16.1	63.1	3.1
50-60대	(52)	25.0	21.2	53.8	2.9
전문대졸	(70)	15.7	22.9	61.4	3.2
대졸 이상	(201)	25.4	16.9	57.7	2.9
모름/무응답	(9)	22.2	11.1	66.7	3.2
유배우	(221)	21.3	19.0	59.7	3.0
무배우	(59)	28.8	15.3	55.9	3.0
서울/경기/인천	(172)	15.1	16.3	68.6	3.3
수도권 이외	(108)	35.2	21.3	43.5	2.5

주: 출강 학교수가 감소한 응답자

- 코로나19 전후 출강 학교 수가 감소한 이유는 감소는 '계약서를 작성하고도 수업을 개강을 하지 않아서'가 87.9%로 가장 많고 '계약서를 작성하고도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 통보를 받아서'는 0.4%를 차지함
 - '계약서를 작성하고도 수업을 개강을 하지 않아서'의 비율은 40대가 88.7%로 가장 높음.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이 88.1%로 전문대졸 85.7% 보다 높음. 전문대졸은 '계약서를 작성하고도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 통보를 받아서'의 비율이 1.4%로 높음
 -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계약서를 작성하고도 수업을 개강을 하지 않아서' 비율은 89%로 수도권 이외 지역 86.1% 보다 높음.

〈표 I-4-6〉 [방과후학교 강사] 코로나19로 출강 학교 수 감소한 이유

(단위: %)

출강 학교 수 줄어듦	전체(명)	계약서를 작성하고도 수업을 개강을 하지 않아서	계약 확정 이후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해서	계약 확정 이후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아서	새로운 학교수업 강사모집을 하지 않아서	기존 근무학교에서 금년도 강사모집을 하지 않아서	계약서를 작성하고도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 통보를 받아서	기타
전체	(280)	87.9	4.6	1.8	1.4	0.7	0.4	3.2
20-30대	(60)	86.7	5.0	0.0	3.3	1.7	0.0	3.3
40대	(168)	88.7	5.4	2.4	0.0	0.0	0.6	3.0
50-60대	(52)	86.5	1.9	1.9	3.8	1.9	0.0	3.8
전문대졸	(70)	85.7	7.1	1.4	1.4	0.0	1.4	2.9
대졸 이상	(201)	88.1	4.0	2.0	1.5	1.0	0.0	3.5
모름/무응답	(9)	100.0	0.0	0.0	0.0	0.0	0.0	0.0
유배우	(221)	86.4	5.0	2.3	1.8	0.9	0.5	3.2
무배우	(59)	93.2	3.4	0.0	0.0	0.0	0.0	3.4
서울/경기/인천	(172)	89.0	4.1	2.9	0.6	0.6	0.6	2.3
수도권 이외	(108)	86.1	5.6	0.0	2.8	0.9	0.0	4.6

주: 출강 학교수가 감소한 응답자

- 방과후학교 강사의 코로나19 전후 강의시간은 줄어들었다가 94.4%, 변동이 없다가 5.2%, 늘었다가 0.3%임.
 - 연령별로는 40대의 감소 비율이 96.6%로 가장 높고 20-30대도 95.4%로 높음. 50-60대는 87.1%가 강의시간이 감소한 것으로 응답함. 학력별로는 전문대졸(97.2%)이 대졸 이상(94.1%) 보다 감소했다는 비율이 높음
 - 수도권 이외 지역의 코로나19 전후 강의시간 감소 비율이 93.3%로 서울/경기/인천 95.2% 보다 낮음

〈표 I-4-7〉 [방과후학교 강사] 코로나19 전후 강의 시간 변화

(단위: %)

방과후학교 강사	전체(명)	늘어났다	변동이 없다	줄어들었다
전체	(306)	0.3	5.2	94.4
20-30대	(65)	0.0	4.6	95.4
40대	(179)	0.6	2.8	96.6
50-60대	(62)	0.0	12.9	87.1
전문대졸	(72)	0.0	2.8	97.2
대졸 이상	(222)	0.5	5.4	94.1
모름/무응답	(12)	0.0	16.7	83.3
유배우	(241)	0.0	5.4	94.6
무배우	(65)	1.5	4.6	93.8
서울/경기/인천	(187)	0.0	4.8	95.2
수도권 이외	(119)	0.8	5.9	93.3

○ 방과후학교 강사의 코로나19 이전 주 평균 강의시간은 13.3시간으로 15시간 미만이 58.2%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15-36시간 미만이 39.9%를 차지함.

- 연령별로는 20-30대 12.6시간, 40대 13.5시간, 50-60대 13.6시간으로 40대 이상이 13시간을 상회함. 학력별로는 전문대졸이 12.8시간, 대졸 이상이 13.5시간으로 대졸 이상이 전문대졸 보다 0.7시간 김
- 지역별수 방과후학교 강사의 평균 강의시간은 13.3시간으로 동일함.

〈표 I-4-8〉 [방과후학교 강사] 코로나19 이전 1주 평균 강의 시간

(단위: %)

방과후학교 강사	전체(명)	15시간 미만	15-36시간 미만	36시간-40시간 미만	40시간-52시간 이하	52시간 초과	평균(시간)
전체	(306)	58.2	39.9	0.3	0.7	1.0	13.3
20-30대	(65)	58.5	40.0	0.0	1.5	0.0	12.6
40대	(179)	56.4	42.5	0.6	0.0	0.6	13.5
50-60대	(62)	62.9	32.3	0.0	1.6	3.2	13.6
전문대졸	(72)	55.6	43.1	0.0	1.4	0.0	12.8
대졸 이상	(222)	59.0	39.2	0.5	0.5	0.9	13.5
모름/무응답	(12)	58.3	33.3	0.0	0.0	8.3	14.2
유배우	(241)	58.1	39.8	0.4	0.4	1.2	13.4
무배우	(65)	58.5	40.0	0.0	1.5	0.0	13.0
서울/경기/인천	(187)	56.7	42.2	0.0	0.0	1.1	13.3
수도권 이외	(119)	60.5	36.1	0.8	1.7	0.8	13.3

- 방과후학교 강사의 코로나19 이후 주 평균 강의시간은 0.9시간으로 0시간이 85.9%를 차지함
 - 연령별로는 50-60대가 1.8시간으로 40대, 20-30대 0.6시간 보다 3배 많음. 대졸 이상이 1.8시간으로 전문대졸 0.4시간 보다 1.4시간 김
 - 수도권 이외 지역 방과후학교 강사의 코로나19 전후 주 평균 근로시간은 1.3시간 감소하여 서울/경기/인천 0.6시간 보다 0.7시간 김

〈표 I-4-9〉 [방과후학교 강사] 코로나19 이후 1주 평균 강의 시간(4월 기준)

(단위: %)

방과후학교 강사	전체(명)	0시간	15시간 미만	15-36시간 미만	40시간-52시간 이하	평균(시간)
전체	(289)	85.9	13.4	0.3	0.3	0.9
20-30대	(62)	89.2	10.8	0.0	0.0	0.6
40대	(173)	89.4	10.1	0.6	0.0	0.6
50-60대	(54)	72.6	25.8	0.0	1.6	1.8
전문대졸	(70)	88.9	11.1	0.0	0.0	0.4
대졸 이상	(209)	85.1	14.0	0.5	0.5	1.0
모름/무응답	(10)	83.3	16.7	0.0	0.0	0.8
유배우	(228)	85.1	14.1	0.4	0.4	0.9
무배우	(61)	89.2	10.8	0.0	0.0	0.6
서울/경기/인천	(178)	88.8	11.2	0.0	0.0	0.6
수도권 이외	(111)	81.5	16.8	0.8	0.8	1.3

주: 강의시간이 감소한 응답자

- 방과후학교 강사의 코로나19 전후 강의시간은 평균 13.2시간 감소함. 15시간 미만 감소 비율이 58.5%로 가장 많음
 - 연령별로는 20-30대의 감소 시간이 12.7시간으로 40대 13.3시간, 50-60대 13.5시간에 비해 적음. 학력별로는 전문대졸이 12.8시간으로 감소하여 대졸 이상 13.2시간 보다 0.4시간 적게 감소함
 - 수도권 이외 지역의 코로나19 전후 강의시간은 평균 13시간 감소하여 서울/경기/인천 13.4시간 보다 0.4시간 적게 감소함

〈표 I-4-10〉 [방과후학교 강사] 코로나19 전후 강의 시간 감소 현황

(단위: %)

	전체(명)	15시간 미만	15-36시간 미만	36시간-40시간 미만	40시간-52시간 이하	52시간 초과	평균(시간)
전체	(289)	58.5	39.8	0.3	0.3	1.0	13.2
20-30대	(62)	58.1	40.3	0.0	1.6	0.0	12.7
40대	(173)	57.8	41.0	0.6	0.0	0.6	13.3
50-60대	(54)	61.1	35.2	0.0	0.0	3.7	13.5
전문대졸	(70)	55.7	42.9	0.0	1.4	0.0	12.8
대졸 이상	(209)	59.8	38.8	0.5	0.0	1.0	13.2
모름/무응답	(10)	50.0	40.0	0.0	0.0	10.0	16.1
유배우	(228)	59.2	39.0	0.4	0.0	1.3	13.2
무배우	(61)	55.7	42.6	0.0	1.6	0.0	13.2
서울/경기/인천	(178)	56.7	42.1	0.0	0.0	1.1	13.4
수도권 이외	(111)	61.3	36.0	0.9	0.9	0.9	13.0

○ 코로나19 전후 출강 학교 수가 감소한 이유는 감소는 ‘계약서를 작성하고도 수업을 개강을 하지 않아서’가 90.3%로 가장 많고 ‘계약서를 작성하고도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 통보를 받아서’는 0.3%를 차지함

- ‘계약서를 작성하고도 수업을 개강을 하지 않아서’의 비율은 50-60대가 92.6%로 가장 높음.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이 90.4%로 전문대졸 88.6% 보다 높음. 전문대졸은 ‘계약서를 작성하고도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 통보를 받아서’의 비율이 1.4%로 높음
-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계약서를 작성하고도 수업을 개강을 하지 않아서’ 비율은 91.6%로 수도권 이외 지역 88.3% 보다 높음.

〈표 I-4-11〉 [방과후학교 강사] 코로나19로 주간 강의 시간 감소한 이유

(단위: %)

강의 시간 줄어듦	전체(명)	계약서를 작성하고도 수업을 개강을 하지 않아서	계약 확정 이후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해서	기존 근무학교에서 금년도 강사모집을 하지 않아서	계약 확정 이후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아서	계약서를 작성하고도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 통보를 받아서	기타
전체	(289)	90.3	3.8	1.0	1.0	0.3	3.5
20-30대	(62)	88.7	3.2	3.2	0.0	0.0	4.8
40대	(173)	90.2	4.6	0.0	1.7	0.6	2.9
50-60대	(54)	92.6	1.9	1.9	0.0	0.0	3.7
전문대졸	(70)	88.6	4.3	1.4	1.4	1.4	2.9
대졸 이상	(209)	90.4	3.8	1.0	1.0	0.0	3.8
모름/무응답	(10)	100.0	0.0	0.0	0.0	0.0	0.0

강의 시간 줄어듦	전체(명)	계약서를 작성하고도 수업을 개강을 하지 않아서	계약 확정 이후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해서	기존 근무학교에서 금년도 강사모집을 하지 않아서	계약 확정 이후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아서	계약서를 작성하고도 일방적으로 계약 파기 통보를 받아서	기타
유배우	(228)	89.5	3.9	1.3	1.3	0.4	3.5
무배우	(61)	93.4	3.3	0.0	0.0	0.0	3.3
서울/경기/인천	(178)	91.6	3.4	0.6	1.1	0.6	2.8
수도권 이외	(111)	88.3	4.5	1.8	0.9	0.0	4.5

- 방과후학교 강사의 코로나19 전후 월 평균 수입은 99.7%가 감소하였고 변동이 없음은 0.3%, 늘어났음은 없음
 - 연령별로는 40대와 50-60대의 감소 비율이 100%이고 20-30대는 98.5%가 감소함, 학력별로는 전문대졸이 98.6% 감소하여 100% 감소한 대졸 이상과 다름
 - 수도권 이외 지역의 코로나19 전후 월평균 수입 감소 비율이 100%로 서울/경기/인천 99.5%보다 0.5%p 높음

〈표 I-4-12〉 [방과후학교 강사] 코로나19 전후 월 평균 수입 변화

(단위: %)

방과후학교 강사	전체(명)	변동이 없다	줄어들었다
전체	(306)	0.3	99.7
20-30대	(65)	1.5	98.5
40대	(179)	0.0	100.0
50-60대	(62)	0.0	100.0
전문대졸	(72)	1.4	98.6
대졸 이상	(222)	0.0	100.0
모름/무응답	(12)	0.0	100.0
유배우	(241)	0.0	100.0
무배우	(65)	1.5	98.5
서울/경기/인천	(187)	0.5	99.5
수도권 이외	(119)	0.0	100.0

- 방과후학교 강사의 코로나19 이전 월 평균 수입은 223.9만원임. 구간별로 200만원이상이 64.7%로 10명 중 6명에 해당함. 100만원 미만은 9.5%에 불과함
 - 연령별로는 월 평균 수입은 223-225만원으로 2만원 이내의 근소한 차이가 남. 학력별로는 전문대졸이 243.3만원으로 대졸 이상 216.1만원 보다 많음
 - 수도권 이외 지역의 코로나19 이전 월평균 수입은 198.2만원으로 서울/경기/인천 240.3만원에

비해 42.1만원 적음

〈표 I-4-13〉 [방과후학교 강사] 코로나19 이전 월 평균 수입

(단위: %)

방과후학교 강사	전체(명)	50만원 미만	50-100만원 미만	100-150만원 미만	150-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평균(만원)
전체	(306)	2.0	7.5	10.5	15.4	64.7	223.9
20-30대	(65)	3.1	7.7	9.2	16.9	63.1	225.1
40대	(179)	0.6	6.1	12.3	14.0	67.0	223.7
50-60대	(62)	4.8	11.3	6.5	17.7	59.7	223.2
전문대졸	(72)	2.8	11.1	4.2	11.1	70.8	243.3
대졸 이상	(222)	1.8	5.9	13.1	17.1	62.2	216.1
모름/무응답	(12)	0.0	16.7	0.0	8.3	75.0	251.7
유배우	(241)	1.7	7.9	9.5	14.5	66.4	224.9
무배우	(65)	3.1	6.2	13.8	18.5	58.5	220.4
서울/경기/인천	(187)	0.5	8.0	9.1	12.8	69.5	240.3
수도권 이외	(119)	4.2	6.7	12.6	19.3	57.1	198.2

○ 방과후학교 강사의 코로나19 이후 월 평균 수입은 2.7만원임. 구간별로 0원이 95.8%를 차지함.

- 연령별로는 50-60대가 5.5만원, 40대 1.3만원, 20-30대 3.8만원임. 수입 0원 비율은 40대가 98.3%로 가장 높음. 전문대졸은 5.8만원으로 대졸 이상 1.8만원 보다 많음. 수입 0원이 차지하는 비율도 대졸 이상이 95.9%로 전문대졸 94.4% 보다 높음
- 수도권 이외 지역의 코로나19 이전 월평균 수입은 2.3만원, 서울/경기/인천은 2.9만원임. 수입 0원의 비율은 서울/경기/인천이 96.3%로 수도권 이외 지역 95% 보다 높음

〈표 I-4-14〉 [방과후학교 강사] 코로나19이후 월 평균 수입

(단위: %)

방과후학교 강사	전체(명)	0원	50만원 미만	50-100만원 미만	100-150만원 미만	150-200만원 미만	평균(만원)
전체	(306)	95.8	1.6	2.0	0.3	0.3	2.7
20-30대	(65)	95.4	3.1	0.0	0.0	1.5	3.8
40대	(179)	98.3	0.0	1.1	0.6	0.0	1.3
50-60대	(62)	88.7	4.8	6.5	0.0	0.0	5.5
전문대졸	(72)	94.4	0.0	2.8	1.4	1.4	5.8
대졸 이상	(222)	95.9	2.3	1.8	0.0	0.0	1.8
모름/무응답	(12)	100.0	0.0	0.0	0.0	0.0	0.0
유배우	(241)	95.0	2.1	2.5	0.4	0.0	2.7
무배우	(65)	98.5	0.0	0.0	0.0	1.5	2.8

방과후학교 강사	전체(명)	0원	50만원 미만	50-100만원 미만	100-150만원 미만	150-200만원 미만	평균(만원)
서울/경기/인천	(187)	96.3	0.5	2.1	0.5	0.5	2.9
수도권 이외	(119)	95.0	3.4	1.7	0.0	0.0	2.3

- 방과후학교 강사의 코로나19 전후 월 평균 수입은 평균 221.9만원 감소함. 구간별로 200만원 이상 감소가 64.3%로 10명 중 6명으로 가장 많음
 - 연령별로 20-30대 224.7만원, 40대가 222.4만원, 50-60대 217.7만원 감소함. 전문대졸은 240.8만원, 대졸 이상은 214.3만원으로 전문대졸 감소금액이 26.5만원 많음
 - 수도권 이외 지역의 코로나19 월평균 수입 감소는 195.8만원, 서울/경기/인천 238.6만원으로 서울/경기/인천이 42.8만원 더 많이 감소함

〈표 I-4-15〉 [방과후학교 강사] 코로나19 전후 월 평균 수입 감소 현황

(단위: %)

수입 줄어듦	전체(명)	50만원 미만	50-100만원 미만	100-150만원 미만	150-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평균(만원)
전체	(305)	2.0	7.5	11.5	14.8	64.3	221.9
20-30대	(64)	3.1	7.8	10.9	14.1	64.1	224.7
40대	(179)	0.6	6.1	12.3	14.5	66.5	222.4
50-60대	(62)	4.8	11.3	9.7	16.1	58.1	217.7
전문대졸	(71)	2.8	11.3	4.2	9.9	71.8	240.8
대졸 이상	(222)	1.8	5.9	14.4	16.7	61.3	214.3
모름/무응답	(12)	0.0	16.7	0.0	8.3	75.0	251.7
유배우	(241)	1.7	7.9	10.8	14.1	65.6	222.2
무배우	(64)	3.1	6.3	14.1	17.2	59.4	221.0
서울/경기/인천	(186)	0.5	8.1	10.2	11.8	69.4	238.6
수도권 이외	(119)	4.2	6.7	13.4	19.3	56.3	195.8

주: 코로나19 이후 월평균 수입 감소 응답자 대상

- 방과후학교 강사의 코로나19 이전 채용경로는 ‘각 교육청 홈페이지 강사모집 공고’가 70.6%로 가장 많음. 다음으로 ‘각 학교 홈페이지 강사모집 공고’ 18.3%, ‘위탁업체를 통해서’ 7.5%, ‘학교로부터 연락’이 2.9%를 차지함
 - 연령별로 20-30대는 ‘각 교육청 홈페이지 강사모집 공고’을 통해 채용된 비율이 81.5%로 가장 높고 40대는 ‘각 학교 홈페이지 강사모집 공고’가 21.2%, 50-60대는 ‘학교로부터 연락’이 차지하는 비율이 8.1%로 상대적으로 높음. ‘각 교육청 홈페이지 강사모집 공고’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문대졸 69.4%, 대졸 이상 70.7%로 큰 차이가 없으나 ‘학교로부터 연락’이

- 차지하는 비율은 대졸 이상 3.6%, 전문대졸 1.4%로 2배 이상 차이가 남
-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각 교육청 홈페이지 강사모집 공고'가 차지하는 비율이 56.3%로 서울/경기/인천 79.7% 보다 23.4%p 낮은 반면 '각 학교 홈페이지 강사모집 공고' 18.3%, '위탁 업체를 통해서'이 차지하는 비율은 10%p 이상 높음

〈표 I-4-16〉 [방과후학교 강사] 코로나19 이전 방과후학교 강사 채용경로

(단위: %)

방과후학교 강사	전체(명)	각 교육청 홈페이지 강사모집 공고	각 학교 홈페이지 강사모집 공고	위탁업체를 통해서	학교로부터의 연락	기타
전체	(306)	70.6	18.3	7.5	2.9	0.7
20-30대	(65)	81.5	12.3	3.1	1.5	1.5
40대	(179)	68.7	21.2	8.4	1.7	0.0
50-60대	(62)	64.5	16.1	9.7	8.1	1.6
전문대졸	(72)	69.4	16.7	11.1	1.4	1.4
대졸 이상	(222)	70.7	18.9	6.3	3.6	0.5
모름/무응답	(12)	75.0	16.7	8.3	0.0	0.0
유배우	(241)	68.0	20.3	7.9	2.9	0.8
무배우	(65)	80.0	10.8	6.2	3.1	0.0
서울/경기/인천	(187)	79.7	11.8	3.7	4.8	0.0
수도권 이외	(119)	56.3	28.6	13.4	0.0	1.7

- 방과후학교 강사의 코로나19 이후 채용경로에 변화가 있었음 비율은 3.9%임.
- 채용경로에 변화가 있었음 비율은 20-30대가 6.2%로 가장 높음. 학력간 차이는 크지 않으며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지역이 4.3%로 수도권 이외 지역 3.4% 보다 0.9%p 높음

〈표 I-4-17〉 [방과후학교 강사] 코로나19 전후 방과후학교 강사 채용경로 변화

(단위: %)

방과후학교 강사	전체(명)	변동이 있었다	변동이 없었다
전체	(306)	3.9	96.1
20-30대	(65)	6.2	93.8
40대	(179)	2.8	97.2
50-60대	(62)	4.8	95.2
전문대졸	(72)	4.2	95.8
대졸 이상	(222)	4.1	95.9
모름/무응답	(12)	0.0	100.0
유배우	(241)	3.7	96.3
무배우	(65)	4.6	95.4

방과후학교 강사	전체(명)	변동이 있었다	변동이 없었다
서울/경기/인천	(187)	4.3	95.7
수도권 이외	(119)	3.4	96.6

- 방과후학교 강사의 코로나19 이후 채용경로는 '각 교육청 홈페이지 강사모집 공고'가 68.6%로 가장 많음. 다음으로 '각 학교 홈페이지 강사모집 공고' 18.3%, '위탁업체를 통해서' 7.8%, '학교로부터 연락'이 4.2%를 차지함. 코로나19 이전 보다 '학교로부터 연락'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승함

〈표 I-4-18〉 [방과후학교 강사] 코로나19이후 방과후학교 강사 채용경로

(단위: %)

방과후학교 강사	전체(명)	각 교육청 홈페이지 강사모집 공고	각 학교 홈페이지 강사모집 공고	위탁업체를 통해서	학교로부터의 연락	기타
전체	(306)	68.6	18.6	7.8	4.2	0.7
20-30대	(65)	78.5	12.3	4.6	3.1	1.5
40대	(179)	66.5	21.8	8.4	3.4	0.0
50-60대	(62)	64.5	16.1	9.7	8.1	1.6
전문대졸	(72)	66.7	15.3	11.1	5.6	1.4
대졸 이상	(222)	68.9	19.8	6.8	4.1	0.5
모름/무응답	(12)	75.0	16.7	8.3	0.0	0.0
유배우	(241)	66.4	20.3	8.3	4.6	0.4
무배우	(65)	76.9	12.3	6.2	3.1	1.5
서울/경기/인천	(187)	77.0	13.9	3.7	4.8	0.5
수도권 이외	(119)	55.5	26.1	14.3	3.4	0.8

- 방과후학교 강사 중 '도내 또는 시군구내 또는 학교내 수업시간 합산 15시간 이상 계약 금지'와 같은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요구(공고문, 계약서, 서약서와 같은 문서류)를 보았거나 작성하거나 작성을 요구' 받은 경험은 33.7%로 10명 중 3명은 강제적 서약 작성이나 요구를 받은 경험이 있음
 - 연령별로는 50-60대가 37.1%로 40대 이하 보다 높고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이 36%로 전문대졸 29.2% 보다 강제서약 작성 경험 비율이 높음.
 - 지역별로는 수도권 이외 지역이 35.3%로 서울/경기/인천 32.6% 보다 높음

〈표 I-4-19〉 [방과후학교 강사] 근로시간 제한 강제적 서약 경험

(단위: %)

방과후학교 강사	전체(명)	있다	없다
전체	(306)	33.7	66.3
20-30대	(65)	32.3	67.7
40대	(179)	33.0	67.0
50-60대	(62)	37.1	62.9
전문대졸	(72)	29.2	70.8
대졸 이상	(222)	36.0	64.0
모름/무응답	(12)	16.7	83.3
유배우	(241)	33.2	66.8
무배우	(65)	35.4	64.6
서울/경기/인천	(187)	32.6	67.4
수도권 이외	(119)	35.3	64.7

- 방과후학교 강사 중 ‘도내 또는 시군구내 또는 학교내 수업시간 합산 15시간 이상 계약 금지’와 같은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요구(공고문, 계약서, 서약서와 같은 문서류)를 보았거나 작성하거나 작성을 요구’ 받은 경우 대응은 ‘학교측 문건에 동의하지 않지만 계약을 위해 문건 작성후 지원 절차 진행’이 62.1%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지원 또는 계약을 포기’가 21.4%, ‘학교측에 문제제기를 하고 계약 진행’은 4.9%, ‘학교측에 문제제기를 하여 계약 진행이 거부됨’은 2.9%임.
- ‘학교측 문건에 동의하지 않지만 계약을 위해 문건 작성후 지원 절차 진행’이 차지하는 비율은 40대가 71.2%로 가장 높음.
 - 지원 또는 계약을 포기’를 하는 비율은 50-60대가 26.1%로 가장 높음. ‘학교측에 문제제기를 하고 계약 진행’은 50-60대(8.7%)와 대졸 이상(6.3%)이 높은 편임.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이 6.6%로 높은 편임

〈표 I-4-20〉 [방과후학교 강사] 근로시간 제한 강제적 서약 대응 방식

(단위: %)

근로시간 제한 강제적 서약 경험함	전체(명)	학교측 문건에 동의하지 않지만 계약을 위해 문건 작성후 지원 절차 진행	지원 또는 계약을 포기	학교측에 문제제기를 하고 계약 진행	학교측에 문제제기를 하여 계약 진행이 거부됨	기타
전체	(103)	62.1	21.4	4.9	2.9	8.7
20-30대	(21)	52.4	33.3	0.0	4.8	9.5
40대	(59)	71.2	15.3	5.1	0.0	8.5
50-60대	(23)	47.8	26.1	8.7	8.7	8.7

근로시간 제한 강제적 서약 경험함	전체(명)	학교측 문건에 동의하지 않지만 계약을 위해 문건 작성후 지원 절차 진행	지원 또는 계약을 포기	학교측에 문제제기를 하고 계약 진행	학교측에 문제제기를 하여 계약 진행이 거부됨	기타
전문대졸	(21)	61.9	23.8	0.0	0.0	14.3
대졸 이상	(80)	62.5	20.0	6.3	3.8	7.5
모름/무응답	(2)	50.0	50.0	0.0	0.0	0.0
유배우	(80)	58.8	22.5	5.0	3.8	10.0
무배우	(23)	73.9	17.4	4.3	0.0	4.3
서울/경기/인천	(61)	59.0	23.0	6.6	0.0	11.5
수도권 이외	(42)	66.7	19.0	2.4	7.1	4.8

주: 강제 서약 작성이나 요구 받은 경험 응답자

나.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 방과후학교 강사의 코로나19로 인한 수입감소 어려움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가 98.4%로 대부분을 차지하여 그렇다 1.6%로 100%임
 - 연령별로 40대가 수입감소가 매우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99.4%로 가장 높음. 전문대졸은 매우 그렇다가 차지하는 비율이 97.2%로 대졸 이상 98.6% 보다 미비하게 낮음
 - 수도권 이외 지역의 방과후학교 강사는 96.6%가 수입감소로 매우 어렵다고 응답하여 서울/경기/인천 99.5%에 비해 수입감소로 인한 어려움에 대한 비율이 낮음

〈표 I-4-21〉 [방과후학교 강사] 코로나19와 방과후학교 강사 어려움_수입감소

(단위: %)

방과후학교 강사	전체(명)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③+④ 그렇다
전체	(306)	1.6	98.4	100.0
20-30대	(65)	3.1	96.9	100.0
40대	(179)	0.6	99.4	100.0
50-60대	(62)	3.2	96.8	100.0
전문대졸	(72)	2.8	97.2	100.0
대졸 이상	(222)	1.4	98.6	100.0
모름/무응답	(12)	0.0	100.0	100.0
유배우	(241)	1.7	98.3	100.0
무배우	(65)	1.5	98.5	100.0
서울/경기/인천	(187)	0.5	99.5	100.0
수도권 이외	(119)	3.4	96.6	100.0

- 방과후학교 강사의 코로나19 감염 위험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가 31%, 그렇다 35.3%로 그렇다가 차지하는 비율이 66.3%임
 - 연령별로 40대가 코로나19 감염 위험으로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73.7%로 가장 높고 20-30대 63.1%, 50-60대는 48.4%를 차지함. 학력별로는 전문대졸과 대졸 이상이 코로나 19 감염위험에 대한 어려움이 65.3%, 66.2%로 큰 차이가 없음
 - 수도권 이외 지역의 방과후학교 강사 55.8%가 코로나19 감염위험으로 어렵다고 응답한 반면 서울/경기/인천은 71.1%가 응답함

〈표 I-4-22〉 [방과후학교 강사] 코로나19와 방과후학교 강사 어려움_코로나19 감염위험

(단위: %)

방과후학교 강사	전체(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①+②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③+④ 그렇다
전체	(306)	5.6	28.1	33.7	35.3	31.0	66.3
20-30대	(65)	4.6	32.3	36.9	35.4	27.7	63.1
40대	(179)	3.4	22.9	26.3	37.4	36.3	73.7
50-60대	(62)	12.9	38.7	51.6	29.0	19.4	48.4
전문대졸	(72)	6.9	27.8	34.7	33.3	31.9	65.3
대졸 이상	(222)	5.4	28.4	33.8	36.5	29.7	66.2
모름/무응답	(12)	0.0	25.0	25.0	25.0	50.0	75.0
유배우	(241)	5.8	27.0	32.8	36.1	31.1	67.2
무배우	(65)	4.6	32.3	36.9	32.3	30.8	63.1
서울/경기/인천	(187)	5.3	23.5	28.9	36.9	34.2	71.1
수도권 이외	(119)	5.9	35.3	41.2	32.8	26.1	58.8

- 방과후학교 강사의 코로나19로 인한 일방적 계약 파기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가 16.7%, 그렇다 12.1%로 그렇다가 차지하는 비율이 28.8%로 그렇지 않다가 차지하는 비율이 71.2%로 2.5배 높음
 - 연령별로 20-30대가 코로나19로 인한 일방적 계약 파기로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33.3%로 가장 높고 40대와 50-60대는 29.6%, 21%로 30%를 하회함. 학력별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일방적 방문 취소로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은 29%대로 차이가 없음.
 - 수도권 이외 지역의 방과후학교 강사 28.6%가 코로나19로 일방적 계약 파기로 어렵다고 응답하여 서울/경기/인천 28.9%와 큰 차이가 없음

〈표 I-4-23〉 [방과후학교 강사] 코로나19와 방과후학교 강사 어려움_일방적 계약 파기

(단위: %)

방과후학교 강사	전체(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①+②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③+④ 그렇다
전체	(306)	37.9	33.3	71.2	12.1	16.7	28.8
20-30대	(65)	24.6	41.5	66.2	13.8	20.0	33.8
40대	(179)	38.0	32.4	70.4	12.3	17.3	29.6
50-60대	(62)	51.6	27.4	79.0	9.7	11.3	21.0
전문대졸	(72)	38.9	31.9	70.8	13.9	15.3	29.2
대졸 이상	(222)	36.9	33.8	70.7	11.7	17.6	29.3
모름/무응답	(12)	50.0	33.3	83.3	8.3	8.3	16.7
유배우	(241)	40.7	30.7	71.4	12.0	16.6	28.6
무배우	(65)	27.7	43.1	70.8	12.3	16.9	29.2
서울/경기/인천	(187)	36.4	34.8	71.1	12.8	16.0	28.9
수도권 이외	(119)	40.3	31.1	71.4	10.9	17.6	28.6

- 방과후학교 강사의 코로나19로 인한 학교 교직원의 무시나 갑질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가 13.7%, 그렇다 23.5%로 그렇다가 차지하는 비율이 37.3%임
- 연령별로 20-30대가 학교 교직원의 무시나 갑질로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46.2%로 40대 38.5%, 50-60대 24.2% 보다 8~20%p 높음. 대졸 이상이 39.6%로 전문대졸 31.9% 보다 갑질로 어렵다는 비율이 높음
- 수도권 이외 지역의 방과후학교 강사 34.5%가 코로나19로 학교 교직원의 무시나 갑질이 어렵다고 응답하여 서울/경기/인천 39%에 비해 낮음

〈표 I-4-24〉 [방과후학교 강사] 코로나19와 방과후학교 강사 어려움_학교 교직원의 무시나 갑질

(단위: %)

방과후학교 강사	전체(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①+②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③+④ 그렇다
전체	(306)	20.3	42.5	62.7	23.5	13.7	37.3
20-30대	(65)	13.8	40.0	53.8	27.7	18.5	46.2
40대	(179)	17.3	44.1	61.5	24.6	14.0	38.5
50-60대	(62)	35.5	40.3	75.8	16.1	8.1	24.2
전문대졸	(72)	25.0	43.1	68.1	18.1	13.9	31.9
대졸 이상	(222)	18.0	42.3	60.4	25.2	14.4	39.6
모름/무응답	(12)	33.3	41.7	75.0	25.0	0.0	25.0
유배우	(241)	21.2	40.2	61.4	24.5	14.1	38.6
무배우	(65)	16.9	50.8	67.7	20.0	12.3	32.3
서울/경기/인천	(187)	20.3	40.6	61.0	24.1	15.0	39.0
수도권 이외	(119)	20.2	45.4	65.5	22.7	11.8	34.5

- 방과후학교 강사의 코로나19로 인한 수업 개시 불안정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서는 매우 그렇다가 85.9%, 그렇다 10.1%로 그렇다가 차지하는 비율이 96.1%임
 - 연령별로 20-30대가 수업 개시 불안정으로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100%로 가장 높고 40대는 97.2%, 50-60대는 88.7%가 어렵다고 응답함. 대졸 이상이 96.4%로 전문대졸 95.8%로 다소 높음
 - 코로나19로 수업 개시 불안정이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은 수도권 이외 지역 96.6%, 서울/경기/인천 95.7%임

〈표 I-4-25〉 [방과후학교 강사] 코로나19와 방과후학교 강사 어려움_수업 개시불안정

(단위: %)

방과후학교 강사	전체(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①+② 그렇지 않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③+④ 그렇다
전체	(306)	0.7	3.3	3.9	10.1	85.9	96.1
20-30대	(65)	0.0	0.0	0.0	4.6	95.4	100.0
40대	(179)	0.6	2.2	2.8	12.3	84.9	97.2
50-60대	(62)	1.6	9.7	11.3	9.7	79.0	88.7
전문대졸	(72)	0.0	4.2	4.2	11.1	84.7	95.8
대졸 이상	(222)	0.9	2.7	3.6	9.9	86.5	96.4
모름/무응답	(12)	0.0	8.3	8.3	8.3	83.3	91.7
유배우	(241)	0.8	3.7	4.6	11.6	83.8	95.4
무배우	(65)	0.0	1.5	1.5	4.6	93.8	98.5
서울/경기/인천	(187)	0.5	3.7	4.3	8.6	87.2	95.7
수도권 이외	(119)	0.8	2.5	3.4	12.6	84.0	96.6

- 방과후학교 강사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하는 일은 '학교 긴급돌봄 인력, 온라인 수업 도우미, 방역 도우미 등'가 61.4%로 가장 많고 '방과후학교와 관련 없는 다른 일(알바, 부업 등)'이 23.9%, '별도로 하는 일 없음'이 20.6% 순서로 차지함
 - '별도로 하는 일 없음'이 차지하는 비율은 50-60대(19.4%), 전문대졸(15.3%), 무배우(13.8%), 수도권 이외 지역(11.8%)이 낮은 편임

〈표 I-4-26〉 [방과후학교 강사]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하는 일(중복응답)

(단위: %)

방과후학교 강사	전체(명)	학교 긴급돌봄 인력, 온라인수업 도우미, 방역 도우미 등	방과후학교와 관련 없는 다른 일(알바, 부업 등)	방과후학교 교육 관련 업종의 다른 일(학원 교습 등)	이미 하고 있던 방과후학교 외의 다른 일	별도로 하는 일 없음	기타
전체	(306)	61.4	23.9	7.2	6.2	20.6	0.7
20-30대	(65)	60.0	27.7	10.8	7.7	20.0	3.1
40대	(179)	60.9	24.0	7.8	6.1	21.2	0.0
50-60대	(62)	64.5	19.4	1.6	4.8	19.4	0.0
전문대졸	(72)	63.9	29.2	9.7	4.2	15.3	0.0
대졸 이상	(222)	60.8	23.0	6.3	7.2	21.6	0.9
모름/무응답	(12)	58.3	8.3	8.3	0.0	33.3	0.0
유배우	(241)	61.4	22.8	7.5	4.1	22.4	0.0
무배우	(65)	61.5	27.7	6.2	13.8	13.8	3.1
서울/경기/인천	(187)	56.7	23.0	5.3	7.0	26.2	0.0
수도권 이외	(119)	68.9	25.2	10.1	5.0	11.8	1.7

다. 코로나19로 인한 자발적 일 중단 경험

- 방과후학교 강사의 코로나19로 방과후학교 강사 일을 스스로 중단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서 26.1%가 그렇다고 응답함.
 - 연령별로 50-60대가 38.7%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20-30대 26.4%, 40대 22.3%를 차지함. 학력별로는 전문대졸(26.4%)이 대졸 이상(24.8%) 보다 높고 유배우(27.8%)가 무배우(20%) 보다 높음
 - 수도권 이외 지역 방과후학교 강사 중 26.1%가 스스로 일을 중단한 경험이 있고 서울/경기/인천 지역 방과후학교 강사 26.2%와 거의 동일함

〈표 I-4-27〉 [방과후학교 강사] 코로나19와 방과후학교 강사 중단 경험

(단위: %)

방과후학교 강사	전체(명)	예	아니오
전체	(306)	26.1	73.9
20-30대	(65)	24.6	75.4
40대	(179)	22.3	77.7
50-60대	(62)	38.7	61.3
전문대졸	(72)	26.4	73.6
대졸 이상	(222)	24.8	75.2
모름/무응답	(12)	50.0	50.0
유배우	(241)	27.8	72.2
무배우	(65)	20.0	80.0
서울/경기/인천	(187)	26.2	73.8
수도권 이외	(119)	26.1	73.9

○ 코로나19로 방과후학교 강사 85%는 위험수당이나 방역 지원이 있었다면 일을 중단하지 않았다고 응답함

- 위험수당이나 방역 지원이 있었다면 일을 중단하지 않았음 비율은 연령별로 50-60대가 100%로 가장 높고 대졸 이상 보다는 전문대졸이, 유배우 보다는 무배우의 비율이 높음
- 수도권 이외 지역은 85.7%로 서울/경기/인천 83.3% 보다 높음

〈표 I-4-28〉 [방과후학교 강사] 코로나19와 방과후학교 강사 위험수당 및 방역지원시 일자리 유지 여부

(단위: %)

방과후학교 강사 중단경험 있음	전체(명)	예	아니오
전체	(80)	85.0	15.0
20-30대	(16)	81.3	18.8
40대	(40)	77.5	22.5
50-60대	(24)	100.0	0.0
전문대졸	(19)	78.9	21.1
대졸 이상	(55)	85.5	14.5
모름/무응답	(6)	100.0	0.0
유배우	(67)	83.6	16.4
무배우	(13)	92.3	7.7
서울/경기/인천	(49)	85.7	14.3
수도권 이외	(31)	83.9	16.1

주: 자발적으로 일을 중단한 경험 있는 응답자 대상

라. 사회보험 가입 현황

- 방과후학교 강사 건강보험 가입은 지역가입자가 52%로 가장 높음. 다음으로 피부양자 직장가입 비율이 34.3%, 본인 직장가입자 12.1%, 의료수급권자 0.7%, 건강보험 미가입 비율은 1%임.
 - 연령별로 20-30대 보다 40대, 40대 보다 50-60대 본인 직장가입자 비율이 높아짐. 미가입 비율은 50-60대가 1.6%로 40대 0.6%, 20-30대 1.5% 보다 높음
 - 서울/경기/인천 방과후학교 강사는 수도권 이외 지역 방과후학교 강사 보다 본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비율이 높음

〈표 I-4-29〉 [방과후학교 강사] 건강보험 가입 상태

(단위: %)

방과후학교 강사	전체(명)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의료수급권자	직장가입피부양자 (※직장에 다니는 부모, 배우자, 자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올라간 상태)	미가입 (※6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상태)
전체	(306)	12.1	52.0	0.7	34.3	1.0
20-30대	(65)	3.1	52.3	0.0	43.1	1.5
40대	(179)	14.0	52.0	1.1	32.4	0.6
50-60대	(62)	16.1	51.6	0.0	30.6	1.6
전문대졸	(72)	11.1	47.2	0.0	38.9	2.8
대졸 이상	(222)	12.6	52.7	0.9	33.3	0.5
모름/무응답	(12)	8.3	66.7	0.0	25.0	0.0
유배우	(241)	11.6	45.2	0.8	41.1	1.2
무배우	(65)	13.8	76.9	0.0	9.2	0.0
서울/경기/인천	(187)	13.4	54.5	0.0	31.6	0.5
수도권 이외	(119)	10.1	47.9	1.7	38.7	1.7

- 방과후학교 강사 국민연금 가입 상태는 지역가입자가 57.2%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임의가입자 12.4%, 직장가입자 11.4%임. 미가입은 19%로 80% 가까이 국민연금에 가입됨.
 - 미가입 비율은 20-30대가 29.2%로 40대 16.8%, 50-60대 14.5% 보다 높고 학력별로는 전문대졸 20.8%, 대졸이상 18.9%가 국민연금 미가입임.
 - 서울/경기/인천 방과후학교 강사는 수도권 이외 지역 방과후학교 강사 보다 국민연금 미가입 비율이 낮음.

〈표 I-4-30〉 [방과후학교 강사] 국민연금 가입 상태

(단위: %)

방과후학교 강사	전체(명)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미가입 (※ 국민연금에 가입한 적 없거나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전체	(306)	11.4	57.2	12.4	19.0
20-30대	(65)	7.7	52.3	10.8	29.2
40대	(179)	13.4	60.3	9.5	16.8
50-60대	(62)	9.7	53.2	22.6	14.5
전문대졸	(72)	11.1	56.9	11.1	20.8
대졸 이상	(222)	11.7	56.3	13.1	18.9
모름/무응답	(12)	8.3	75.0	8.3	8.3
유배우	(241)	11.6	56.4	11.6	20.3
무배우	(65)	10.8	60.0	15.4	13.8
서울/경기/인천	(187)	12.8	63.6	9.1	14.4
수도권 이외	(119)	9.2	47.1	17.6	26.1

마. 정부에 바라는 정책

- 방과후학교 강사 고용보험 가입은 미가입이 87.9%로 10명 중 8명이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임
 - 연령별로는 20-30대의 미가입 비율이 89.2%로 가장 높고 대졸 이상이 88.3%로 전문대졸 이하 86.1% 보다 높음.
 - 서울/경기/인천 방과후학교 강사는 수도권 이외 지역 방과후학교 강사 보다 고용보험 미가입 비율이 낮음

〈표 I-4-31〉 [방과후학교 강사] 고용보험 가입 여부

(단위: %)

방과후학교 강사	전체(명)	가입	미가입	가입여부를 잘 모름
전체	(306)	9.8	87.9	2.3
20-30대	(65)	4.6	89.2	6.2
40대	(179)	10.1	88.8	1.1
50-60대	(62)	14.5	83.9	1.6
전문대졸	(72)	12.5	86.1	1.4
대졸 이상	(222)	9.5	88.3	2.3
모름/무응답	(12)	0.0	91.7	8.3
유배우	(241)	8.7	88.8	2.5
무배우	(65)	13.8	84.6	1.5
서울/경기/인천	(187)	9.6	87.2	3.2
수도권 이외	(119)	10.1	89.1	0.8

- 방과후학교 강사의 코로나19로 정부에 바라는 정책 1순위는 ‘강사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이 53.9%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재난지원금 등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금, 보조금 등’이 26.5%로 높음. ‘기초 강의 시장 보장’도 7.8%가 선호함.
- ‘강사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은 40대가 56.4%로 가장 높고 대졸 이상도 56.8%로 높음. 수도권 이외 지역이 54.6%로 서울/경기/인천 53.5% 보다 큰 차이 없이 높음

〈표 I-4-32〉 [방과후학교 강사] 코로나19와 방과후학교 강사 바라는 점_1순위

(단위: %)

방과후학교 강사	전체(명)	강사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	재난지원금 등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금, 보조금 등	기초 강의 시간 보장	일방적 강의 계약 파기 근절 대책	대체 일자리 지원	은행 대출 등 금융적 지원	강의시 방역 물품 지원
전체	(306)	53.9	26.5	7.8	4.6	4.6	1.6	1.0
20-30대	(65)	53.8	27.7	4.6	3.1	6.2	1.5	3.1
40대	(179)	56.4	25.1	8.4	4.5	2.8	2.2	0.6
50-60대	(62)	46.8	29.0	9.7	6.5	8.1	0.0	0.0
전문대졸	(72)	45.8	31.9	5.6	8.3	4.2	2.8	1.4
대졸 이상	(222)	56.8	24.3	9.0	3.2	4.5	1.4	0.9
모름/무응답	(12)	50.0	33.3	0.0	8.3	8.3	0.0	0.0
유배우	(241)	54.4	24.5	7.9	5.4	4.6	2.1	1.2
무배우	(65)	52.3	33.8	7.7	1.5	4.6	0.0	0.0
서울/경기/인천	(187)	53.5	27.8	6.4	5.9	3.7	1.6	1.1
수도권 이외	(119)	54.6	24.4	10.1	2.5	5.9	1.7	0.8

- 방과후학교 강사의 코로나19로 정부에 바라는 정책 2순위는 ‘강사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27.4%), ‘대체일자리 지원’(21.4%), ‘기초강의시간 보장’ 18.1%, ‘재난 지원금 등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금, 보조금 등’(15.1%)으로 1순위로 바라는 정책과 차이가 있음
- ‘대체일자리 지원’은 50-60대(27.9%), 대졸 이상(22.1%)이 높은 편이고 ‘기초강의시간 보장’은 40대 21.7%, 대졸 이상 19.4%, 수도권 이외 지역이 23.5%로 높은 편임

〈표 I-4-33〉 [방과후학교 강사] 코로나19와 방과후학교 강사 바라는 점_2순위

(단위: %)

방과후학교 강사	전체 (명)	강사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	대체 일자리 지원	기초 강의 시간 보장	재난 지원금 등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금, 보조금 등	일방적 강의 계약 파기 근절 대책	은행 대출 등 금융적 지원	강의시 방역 물품 지원	강사들과 정기적 소통	부대 비용 지원(교통비, 점심식사 제공 또는 점심식사비 등)	기타
전체	(299)	27.4	21.4	18.1	15.1	8.4	4.3	2.0	1.3	1.0	1.0
20-30대	(63)	27.0	19.0	12.7	14.3	15.9	4.8	0.0	1.6	3.2	1.6
40대	(175)	25.1	20.0	21.7	16.6	6.3	5.1	2.9	0.6	0.6	1.1
50-60대	(61)	34.4	27.9	13.1	11.5	6.6	1.6	1.6	3.3	0.0	0.0
전문대졸	(70)	35.7	18.6	14.3	15.7	8.6	5.7	0.0	1.4	0.0	0.0
대졸 이상	(217)	24.9	22.1	19.4	14.7	7.8	4.1	2.8	1.4	1.4	1.4
모름/무응답	(12)	25.0	25.0	16.7	16.7	16.7	0.0	0.0	0.0	0.0	0.0
유배우	(235)	27.7	20.0	20.0	14.9	8.1	4.3	2.1	1.7	0.9	0.4
무배우	(64)	26.6	26.6	10.9	15.6	9.4	4.7	1.6	0.0	1.6	3.1
서울/경기/인천	(184)	28.8	21.7	14.7	14.7	8.7	5.4	2.2	1.1	1.1	1.6
수도권 이외	(115)	25.2	20.9	23.5	15.7	7.8	2.6	1.7	1.7	0.9	0.0

주: 2순위까지 응답한 응답자

○ 방과후학교 강사의 코로나19로 정부에 바라는 정책 1순위+2순위는 ‘강사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이 80.7%로 압도적으로 높음. 다음으로 ‘재난지원금 등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금, 보조금 등’은 41.2%, ‘기초 강의 시장 보장’도 25.5%, ‘대체일자리 지원’ 25.5%, ‘일방적 강의 계약 파기 근절 대책’ 12.7%까지가 10%를 상회하는 정부에 바라는 정책임

- ‘강사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에 대한 집단별 선호는 가장 많은 비율로 선택함과 동시에 선호 비율도 79%~81%로 큰 차이가 없음

〈표 I-4-34〉 [방과후학교 강사] 코로나19와 방과후학교 강사 바라는 점_1+2순위(중복응답)

(단위: %)

방과후학교 강사	전체(명)	강사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	재난 지원금 등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금, 보조금 등	기초 강의 시간 보장	대체 일자리 지원	일방적 강의 계약 파기 근절 대책	은행 대출 등 금융적 지원	강의시 방역 물품 지원	강사들과 정기적 소통	부대 비용 지원 (교통비, 점심식사 제공 또는 점심식사 비 등)	기타
전체	(306)	80.7	41.2	25.5	25.5	12.7	5.9	2.9	1.3	1.0	1.0
20-30대	(65)	80.0	41.5	16.9	24.6	18.5	6.2	3.1	1.5	3.1	1.5
40대	(179)	81.0	41.3	29.6	22.3	10.6	7.3	3.4	0.6	0.6	1.1
50-60대	(62)	80.6	40.3	22.6	35.5	12.9	1.6	1.6	3.2	0.0	0.0
전문대졸	(72)	80.6	47.2	19.4	22.2	16.7	8.3	1.4	1.4	0.0	0.0
대졸 이상	(222)	81.1	38.7	27.9	26.1	10.8	5.4	3.6	1.4	1.4	1.4
모름/무응답	(12)	75.0	50.0	16.7	33.3	25.0	0.0	0.0	0.0	0.0	0.0
유배우	(241)	81.3	39.0	27.4	24.1	13.3	6.2	3.3	1.7	0.8	0.4
무배우	(65)	78.5	49.2	18.5	30.8	10.8	4.6	1.5	0.0	1.5	3.1
서울/경기/인천	(187)	81.8	42.2	20.9	25.1	14.4	7.0	3.2	1.1	1.1	1.6
수도권 이외	(119)	79.0	39.5	32.8	26.1	10.1	4.2	2.5	1.7	0.8	0.0

5. 정책적 시사점

가. 주요 조사 결과

□ 근무 경력 5년 경과가 절반 이상

- 본 실태조사에서 가사근로자, 아이돌보미, 방과후학교 강사 경력은 세 직종 모두 5년 경과가 60%~82% 이상을 차지하여 본인의 주된 일자리로 종사하는 비율이 높은 것을 예측할 수 있음
- 이는 2019년 고용노동부의 여성임금근로자의 경력 분포가 5년 이상이 47%인 것에 비해 높은 편임

〈표 I-5-1〉 코로나19 여성일자리 실태조사 - 근무 경력

(단위: %)

	전체(명)	6개월 이상 ~ 1년 미만	1년 이상 ~ 2년 미만	2년 이상 ~ 3년 미만	3년 이상 ~ 5년 미만	5년 이상 ~ 7년 미만	7년 이상 ~ 10년 미만	10년 이상	5년 이상
가사근로자	(290)	4.1	8.3	6.9	16.2	16.6	14.8	33.1	64.5
아이돌보미	(500)	4.2	7.2	7.4	20.4	20.2	25.4	15.2	60.8
방과후학교 강사	(306)	1.6	4.2	2.6	8.5	12.7	24.8	45.4	82.9

〈표 I-5-2〉 여성 임금근로자 경력(2019)

여성 전체	1년미만	1~3년미만	3~5년미만	5~10년미만	10년이상	5년 이상
4,165,419(명)	549,137	978,321	678,904	888,263	1,070,795	1,959,058
100.0(%)	13.2	23.5	16.3	21.3	25.7	47.0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http://stathtml.moel.go.kr/statHtml/statHtml.do?orgId=118&tblId=DT_118N_PAYM37&conn_path=I3

□ 코로나19 여성일자리 충격 상이

- 본 실태조사 결과 코로나19 전후로 근로시간과 수입의 일자리 환경이 악화된 순서는 방과후학교 강사>가사근로자>아이돌보미 순서로 방과후학교강사가 코로나19로 타격을 가장 많이 받음
- 방과후학교강사는 코로나19로 학교가 개교하지 않는 것이 치명적 타격을 미친 것에 대해 아이돌보미와 가사근로자에 비해 사회보험 가입 비율이 낮은 것에서 고용 위기시 고용안전망의 사각지대임이 확인됨.

〈표 I-5-3〉 코로나19 여성일자리 실태조사 - 고용보험 가입 비율

	전체(명)	가입	미가입	가입여부를 잘 모름
가사근로자	(290)	9.7	84.1	6.2
아이돌보미	(500)	87.4	4.8	7.8
방과후학교 강사	(306)	9.8	87.9	2.3

- 방과후학교강사는 학교가 개교하지 않아 수입이 0원인 비율도 가장 높는데 고용보험 가입 비율이 낮아 실업시 고용안정망의 사각지대임이 드러남

〈표 I-5-4〉 코로나19 이후 월평균 수입(2020년 4월 기준)

(단위: %)

	전체(명)	0원	50만원 미만	50-100만원 미만	100-150만원 미만	150-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평균(만원)
가사근로자	(290)	12.4	31.0	34.8	14.1	5.9	1.7	63.9
아이돌보미	(306)	95.8	1.6	2.0	0.3	0.3		2.7
방과후학교강사	(500)	15.6	13.8	30.0	19.4	12.6	8.6	88.1

□ 바라는 정책(1순위+2순위)

○ 가사근로자

- 가사근로자는 ‘재난지원금 등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금, 보조금 등’을 바라는 비율이 51.7%(1순위+2순위)로 가장 높음. 다음으로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 지원’(34.1%), ‘가사도우미노동자성 인정 보장 법 제정’(32.1%)임.

○ 아이돌보미

- 일자리 현황 실태조사를 통한 직종별 정부에 바라는 정책은 일하는 환경에 따라 상이함.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아이돌보미는 상대적으로 가사근로자, 방과후학교 강사에 비해 안정적인 일자리인 것으로 평가됨.
- 아이돌보미가 가사근로자, 방과후학교강사에 비해서는 안정적인 일자리이나 저평가된 돌봄 여성 일자리 개선차원에서는 아이돌보미들이 바라는 ‘아이돌보미 기초근무시간 보장’(71%)에 대한 수요가 가장 많음. 다음으로는 ‘부대 비용 지원(교통비, 점심식사 제공 또는 점심식사비 등)’으로 32.4%가 원함

○ 방과후학교강사

- 방과후학교강사는 ‘강사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을 80.7%로 원하여 가장 높음. 다음으로는 ‘재난지원금 등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금, 보조금 등’이 41.2%로 높음

〈표 I-5-5〉 정부에 바라는 정책(1순위+2순위)

	가사근로자	아이돌보미	방과후학교 강사	
1	재난지원금 등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금, 보조금 등	51.7	아이돌보미 기초근무시간 보장 71	강사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 80.7
2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 지원	34.1	부대 비용 지원(교통비, 점심식사 제공 또는 점심식사비 등) 32.4	재난지원금 등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금, 보조금 등 41.2
3	가사도우미노동자성 인정 보장 법 제정	32.1	아이돌봄 이용 비용 국가와 지자체 부담 확대 31.6	기초 강의 시간 보장 25.5

	가사근로자		아이돌보미		방과후학교 강사	
4	방문 취소시 빠른 연계	26.2	재난지원금 등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금, 보조금 등	30.2	대체 일자리 지원	25.5
5	부대 비용 지원(교통비, 점심식사 제공 또는 점심식사비 등)	22.8	연계 취소시 빠른 연계	16.6	일방적 강의 계약 파기 근절 대책	12.7
6	대체 일자리 지원	18.3	아이돌봄활동시 방역 물품 지원	5.4	은행 대출 등 금융적 지원	5.9
7	가사도우미 활동시 방역 물품 지원	5.5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 지원	4.6	강의시 방역 물품 지원	2.9
8	은행 대출 등 금융적 지원	2.4	대체 일자리 지원	4.0	강사들과 정기적 소통	1.3
9			은행 대출 등 금융적 지원	1.2	부대 비용 지원(교통비, 점심식사 제공 또는 점심식사비 등)	1.0

나. 정책적 시사점

○ 가사근로자, 아이돌보미, 방과후학교 강사 세 직종은 일자리 처우 및 조건이 상이한 것에서 이들을 위한 정책도 달라짐

- '재난지원금 등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금, 보조금 등'을 바라는 가사근로자에게는 이들을 위한 맞춤형 자금 지원 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21대 국회에는 「가사근로자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야 함.
- 아이돌보미에게는 '아이돌보미 기초근무시간 보장' 하여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으로 갑작스러운 연계 취소로 수입이 0원이 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또한 고정 급여 외에 코로나 19와 같이 방역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에 대해 교통비 등의 복리후생비 지급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방과후학교 강사는 가사서비스, 아이돌보미에 비해 일자리의 안정성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조사됨. 방과후학교 강사는 공적인 영역인 학교에서 일하는 노동자로 이들의 강의 활동을 법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또한 방과후학교 강사들이 정부에 두 번째로 바란 정책으로 방과후학교 강사 맞춤형 자금지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건설근로자 대상 생계비 지원과* 같은 자금 지원을 교육부나 유관 부처에서 추진하는 것을 제안함

※ 건설근로자 1만8천명에게 230억원 긴급 생계비 무이자 대부금 지급(건설근로자공제회 보도자료, 2020.6.9.)
 긴급 생계비 대부사업은 고용노동부의 2020년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된 사업으로서 코로나19로 인해 일감이 없는 건설근로자를 위해 한시적으로 8월 14일까지 실시하는 사업으로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신분증을 소지하고 건설근로자공제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건설근로자하나로서비스」 및 모바일로도 신청 가능

Ⅱ. 코로나19 정부 일자리 지원 정책 인지도 및 코로나19 전후 삶의 만족도

1. 생활안정자금 용자

가. 정책개요

- 기간: 2020년 4월 1일 ~
- 내용: 코로나19로 인한 휴업, 휴직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노동자들의 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연 1.5% 금리, 최대 3천만원까지 빌려주는 제도
- 신청대상: 정규직은 월평균 임금이 388만원 이하, 비정규직과 특수형태근로자는 소득액과 상관 없이 신청가능하나(특수형태근로자는 7월 31일까지만 소득조건 면제) 특수형태근로자는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어야 함.
- 한도: 여러 종류의 용자를 한번에 신청 가능, 2종류 이상 신청 시, 1인당 최대 3천만원까지만 가능
 - 임금감소 생계비(2,000만원), 소액생계비(500만원), 의료비(1,000만원), 장례비 (1,000만원), 자녀 학자금(1,000만원), 혼례비(1,250만원), 부모 요양비(1,000만원), 임금체불(1,000만원)

나. 인지도

- ‘생활안정자금 용자’에 대한 인지 여부를 질문하였는데, 제도를 안다는 응답자는 조사대상 근로자 중 32.7%에 불과하여 제도 인지도는 매우 낮았음.
 - 직업별로 보면 방과후학교 강사의 인지도가 40.8%로 가장 높고, 아이돌보미가 30.6, 가사 서비스가 27.6%의 순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40대의 인지도가 38.3%로 가장 높고, 학력이 높을수록 ‘알고 있다’의 비율이 높아짐.
 - 무배우자보다는 유배우자가, 근무지역별로는 서울지역 근무자의 인지도가 가장 높음.

〈표 II-1-1〉 [코로나19 정부 일자리 지원 정책] 생활안정자금 용자 인지 여부

(단위: %)

	전체(명)	모른다	알고 있다
전체	(1,096)	67.3	32.7
가사서비스	(290)	72.4	27.6
아이돌보미	(500)	69.4	30.6
방과후학교 강사	(306)	59.2	40.8
20-30대	(71)	70.4	29.6
40대	(266)	61.7	38.3
50대	(507)	69.6	30.4
60대 이상	(252)	67.9	32.1
중졸 이하	(83)	75.9	24.1
고졸	(463)	71.5	28.5
전문대졸	(205)	66.3	33.7
대졸 이상	(333)	60.7	39.3
모름/무응답	(12)	50.0	50.0
유배우	(884)	66.6	33.4
무배우	(212)	70.3	29.7
서울	(189)	60.3	39.7
경기	(237)	69.6	30.4
인천/강원	(107)	67.3	32.7
충청	(85)	63.5	36.5
전라/제주	(208)	71.6	28.4
경상	(270)	68.1	31.9

다. 신청여부

- 제도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근로자에 대하여 ‘생활안정자금 용자’를 신청했는지 여부를 질문하였는데, 신청했다는 비율은 6.7%에 불과해 대부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직업별 관계없이 신청비율이 매우 낮았고, 특히 20-30대 젊은 근로자들은 신청사례가 없었음.
 - 학력별로는 중졸이하(15.0%)와 전문대졸(8.7%)의 신청비율이 높았고, 무배우자(3.2%)보다는 유배우자(7.5%) 집단에서의 신청비율이 높게 나타났음. 지역별로는 서울이 10.7%로 가장 높았고, 충청지역은 신청한 사례가 없었음.

〈표 II-1-2〉 [코로나19 정부 일자리 지원 정책] 생활안정자금 용자 신청 여부

(단위: %)

	전체(명)	신청했다	신청하지 않았다
전체	(358)	6.7	93.3
가사서비스	(80)	8.8	91.3
아이돌보미	(153)	5.9	94.1
방과후학교 강사	(125)	6.4	93.6
20-30대	(21)	0.0	100.0
40대	(102)	6.9	93.1
50대	(154)	6.5	93.5
60대 이상	(81)	8.6	91.4
중졸 이하	(20)	15.0	85.0
고졸	(132)	4.5	95.5
전문대졸	(69)	8.7	91.3
대졸 이상	(131)	6.9	93.1
모름/무응답	(6)	0.0	100.0
유배우	(295)	7.5	92.5
무배우	(63)	3.2	96.8
서울	(75)	10.7	89.3
경기	(72)	5.6	94.4
인천/강원	(35)	5.7	94.3
충청	(31)	0.0	100.0
전라/제주	(59)	6.8	93.2
경상	(86)	7.0	93.0

○ 이에 생활안정자금 용자를 신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질문하였는데, ‘원하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47.9%로 가장 높았고, ‘지원 대상에 해당이 안됨’이라는 응답이 40.1%, ‘신청절차가 까다로워서 포기함’이 11.4%의 순으로 나타났음.

- 직업별로 보면 방과후학교 강사의 경우 ‘원하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61.5%로 다수를 차지한 반면, 가사서비스나 아이돌보미의 경우 ‘원하지 않아서’와 ‘지원대상이 안됨’이라는 비율이 비슷하거나 지원대상이 안된다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가사서비스: 46.6% vs 45.2%, 아이돌보미 37.5% vs 54.2%).
- 방과후학교 강사의 경우 타 직업과 비교하여 20-40대 젊은 근로자의 비율이 높고 대졸 이상의 학력이 대부분인 점을 감안하면 자녀학자금이나 혼례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등의 명목으로 지원이 되는 용자의 필요성을 못느꼈거나 대출에 대한 부담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임.
- 반면 ‘지원 대상에 해당이 안됨’이라는 응답비율이 아이돌보미 및 가사서비스 직업에서 가장 높았음. 방과후학교 강사를 포함해 이 직업들은 보험설계사나 학습지교사와 달리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법외 특수형태근로자임.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생활안정자금 용자'는 특수 형태근로자의 경우 소득조건은 한시적으로 면제되지만 산재보험 적용자여야 하는 조건이 있어서 특수형태근로자 중에서도 조사 대상 근로자들은 사실상 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소득조건 적용 유예와 마찬가지로 용자 지원과 같은 정책에 대해 수요가 비교적 높은 아이돌보미, 가사서비스 직종, 50대 이상 고연령 근로자에 대해 산재보험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할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지역별로 보면 서울, 경기, 충청 지역은 '원하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서울 50.7%, 경기 52.9%, 충청 61.3%), 인천/강원은 '지원 대상에 해당이 안됨'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51.5%).

〈표 II-1-3〉 [코로나19 정부 일자리 지원 정책] 생활안정자금 용자 신청하지 않은 이유

(단위: %)

	전체 (명)	원하지 않아서(무이자 대출이 아니라서)	지원 대상에 해당이 안 됨	신청절차가 까다로워서 포기함	신청할 예정임	기타
전체	(334)	47.9	40.1	11.4	0.3	0.3
가사서비스	(73)	46.6	45.2	8.2	0.0	0.0
아이돌보미	(144)	37.5	54.2	8.3	0.0	0.0
방과후학교 강사	(117)	61.5	19.7	17.1	0.9	0.9
20-30대	(21)	61.9	28.6	9.5	0.0	0.0
40대	(95)	55.8	27.4	15.8	0.0	1.1
50대	(144)	41.0	47.2	11.1	0.7	0.0
60대 이상	(74)	47.3	45.9	6.8	0.0	0.0
중졸 이하	(17)	52.9	35.3	11.8	0.0	0.0
고졸	(126)	48.4	42.1	9.5	0.0	0.0
전문대졸	(63)	38.1	55.6	6.3	0.0	0.0
대졸 이상	(122)	50.0	32.0	16.4	0.8	0.8
모름/무응답	(6)	83.3	16.7	0.0	0.0	0.0
유배우	(273)	47.6	39.6	12.1	0.4	0.4
무배우	(61)	49.2	42.6	8.2	0.0	0.0
서울	(67)	50.7	31.3	17.9	0.0	0.0
경기	(68)	52.9	38.2	8.8	0.0	0.0
인천/강원	(33)	39.4	51.5	9.1	0.0	0.0
충청	(31)	61.3	25.8	12.9	0.0	0.0
전라/제주	(55)	47.3	43.6	9.1	0.0	0.0
경상	(80)	40.0	47.5	10.0	1.3	1.3

라. 지원 수혜 여부

- 생활안정자금 용자를 신청한 근로자 24명을 대상으로 수혜 여부를 질문하였는데, 지원을 받았다는 응답이 58.3%로 나타나 6:4의 비율로 신청 후 수혜가 이루어지고 있음.
- 직업별로 보면 가사서비스나 아이돌보미는 각각 71.4%, 66.7%로 70% 안팎의 수혜비율을 보인 반면 방과후학교 강사는 37.5%에 불과하였음.
- 방과후학교 강사가 집중된 40대 역시 14.3%로 매우 낮은 반면 50대는 80%, 60대 이상은 71.4%로 나타났고, 유배우자의 경우 절반을 약간 넘어, 소득조건이나 산재보험 적용 이외에도 연령이나 가족관계 등 비금전적 요건의 장벽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생활안정자금 용자의 종류가 소액생계비 외에도 의료비, 장례비, 자녀 학자금, 혼례비 등 연령과 혼인상태 여부 등에 따라 수요가 집중되는 항목들이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임.

〈표 II-1-4〉 [코로나19 정부 일자리 지원 정책] 생활안정자금 용자 지원 수혜 여부

(단위: %)

	전체(명)	지원 받음	지원 받지 못 함
전체	(24)	58.3	41.7
가사서비스	(7)	71.4	28.6
아이돌보미	(9)	66.7	33.3
방과후학교 강사	(8)	37.5	62.5
40대	(7)	14.3	85.7
50대	(10)	80.0	20.0
60대 이상	(7)	71.4	28.6
중졸 이하	(3)	33.3	66.7
고졸	(6)	83.3	16.7
전문대졸	(6)	50.0	50.0
대졸 이상	(9)	55.6	44.4
유배우	(22)	54.5	45.5
무배우	(2)	100.0	0.0
서울	(8)	25.0	75.0
경기	(4)	25.0	75.0
인천/강원	(2)	100.0	0.0
전라/제주	(4)	100.0	0.0
경상	(6)	83.3	16.7

- 생활안정자금 용자를 지원받지 못한 10명을 대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한 이유를 질문한 결과 10명 중 7명은 '지원대상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고 응답하였고 나머지는 '신청 후 대기 중'이라고 응답함.

마. 도움 정도

- 생활안정자금 용자를 지원받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도움이 되었는지를 질문하였는데, 지원을 받은 14명 중 13명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고, 그 중 3명은 매우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음.

〈표 II-1-5〉 [코로나19 정부 일자리 지원 정책] 생활안정자금 용자 도움 정도

(단위: %)

	전체(명)	그다지 도움이 안 됨	①+② 도움이 안 됨	약간 도움이 됨	매우 도움이 됨	③+④ 도움이 됨
전체	(14)	7.1	7.1	71.4	21.4	92.9
가사서비스	(5)	20.0	20.0	80.0	0.0	80.0
아이돌보미	(6)	0.0	0.0	66.7	33.3	100.0
방과후학교 강사	(3)	0.0	0.0	66.7	33.3	100.0
40대	(1)	0.0	0.0	100.0	0.0	100.0
50대	(8)	0.0	0.0	75.0	25.0	100.0
60대 이상	(5)	20.0	20.0	60.0	20.0	80.0
중졸 이하	(1)	0.0	0.0	100.0	0.0	100.0
고졸	(5)	0.0	0.0	80.0	20.0	100.0
전문대졸	(3)	0.0	0.0	66.7	33.3	100.0
대졸 이상	(5)	20.0	20.0	60.0	20.0	80.0
유배우	(12)	0.0	0.0	75.0	25.0	100.0
무배우	(2)	50.0	50.0	50.0	0.0	50.0
서울	(2)	0.0	0.0	100.0	0.0	100.0
경기	(1)	100.0	100.0	0.0	0.0	0.0
인천/강원	(2)	0.0	0.0	100.0	0.0	100.0
전라/제주	(4)	0.0	0.0	50.0	50.0	100.0
경상	(5)	0.0	0.0	80.0	20.0	100.0

바. 향후 신청 의사

- 마지막으로 생활안정자금 용자 제도를 모른다고 응답한 738명을 대상으로 향후 생활안정자금 용자 신청 의향이 있는지를 조사하였는데, 가사서비스 및 아이돌보미 근로자의 경우 약 50%가 신청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방과후학교 강사는 72.4%가 신청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신청할 의향이 있다는 비율이 높았는데, 방과후학교 강사의 다수가 신청할 의향이 있어서인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별로는 서울, 충청지역에서의 신청

의향 비율이 높았고, 전라/제주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 전술한 바와 같이 제도를 인지하고 있는 방과후학교 강사의 경우 실제 신청한 비율은 6.4%에 불과하고, 신청하지 않은 이유의 상당수도 '원하지 않아서'인데도 제도를 인지하지 못했던 응답자의 72.4%가 신청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이유는 의문임. 생활안정자금 용자제도가 지금 당장은 필요하지 않더라도 장기적 관점에서 필요성을 느꼈을 가능성, 제도를 인지하여 신청 단계에서 부딪히는 장벽들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함.

〈표 II-1-6〉 [코로나19 정부 일자리 지원 정책] 생활안정자금 용자 신청 의향

(단위: %)

	전체(명)	신청할 의향이 있다	신청할 의향이 없다
전체	(738)	55.3	44.7
가사서비스	(210)	49.5	50.5
아이돌보미	(347)	49.9	50.1
방과후학교 강사	(181)	72.4	27.6
20-30대	(50)	70.0	30.0
40대	(164)	62.2	37.8
50대	(353)	52.1	47.9
60대 이상	(171)	50.9	49.1
중졸 이하	(63)	44.4	55.6
고졸	(331)	49.8	50.2
전문대졸	(136)	61.8	38.2
대졸 이상	(202)	62.9	37.1
모름/무응답	(6)	66.7	33.3
유배우	(589)	54.0	46.0
무배우	(149)	60.4	39.6
서울	(114)	64.9	35.1
경기	(165)	60.0	40.0
인천/강원	(72)	51.4	48.6
충청	(54)	64.8	35.2
전라/제주	(149)	44.3	55.7
경상	(184)	52.7	47.3

- 조사대상 근로자들에게 있어서 본 제도의 인지도가 전반적으로 낮고(인지율 32.7%), 실제 신청한 비율이 6.7%에 불과해 제도에 대한 홍보나 신청요건 등 제도설계와 관련한 전반적인 실태 점검이 필요

2.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가. 정책개요

- 기간: 2020년 4월 1일 ~
- 내용: 고용노동부와 광역자치단체가 영세사업장 무급휴직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의 고용·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월 최대 50만원씩 2개월간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거나 단기 일자리(대구, 대전, 울산, 세종,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직업훈련 수당(울산, 세종, 충남, 전남) 제공
- 신청대상: 코로나 19로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된 일정규모 미만 사업장에서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심각”단계 발령(2020.2.23.)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노동자나 소득이 급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로, 자치단체별로 사업장 기준(예: 50인 미만) 및 소득 기준(예: 중위소득 100% 미만)은 상이함.

나. 인지도

- ‘코로나 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에 대한 인지 여부를 질문하였는데, 제도를 알고있다는 응답은 46.2%로 ‘생활안정자금 용자’ 보다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전반적으로 인지도가 낮았던 ‘생활안정자금 용자’와 비교하여 비슷하게 가사서비스나 아이돌보미 근로자 역시 낮은 인지도를 보였으나(28.6%, 31.8%), 방과후학교 강사의 경우 86.3%의 높은 인지도를 나타냈음.
 - 역시 방과후학교 강사의 비율이 높은 20-40대, 전문대졸 이상 학력 집단에서의 인지도가 높게 나타남.
 - 본 정책은 국비와 지방비가 함께 투입되는 사업으로 지역별로 지원요건이 상이하므로 지역별 실태를 보는 것이 중요함. 지역별로 충청(60.0%), 경기(51.1%), 서울(50.3%)에서의 인지도가 비교적 높은 반면, 전라/제주(31.3%), 인천/강원(43.9%)은 낮은 비율을 보임.

〈표 II-2-1〉 [코로나19 정부 일자리 지원 정책]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인지 여부 (단위: %)

	전체(명)	모른다	알고 있다
전체	(1,096)	53.8	46.2
가사서비스	(290)	71.4	28.6
아이돌보미	(500)	68.2	31.8
방과후학교 강사	(306)	13.7	86.3

	전체(명)	모른다	알고 있다
전체	(1,096)	53.8	46.2
20-30대	(71)	14.1	85.9
40대	(266)	32.3	67.7
50대	(507)	62.1	37.9
60대 이상	(252)	71.0	29.0
중졸 이하	(83)	74.7	25.3
고졸	(463)	70.8	29.2
전문대졸	(205)	48.3	51.7
대졸 이상	(333)	29.7	70.3
모름/무응답	(12)	16.7	83.3
유배우	(884)	54.6	45.4
무배우	(212)	50.5	49.5
서울	(189)	49.7	50.3
경기	(237)	48.9	51.1
인천/강원	(107)	56.1	43.9
충청	(85)	40.0	60.0
전라/제주	(208)	68.8	31.3
경상	(270)	53.0	47.0

다. 신청여부

- 제도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근로자에 대하여 신청여부를 질문하였는데, 신청했다는 비율이 35.6%로 6.7%의 신청비율을 보인 생활안정자금 용자보다는 훨씬 신청률이 높음.
- 직업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데, 아이돌보미는 7.5%로 여전히 낮은 신청률을 나타냈고, 가사 서비스는 28.9%, 방과후학교 강사는 54.5%로 조사에 응한 근로자 중 절반이 넘는 근로자가 신청했다고 응답하였음.
- 연령 및 학력별로도 차이를 보였는데, 40대 이하는 50% 이상의 신청률을 보인 반면 50대는 19.8%, 60대 이상은 23.3%의 비율을 나타냈고, 고졸은 19.3%, 전문대졸과 대졸 이상은 각각 32.1%와 47.0%의 신청률을 나타냄.
- 혼인상태에 따른 분포를 보면 무배우자는 40.0%, 유배우자 34.4%로 무배우자의 신청률이 높았음.
- 지역별로 보면 인지도가 높았던 충청, 경기, 서울보다 경상 지역의 신청률이 48.8%로 높게 나타났고, 인천/강원, 전라/제주는 각각 21.3%, 18.5%로 가장 신청률이 낮았음.
- 긴급 자금지원 정책의 특성상 자치단체별로 우선순위에 따라 조건에 맞는 기준을 정하기

때문에 인지도나 신청 여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예컨대 대부분 자치단체에서 업종제한은 없지만 인천은 수상·항공 관련 업종, 제주는 여행업·관광숙박업 등 업종에 우선 지원

〈표 II-2-2〉 [코로나19 정부 일자리 지원 정책]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신청 여부

(단위: %)

	전체(명)	신청했다	신청하지 않았다
전체	(506)	35.6	64.4
가사서비스	(83)	28.9	71.1
아이돌보미	(159)	7.5	92.5
방과후학교 강사	(264)	54.5	45.5
20-30대	(61)	55.7	44.3
40대	(180)	50.6	49.4
50대	(192)	19.8	80.2
60대 이상	(73)	23.3	76.7
중졸 이하	(21)	23.8	76.2
고졸	(135)	19.3	80.7
전문대졸	(106)	32.1	67.9
대졸 이상	(234)	47.0	53.0
모름/무응답	(10)	50.0	50.0
유배우	(401)	34.4	65.6
무배우	(105)	40.0	60.0
서울	(95)	30.5	69.5
경기	(121)	35.5	64.5
인천/강원	(47)	21.3	78.7
충청	(51)	47.1	52.9
전라/제주	(65)	18.5	81.5
경상	(127)	48.8	51.2

○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을 신청하지 않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신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질문하였는데, ‘지원 대상에 해당이 안됨’이라는 응답이 70.6%로 가장 많았고, ‘신청절차가 까다로워서 포기함’이 17.8%, ‘신청방법을 몰라서’가 4.6%의 순으로 나타남.

- 직업별로 보면 ‘지원 대상에 해당이 안됨’이라는 응답비율이 아이돌보미(76.2%)와 방과후학교 강사(70.0%)가 가사서비스(57.6%)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가사서비스 근로자는 ‘신청절차가 까다로워서 포기함’(27.1%)과 ‘신청방법을 몰라서’(4.6%)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신청할 예정이라는 응답은 방과후학교 강사가 7.5%로 가장 높음
- 연령별로 보면 ‘지원 대상에 해당이 안된다’는 응답은 40대가 가장 높았고 50대는 ‘신청절

차가 까다로워서 포기함', 60대는 '신청방법을 몰라서'라는 응답이 타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음.

- 학력별로는 전문대졸과 대졸 이상은 '지원 대상에 해당이 안됨'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 '신청절차가 까다로워서 포기함'이나 '신청방법을 몰라서'는 고졸 이하 응답자의 비율이 높았음.
- 지역별로 보면 충청지역의 경우 '지원 대상에 해당이 안됨'이라는 응답이 63.0%로 가장 낮았는데, 신청할 예정이라는 응답이 11.1%임.

〈표 II-2-3〉 [코로나19 정부 일자리 지원 정책]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신청하지 않은 이유 (단위: %)

	전체(명)	지원 대상에 해당이 안 됨	신청절차가 까다로워서 포기함	신청방법을 몰라서	신청할 예정임	기타
전체	(326)	70.6	17.8	4.6	3.1	4.0
가사서비스	(59)	57.6	27.1	10.2	1.7	3.4
아이돌보미	(147)	76.2	16.3	4.8	0.0	2.7
방과후학교 강사	(120)	70.0	15.0	1.7	7.5	5.8
20-30대	(27)	74.1	14.8	0.0	3.7	7.4
40대	(89)	77.5	12.4	1.1	4.5	4.5
50대	(154)	65.6	22.1	5.8	3.2	3.2
60대 이상	(56)	71.4	16.1	8.9	0.0	3.6
중졸 이하	(16)	62.5	25.0	12.5	0.0	0.0
고졸	(109)	64.2	23.9	5.5	0.9	5.5
전문대졸	(72)	83.3	8.3	4.2	1.4	2.8
대졸 이상	(124)	70.2	16.9	3.2	5.6	4.0
모름/무응답	(5)	60.0	20.0	0.0	20.0	0.0
유배우	(263)	73.4	15.2	4.6	2.7	4.2
무배우	(63)	58.7	28.6	4.8	4.8	3.2
서울	(66)	68.2	19.7	4.5	3.0	4.5
경기	(78)	74.4	20.5	2.6	2.6	0.0
인천/강원	(37)	73.0	13.5	5.4	2.7	5.4
충청	(27)	63.0	18.5	0.0	11.1	7.4
전라/제주	(53)	69.8	18.9	3.8	1.9	5.7
경상	(65)	70.8	13.8	9.2	1.5	4.6

라. 수혜여부

-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을 신청한 180명을 대상으로 수혜 여부를 조사한 결과 67.8%가 수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됨.

- 신청자가 매우 적은 아이돌보미(12명)는 41.7%로 수혜율이 가장 낮았고, 가사서비스는 24명 신청자중 87.5%가 수혜를 받았고, 방과후학교 강사는 66.7%의 수혜율을 나타냈음.
- 연령별로 보면 20-30대는 76.5%, 50대 71.1%, 40대 64.8%의 순으로 수혜율을 보였고, 60대 이상이 58.8%로 수혜율이 가장 낮았음.
- 지역별로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났는데, 인천/강원 지역과 경상 지역은 각각 90.0%와 87.1%로 신청자 10명 중 9명이 수혜를 받았다고 응답하였고, 충청지역은 79.2%, 경기지역은 60.5가 수혜를 받은 반면, 서울은 20.7%만이 수혜를 받았다고 응답하였음. 지역별 지원 요건의 차이, 중복 수혜 허용 여부 등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예상됨.

〈표 II-2-4〉 [코로나19 정부 일자리 지원 정책]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지원 수혜 여부 (단위: %)

	전체(명)	지원 받음	지원 받지 못 함
전체	(180)	67.8	32.2
가사서비스	(24)	87.5	12.5
아이돌보미	(12)	41.7	58.3
방과후학교 강사	(144)	66.7	33.3
20-30대	(34)	76.5	23.5
40대	(91)	64.8	35.2
50대	(38)	71.1	28.9
60대 이상	(17)	58.8	41.2
중졸 이하	(5)	80.0	20.0
고졸	(26)	73.1	26.9
전문대졸	(34)	73.5	26.5
대졸 이상	(110)	67.3	32.7
모름/무응답	(5)	0.0	100.0
유배우	(138)	68.8	31.2
무배우	(42)	64.3	35.7
서울	(29)	20.7	79.3
경기	(43)	60.5	39.5
인천/강원	(10)	90.0	10.0
충청	(24)	79.2	20.8
전라/제주	(12)	66.7	33.3
경상	(62)	87.1	12.9

○ 신청자 중 지원을 받지 못한 58명을 대상으로 지원받지 못한 이유를 조사했는데, ‘지원대상에 해당 안됨’이 48.3%, 신청 후 대기 중이라는 응답이 44.8%로 나타나 실제로 지원을 받지 못한 사유의 대부분은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인 것으로 나타났음.

- 직업별로 살펴봐도 신청후 대기 중이라는 응답을 제외하면 대부분 ‘지원 대상에 해당 안됨’이라는 응답 비율이 높았음. 지역별로 여건에 따라 다양한 지원제도가 있어서 중복 수혜 여부나 상이한 지원요건에 막혀 탈락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표 II-2-5〉 [코로나19 정부 일자리 지원 정책]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지원받지 못한 이유 (단위: %)

	전체(명)	지원 대상에 해당이 안 됨	신청 후 대기 중임	서류 증명을 못해서 탈락함
전체	(58)	48.3	44.8	6.9
가사서비스	(3)	33.3	33.3	33.3
아이돌보미	(7)	85.7	0.0	14.3
방과후학교 강사	(48)	43.8	52.1	4.2
20-30대	(8)	37.5	62.5	0.0
40대	(32)	43.8	50.0	6.3
50대	(11)	54.5	45.5	0.0
60대 이상	(7)	71.4	0.0	28.6
중졸 이하	(1)	0.0	0.0	100.0
고졸	(7)	71.4	14.3	14.3
전문대졸	(9)	66.7	33.3	0.0
대졸 이상	(36)	44.4	50.0	5.6
모름/무응답	(5)	20.0	80.0	0.0
유배우	(43)	48.8	44.2	7.0
무배우	(15)	46.7	46.7	6.7
서울	(23)	43.5	52.2	4.3
경기	(17)	52.9	47.1	0.0
인천/강원	(1)	0.0	100.0	0.0
충청	(5)	20.0	60.0	20.0
전라/제주	(4)	75.0	0.0	25.0
경상	(8)	62.5	25.0	12.5

마. 도움 정도

-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을 신청해 수혜를 입은 122명을 대상으로 도움된 정도를 질문하였는데, 91.0%의 근로자가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음.
 - 도움이 되었다는 비율을 직업별로 보면 아이돌보미 근로자는 80.0%로 90%를 넘긴 타 직업 보다 낮았고, 연령별로 보면 2-30대의 비율이 92.3%로 가장 높았고, 50대가 88.9%로 가장 낮았으며, 학력별로는 고졸이나 전문대졸에 비해 대졸 이상 학력에서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높았음.

- 지역별로도 차이를 보였는데, 서울과 전라/제주의 경우 도움이 되었다는 비율이 100%인데 반해 경기, 인천/강원, 충청 지역은 80% 대를 보였음.

〈표 II-2-6〉 [코로나19 정부 일자리 지원 정책]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도움 정도

(단위: %)

	전체 (명)	전혀 도움이 안 됨	그다지 도움이 안 됨	①+② 도움이 안 됨	약간 도움이 됨	매우 도움이 됨	③+④ 도움이 됨
전체	(122)	0.8	8.2	9.0	59.8	31.1	91.0
가사서비스	(21)	0.0	9.5	9.5	57.1	33.3	90.5
아이돌보미	(5)	0.0	20.0	20.0	40.0	40.0	80.0
방과후학교 강사	(96)	1.0	7.3	8.3	61.5	30.2	91.7
20-30대	(26)	0.0	7.7	7.7	53.8	38.5	92.3
40대	(59)	1.7	6.8	8.5	62.7	28.8	91.5
50대	(27)	0.0	11.1	11.1	55.6	33.3	88.9
60대 이상	(10)	0.0	10.0	10.0	70.0	20.0	90.0
중졸 이하	(4)	0.0	0.0	0.0	75.0	25.0	100.0
고졸	(19)	0.0	10.5	10.5	47.4	42.1	89.5
전문대졸	(25)	4.0	8.0	12.0	68.0	20.0	88.0
대졸 이상	(74)	0.0	8.1	8.1	59.5	32.4	91.9
유배우	(95)	1.1	7.4	8.4	62.1	29.5	91.6
무배우	(27)	0.0	11.1	11.1	51.9	37.0	88.9
서울	(6)	0.0	0.0	0.0	33.3	66.7	100.0
경기	(26)	3.8	7.7	11.5	50.0	38.5	88.5
인천/강원	(9)	0.0	11.1	11.1	88.9	0.0	88.9
충청	(19)	0.0	15.8	15.8	63.2	21.1	84.2
전라/제주	(8)	0.0	0.0	0.0	75.0	25.0	100.0
경상	(54)	0.0	7.4	7.4	59.3	33.3	92.6

바. 향후 신청 의사

-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제도를 모른다고 응답한 590명을 대상으로 신청할 의향을 질문하였음. 현재 이 제도는 지자체의 지원 가용 예산에 따라 조기 종료된 지역도 있고, 진행 중인 지역도 있는데, 종료된 지역의 경우 후술할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으로 안내를 해주므로, 이와 연계해서 해석해야 할 것임.
- 대상자 중 신청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근로자는 65.3%로 제도에 대한 잠재적 수요가 매우 높음. 특히 방과후학교 강사는 거의 100%에 가까운 근로자가 신청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

하였고, 나머지 두 개 직업의 경우 가사서비스 67.1%, 아이돌보미 60.1%의 순으로 신청 의향을 나타냈음.

- 연령별로 보면 연령이 젊을수록 신청 의향 비율이 높아짐을 알 수 있고, 학력별로는 전문대졸이 72.7%로 가장 높았으며 고졸이 63.4%, 대졸 이상이 61.6%로 가장 낮았음. 배우자 유무에 대해서는 무배우자의 비율이 약간 높았으나 큰 차이는 아님.
- 지역별로 보면 경기지역이 75.0%로 가장 높았고, 서울 68.1%, 경상 65.7%, 충청 64.7%, 인천/강원 63.3%, 전라/제주 55.9%로 방과후학교 강사들이 주로 분포한 수도권 지역에서의 수요가 높았음.

〈표 II-2-7〉 [코로나19 정부 일자리 지원 정책]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신청 의향

(단위: %)

	전체(명)	신청할 의향이 있다	신청할 의향이 없다
전체	(590)	65.3	34.7
가사서비스	(207)	67.1	32.9
아이돌보미	(341)	60.1	39.9
방과후학교 강사	(42)	97.6	2.4
20-30대	(10)	100.0	0.0
40대	(86)	70.9	29.1
50대	(315)	64.4	35.6
60대 이상	(179)	62.0	38.0
중졸 이하	(62)	67.7	32.3
고졸	(328)	63.4	36.6
전문대졸	(99)	72.7	27.3
대졸 이상	(99)	61.6	38.4
모름/무응답	(2)	100.0	0.0
유배우	(483)	64.6	35.4
무배우	(107)	68.2	31.8
서울	(94)	68.1	31.9
경기	(116)	75.0	25.0
인천/강원	(60)	63.3	36.7
충청	(34)	64.7	35.3
전라/제주	(143)	55.9	44.1
경상	(143)	65.7	34.3

3.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가. 정책 개요

- 기간: 2020년 6월 1일 ~
- 내용: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3~4월 사이 소득, 매출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2020년 3~5월 사이에 무급휴직을 한 근로자를 위해, 신청 기간 중 한 번만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신청인 본인 계좌로 신청 2주 이내 100만 원 지급, 추가 예산을 확보 후 7월 중 50만 원 지급, 총 150만 원을 신청자에게 지급
- 신청요건: 특고, 프리랜서의 경우 2019년 12월~2020년 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했으며, 고용보험 미가입자여야 하고, 지원금을 받기 위해선 가구소득(주민등록표 2020년 5월 7일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이 중위 150% 이하, 신청자 개인 연소득(2019년 과세대상 소득 기준)이 7,000만 원 이하, 신청인 개인 연매출(2019년 과세대상 소득 기준)이 2억 원 이하, 이 3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이 되면서 2020년 3~4월 평균 소득, 매출이 비교 대상 기간과 대비해 일정 수준 이상 감소해야 함. 기존 지원금에 대해 차액수혜 가능

나. 인지도

-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인지 여부를 조사했는데, 6월 1일부터 시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53.3%로, 각각 32.7%와 46.2%의 인지도를 보인 앞의 두 정책에 비해 비교적 인지도가 높았음.
 - 특히 방과후학교 강사의 비율이 96.4%로 압도적으로 높는데 반해 가사서비스 근로자는 33.8%, 아이돌보미는 38.2%로 전술한 두 정책에 비해 소폭 인지도가 올라감.
 - 방과후학교 강사의 비율이 높은 20-40대, 대졸 이상의 인지도가 매우 높고, 지역별로는 충청 지역이 60%로 가장 높았음. 반면 전라/제주와 인천/강원은 각각 31.3%, 43.9%로 가장 낮은 비율을 나타냄.

〈표 II-3-1〉 [코로나19 정부 일자리 지원 정책]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인지 여부

(단위: %)

	전체(명)	모른다	알고 있다
전체	(1,096)	46.7	53.3
가사서비스	(290)	66.2	33.8
아이돌보미	(500)	61.8	38.2
방과후학교 강사	(306)	3.6	96.4
20-30대	(71)	11.3	88.7
40대	(266)	22.9	77.1
50대	(507)	54.2	45.8
60대 이상	(252)	66.7	33.3
중졸 이하	(83)	71.1	28.9
고졸	(463)	63.9	36.1
전문대졸	(205)	40.0	60.0
대졸 이상	(333)	22.5	77.5
모름/무응답	(12)	0.0	100.0
유배우	(884)	47.1	52.9
무배우	(212)	45.3	54.7
서울	(189)	39.2	60.8
경기	(237)	39.2	60.8
인천/강원	(107)	50.5	49.5
충청	(85)	32.9	67.1
전라/제주	(208)	61.5	38.5
경상	(270)	50.0	50.0

다. 신청여부

○ 제도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신청여부(또는 예정)에 대해 조사하였는데, 이미 신청했거나 신청할 예정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64.7%로, 6.7%와 35.6%의 비율을 보인 생활안정자금 용자,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남.

- 인지도와 마찬가지로 제도에 대한 수요 역시 방과후학교 강사들에게 있어 압도적으로 높아 신청했거나 신청예정이라는 응답이 90.2%에 달함. 반면 아이돌보미는 신청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70.2%이고, 가사서비스는 56.1%만이 신청했거나 신청할 예정이라고 응답함.
- 아이돌보미 근로자는 전술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과 마찬가지로 인지도나 신청 등이 매우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상세한 원인 파악이 필요함.
- 정책 수요에 있어 직업 유형 간 극단적인 분포를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연령에 있어서도 40대 이하와 50대 이상이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데, 40대 이하는 80% 대의 신청(예정) 비율을

보인 반면 50대는 51.7%, 60대 이상은 41.7%의 비율을 보임. 학력의 경우도 마찬가지로여서 신청(예정) 비율이 대졸 이상은 79.8%, 전문대졸은 65.9%의 분포를 나타낸 반면 고졸 이하는 40% 대의 비율을 나타냄.

-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인지도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데, 충청지역의 신청(예정) 비율이 82.5%로 가장 높고, 경기도가 75.0%, 서울 67.0%, 경상 63.7%, 인천/강원 50.9%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라/제주는 41.3%에 불과하여 충청이나 수도권 지역과 큰 격차를 보였음.

〈표 II-3-2〉 [코로나19 정부 일자리 지원 정책]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여부 (단위: %)

	전체(명)	신청했거나 신청할 예정이다	신청하지 않을 것이다
전체	(584)	64.7	35.3
가사서비스	(98)	56.1	43.9
아이돌보미	(191)	29.8	70.2
방과후학교 강사	(295)	90.2	9.8
20-30대	(63)	88.9	11.1
40대	(205)	81.5	18.5
50대	(232)	51.7	48.3
60대 이상	(84)	41.7	58.3
중졸 이하	(24)	45.8	54.2
고졸	(167)	41.3	58.7
전문대졸	(123)	65.9	34.1
대졸 이상	(258)	79.8	20.2
모름/무응답	(12)	91.7	8.3
유배우	(468)	65.0	35.0
무배우	(116)	63.8	36.2
서울	(115)	67.0	33.0
경기	(144)	75.0	25.0
인천/강원	(53)	50.9	49.1
충청	(57)	82.5	17.5
전라/제주	(80)	41.3	58.8
경상	(135)	63.7	36.3

○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신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질문하였는데, 81.1%가 지원 대상에 해당이 안된다고 응답하였고, 15.0%가 신청절차가 까다로워서 포기하였다고 응답하였음.

- 직업별로 보면 분포의 차이가 보이는데, 가사서비스의 경우 신청절차가 까다로워서 포기

하였다는 응답이 27.9%로 타 직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 보면 서울과 경기 지역이 신청절차가 까다로워서 포기하였다는 응답이 각각 21.1%와 19.4%로 비교적 높았음.

〈표 II-3-3〉 [코로나19 정부 일자리 지원 정책]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하지 않은 이유 (단위: %)

	전체(명)	지원 대상에 해당이 안 됨	신청절차가 까다로워서 포기함	기타
전체	(206)	81.1	15.0	3.9
가사서비스	(43)	65.1	27.9	7.0
아이돌보미	(134)	85.8	10.4	3.7
방과후학교 강사	(29)	82.8	17.2	0.0
20-30대	(7)	71.4	28.6	0.0
40대	(38)	81.6	18.4	0.0
50대	(112)	82.1	13.4	4.5
60대 이상	(49)	79.6	14.3	6.1
중졸 이하	(13)	53.8	38.5	7.7
고졸	(98)	80.6	13.3	6.1
전문대졸	(42)	83.3	14.3	2.4
대졸 이상	(52)	86.5	13.5	0.0
모름/무응답	(1)	100.0	0.0	0.0
유배우	(164)	81.7	13.4	4.9
무배우	(42)	78.6	21.4	0.0
서울	(38)	76.3	21.1	2.6
경기	(36)	75.0	19.4	5.6
인천/강원	(26)	84.6	7.7	7.7
충청	(10)	90.0	10.0	0.0
전라/제주	(47)	80.9	14.9	4.3
경상	(49)	85.7	12.2	2.0

라. 수혜 여부

- 다음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했거나 신청할 예정인 378명을 대상으로 수혜 여부를 질문하였음. 신청을 받은지 10일이 채 안된 시점에서 조사가 시작되었으므로 신청 후 대기자와 신청 예정인 근로자가 상당수 '지원받지 못함'으로 분류되었음을 고려해 해석해야 함. 조사시점에서 신청자 중 지원받았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19.3%로 나타남.

- 가사서비스 근로자의 경우 34.5%가 지원을 받았다고 응답하였고, 아이돌보미는 15.8%,

방과후학교 강사는 16.9%의 수혜율을 나타냄.

- 지역별로 보면 신청자가 27명으로 가장 적은 인천/강원 지역을 제외하면 경상 지역이 23.3%로 가장 수혜율이 높고, 경기 18.5%, 서울 16.9%, 전라/제주 15.2%, 충청 14.9%의 순으로 나타남.

〈표 II-3-4〉 [코로나19 정부 일자리 지원 정책]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수혜 여부 (단위: %)

	전체(명)	지원 받음	지원 받지 못 함
전체	(378)	19.3	80.7
가사서비스	(55)	34.5	65.5
아이돌보미	(57)	15.8	84.2
방과후학교 강사	(266)	16.9	83.1
20-30대	(56)	10.7	89.3
40대	(167)	19.8	80.2
50대	(120)	17.5	82.5
60대 이상	(35)	37.1	62.9
중졸 이하	(11)	36.4	63.6
고졸	(69)	24.6	75.4
전문대졸	(81)	18.5	81.5
대졸 이상	(206)	18.0	82.0
모름/무응답	(11)	0.0	100.0
유배우	(304)	21.4	78.6
무배우	(74)	10.8	89.2
서울	(77)	16.9	83.1
경기	(108)	18.5	81.5
인천/강원	(27)	29.6	70.4
충청	(47)	14.9	85.1
전라/제주	(33)	15.2	84.8
경상	(86)	23.3	76.7

○ 신청했거나 신청 예정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받지 못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신청할 예정이라는 응답이 38.0%이고, 신청 후 대기 중이라는 응답이 26.6%로 나타남. 나머지 30.2%는 지원 대상에 해당이 안되었다고 응답하였고, 5.2%는 서류증명을 못해서 탈락하였다고 응답함.

- 특히 서류증명을 못해서 탈락했다는 비율이 가사서비스는 13.9%, 아이돌보미는 8.3%로 3.2%인 방과후학교 강사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임.
- 인터넷이나 모바일기기 등의 사용이 불편한 고연령대 근로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직업군에서

서류증명을 못해 탈락했다는 비율이 높다는 사실은 서류증명 과정을 좀 더 수요자 중심으로 신속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줌. 50대 이상 고연령대 및 고졸 학력 근로자들의 서류 증명 미비로 인한 탈락자 비율이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 매우 큰 편차를 보이는데, 지원 대상에 해당이 안된다는 응답이 전라/제주는 67.9%인데 반해 충청지역은 17.5%에 불과하여 극단적인 분포를 보임. 서류증명을 못해서 탈락했다는 비율은 인천/강원, 충청 지역에서 비교적 비율이 높게 나타남(인천/강원 15.8%, 충청 12.5%)

〈표 II-3-5〉 [코로나19 정부 일자리 지원 정책]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지원받지 못한 이유 (단위: %)

	전체(명)	신청할 예정임	지원 대상에 해당이 안 됨	신청 후 대기 중임	서류 증명을 못해서 탈락함
전체	(305)	38.0	30.2	26.6	5.2
가사서비스	(36)	44.4	36.1	5.6	13.9
아이돌보미	(48)	29.2	62.5	0.0	8.3
방과후학교 강사	(221)	38.9	22.2	35.7	3.2
20-30대	(50)	42.0	12.0	44.0	2.0
40대	(134)	33.6	26.1	36.6	3.7
50대	(99)	42.4	41.4	8.1	8.1
60대 이상	(22)	36.4	45.5	9.1	9.1
중졸 이하	(7)	57.1	42.9	0.0	0.0
고졸	(52)	34.6	48.1	3.8	13.5
전문대졸	(66)	36.4	31.8	28.8	3.0
대졸 이상	(169)	39.6	24.3	32.5	3.6
모름/무응답	(11)	27.3	18.2	45.5	9.1
유배우	(239)	35.6	33.1	26.4	5.0
무배우	(66)	47.0	19.7	27.3	6.1
서울	(64)	34.4	32.8	31.3	1.6
경기	(88)	40.9	25.0	28.4	5.7
인천/강원	(19)	36.8	31.6	15.8	15.8
충청	(40)	45.0	17.5	25.0	12.5
전라/제주	(28)	28.6	67.9	3.6	0.0
경상	(66)	37.9	25.8	33.3	3.0

마. 도움 정도

-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수령한 응답자 73명을 대상으로 도움 정도를 질문하였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이 87.7%로 나타남
 - 직업별로 보면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 비율이 아이돌보미 근로자들의 경우 77.8%로 가장 낮음.
 - 연령별로는 40대가 90.9%로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았고, 전문대나 대졸보다는 고졸 학력 근로자들이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남.
 - 또한 배우자 유무에 대해서는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의 경우 도움이 되었다는 비율이 75.0%로 나타나 유배우자(89.2%)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무배우자인 경우 소득액 급감이 커서 지원금액의 체감효과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됨.

〈표 II-3-6〉 [코로나19 정부 일자리 지원 정책]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도움 정도

(단위: %)

	전체 (명)	그다지 도움이 안 됨	①+② 도움이 안 됨	약간 도움이 됨	매우 도움이 됨	③+④ 도움이 됨
전체	(73)	12.3	12.3	52.1	35.6	87.7
가사서비스	(19)	10.5	10.5	57.9	31.6	89.5
아이돌보미	(9)	22.2	22.2	33.3	44.4	77.8
방과후학교 강사	(45)	11.1	11.1	53.3	35.6	88.9
20-30대	(6)	16.7	16.7	50.0	33.3	83.3
40대	(33)	9.1	9.1	51.5	39.4	90.9
50대	(21)	14.3	14.3	52.4	33.3	85.7
60대 이상	(13)	15.4	15.4	53.8	30.8	84.6
중졸 이하	(4)	0.0	0.0	75.0	25.0	100.0
고졸	(17)	5.9	5.9	64.7	29.4	94.1
전문대졸	(15)	20.0	20.0	33.3	46.7	80.0
대졸 이상	(37)	13.5	13.5	51.4	35.1	86.5
유배우	(65)	10.8	10.8	52.3	36.9	89.2
무배우	(8)	25.0	25.0	50.0	25.0	75.0
서울	(13)	7.7	7.7	46.2	46.2	92.3
경기	(20)	15.0	15.0	45.0	40.0	85.0
인천/강원	(8)	0.0	0.0	62.5	37.5	100.0
충청	(7)	0.0	0.0	71.4	28.6	100.0
전라/제주	(5)	40.0	40.0	20.0	40.0	60.0
경상	(20)	15.0	15.0	60.0	25.0	85.0

바. 향후 신청 의사

- 마지막으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던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향후 신청할 의향이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신청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이 72.1%를 나타내 전술한 두 개의 제도에 비해 수요가 매우 높게 나타남(생활안정자금 용자 55.3%,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65.3%).
- 직업별로 보면 방과후학교 강사 11명 중 10명이 신청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가사서비스는 77.6%, 아이돌보미는 68.0%만이 신청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배우자 유무에 따른 수요를 보면 무배우자의 83.3%가 신청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69.5%인 유배우자보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의향이 높았음.

〈표 II-3-7〉 [코로나19 정부 일자리 지원 정책]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의향

(단위: %)

	전체(명)	신청할 의향이 있다	신청할 의향이 없다
전체	(512)	72.1	27.9
가사서비스	(192)	77.6	22.4
아이돌보미	(309)	68.0	32.0
방과후학교 강사	(11)	90.9	9.1
20-30대	(8)	87.5	12.5
40대	(61)	67.2	32.8
50대	(275)	71.3	28.7
60대 이상	(168)	74.4	25.6
중졸 이하	(59)	79.7	20.3
고졸	(296)	73.0	27.0
전문대졸	(82)	69.5	30.5
대졸 이상	(75)	65.3	34.7
유배우	(416)	69.5	30.5
무배우	(96)	83.3	16.7
서울	(74)	68.9	31.1
경기	(93)	77.4	22.6
인천/강원	(54)	75.9	24.1
충청	(28)	78.6	21.4
전라/제주	(128)	63.3	36.7
경상	(135)	75.6	24.4

4. 코로나19 전후 삶의 만족도

- 다음은 주관적인 삶의 만족도 수준을 지난 1년 전과 비교하였는데, 건강, 일자리, 가계재무 상태, 가족관계, 친구관계,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등 총 6가지 영역에 대해 질문하였고, 0점에서 10점 까지 구간을 설정하여 만족도가 높을수록 점수가 높아지도록 설문지를 구성하였음.
- 먼저 건강수준에 대한 만족도 변화를 측정하였는데, 현재의 건강수준은 6.1점으로 보통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며, 지난 1년과 비교하면 0.6점 감소하였음.
 - 아이돌보미나 방과후학교 강사의 현재 만족도는 6.3으로 동일하고, 가사서비스는 그보다 낮은 5.5점이지만 1년 전과 비교하면 방과후학교 강사의 감소폭이 -0.9점으로 더 큼.
 - 연령별로 보면 40대와 20-30대가 각각 -0.8, -0.7의 변화를 보여 젊은 연령대의 근로자가 느끼는 건강 만족도 감소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고, 학력별로는 대졸 이상 근로자의 감소폭이 -0.7로 가장 컸음.
 - 배우자 유무에 따라서는 무배우자의 건강 만족도 저하가 더 크게 나타났고,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가 거의 없었음.

〈표 II-4-1〉 삶의 만족도 - 건강수준

(단위: 점)

	전체(명)	작년(A)	현재(B)	증감(B-A)
전체	(1,096)	6.7	6.1	-0.6
가사서비스	(290)	5.9	5.5	-0.4
아이돌보미	(500)	6.7	6.3	-0.4
방과후학교 강사	(306)	7.2	6.3	-0.9
20-30대	(71)	7.5	6.8	-0.7
40대	(266)	7.0	6.2	-0.8
50대	(507)	6.4	5.9	-0.5
60대 이상	(252)	6.6	6.3	-0.3
중졸 이하	(83)	5.8	5.2	-0.6
고졸	(463)	6.4	6.0	-0.4
전문대졸	(205)	7.1	6.5	-0.6
대졸 이상	(333)	7.0	6.3	-0.7
모름/무응답	(12)	7.3	7.1	-0.2
유배우	(884)	6.7	6.2	-0.5
무배우	(212)	6.4	5.7	-0.7
서울/경기/인천	(486)	6.7	6.1	-0.6
수도권 이외	(610)	6.6	6.1	-0.5

○ 다음은 일자리에 대한 만족도 변화를 조사하였는데, 일자리에 대해 현재 느끼는 만족 수준은 3.6으로 매우 불만족과 보통의 중간으로 나타났고, 작년과 비교하면 2.2점이나 하락하여 전술한 건강 수준을 기준으로 하면 만족도 저하가 매우 크게 나타남.

- 직업 유형별로 보면 작년의 경우 방과후학교 강사의 일자리 만족도는 6.7점으로 가사서비스 5.9점과 아이돌보미 6.9점보다 높았으나 현재 방과후학교 강사의 일자리 만족도는 2.1점으로 무려 4.6점 감소하여 각각 1.2점, 1.1점 감소한 타 유형에 비해 만족도 저하가 크게 나타남.
- 방과후학교 강사의 일자리 만족도 저하는 연령 및 학력별 근로자 만족도에도 그대로 이어져, 연령이 낮고,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일자리 만족도 저하가 크게 나타남.
-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에서의 만족도 저하가 크게 나타남.

〈표 II-4-2〉 삶의 만족도 - 일자리

(단위: 점)

	전체(명)	작년	현재	증감(B-A)
전체	(1,096)	5.8	3.6	-2.2
가사서비스	(290)	5.9	4.7	-1.2
아이돌보미	(500)	5.1	4.0	-1.1
방과후학교 강사	(306)	6.7	2.1	-4.6
20-30대	(71)	6.7	2.3	-4.4
40대	(266)	6.4	2.8	-3.6
50대	(507)	5.4	3.9	-1.5
60대 이상	(252)	5.5	4.4	-1.1
중졸 이하	(83)	5.4	4.1	-1.3
고졸	(463)	5.5	4.4	-1.1
전문대졸	(205)	5.8	3.4	-2.4
대졸 이상	(333)	6.2	2.7	-3.5
모름/무응답	(12)	6.6	3.2	-3.4
유배우	(884)	5.8	3.7	-2.1
무배우	(212)	5.9	3.4	-2.5
서울/경기/인천	(486)	6.0	3.3	-2.7
수도권 이외	(610)	5.6	3.9	-1.7

○ 일자리 만족도와 연결되는 사항으로 가계 재무상태에 대한 만족도 변화를 측정하였는데, 일자리 만족도 변화와 비슷한 양상을 보임. 즉 작년의 경우 보통을 약간 상회하는 5.3점이었으나 현재 비교적 불만족스러운 3.0점으로 2.3점이나 하락함.

- 직업 유형별로 보면 역시 방과후학교 강사의 만족도 저하 폭이 매우 크게 나타나 작년 6.2점에서 무려 5점이나 감소한 평균 1.2점으로 나타남.
- 연령, 학력, 지역 역시 일자리 만족도와 같은 패턴을 보임.

〈표 II-4-3〉 삶의 만족도 - 가계 재무상태

(단위: 점)

	전체(명)	작년	현재	증감(B-A)
전체	(1,096)	5.3	3.0	-2.3
가사서비스	(290)	4.9	3.7	-1.2
아이돌보미	(500)	4.9	3.7	-1.2
방과후학교 강사	(306)	6.2	1.2	-5.0
20-30대	(71)	6.6	1.4	-5.2
40대	(266)	5.8	2.1	-3.7
50대	(507)	4.9	3.4	-1.5
60대 이상	(252)	4.9	3.7	-1.2
중졸 이하	(83)	4.6	3.5	-1.1
고졸	(463)	5.0	3.7	-1.3
전문대졸	(205)	5.4	2.8	-2.6
대졸 이상	(333)	5.8	2.1	-3.7
모름/무응답	(12)	6.3	1.7	-4.6
유배우	(884)	5.3	3.2	-2.1
무배우	(212)	5.0	2.3	-2.7
서울/경기/인천	(486)	5.4	2.6	-2.8
수도권 이외	(610)	5.1	3.3	-1.8

○ 일자리나 가계재무상태 등 경제상황의 악화는 가족이나 친구와 같은 사회적 관계를 악화시키는 결과 역시 초래함. 가족관계에 대한 만족도 변화를 보면 7.1점에서 6.6점으로 0.5점 하락하였고, 친구관계 역시 7.0점에서 6.3점으로 0.7점 하락함.

- 직업유형별로 보면 방과후학교 강사의 만족도 저하가 타 직업 유형에 비해 큰 폭으로 나타났고, 20-40대의 젊은 연령대, 대졸 이상의 고학력 근로자의 만족도 저하 폭이 크게 나타남.

〈표 II-4-4〉 삶의 만족도 - 가족관계

(단위: 점)

	전체(명)	작년	현재	증감(B-A)
전체	(1,096)	7.1	6.6	-0.5
가사서비스	(290)	6.5	6.3	-0.2
아이돌보미	(500)	7.0	6.8	-0.2
방과후학교 강사	(306)	7.7	6.7	-1.0
20-30대	(71)	7.9	7.1	-0.8
40대	(266)	7.5	6.7	-0.8
50대	(507)	7.0	6.6	-0.4
60대 이상	(252)	6.6	6.4	-0.2

	전체(명)	작년	현재	증감(B-A)
전체	(1,096)	7.1	6.6	-0.5
중졸 이하	(83)	5.9	5.5	-0.4
고졸	(463)	6.9	6.6	-0.3
전문대졸	(205)	7.4	6.8	-0.6
대졸 이상	(333)	7.5	6.8	-0.7
모름/무응답	(12)	7.8	7.2	-0.6
유배우	(884)	7.2	6.7	-0.5
무배우	(212)	6.5	6.0	-0.5
서울/경기/인천	(486)	7.2	6.6	-0.6
수도권 이외	(610)	7.0	6.6	-0.4

〈표 II-4-5〉 삶의 만족도 - 친구관계

(단위: 점)

	전체(명)	작년	현재	증감(B-A)
전체	(1,096)	7.0	6.3	-0.7
가사서비스	(290)	6.3	5.8	-0.5
아이돌보미	(500)	7.0	6.7	-0.3
방과후학교 강사	(306)	7.6	6.1	-1.5
20-30대	(71)	7.8	6.7	-1.1
40대	(266)	7.3	6.2	-1.1
50대	(507)	6.9	6.3	-0.6
60대 이상	(252)	6.7	6.3	-0.4
중졸 이하	(83)	6.4	5.5	-0.9
고졸	(463)	6.8	6.4	-0.4
전문대졸	(205)	7.2	6.3	-0.9
대졸 이상	(333)	7.4	6.3	-1.1
모름/무응답	(12)	7.7	7.3	-0.4
유배우	(884)	7.1	6.4	-0.7
무배우	(212)	6.7	5.8	-0.9
서울/경기/인천	(486)	7.0	6.1	-0.9
수도권 이외	(610)	7.0	6.4	-0.6

○ 마지막으로 전반적 삶의 만족도의 변화를 살펴보았는데, 현재 평균 5.2점인 보통 수준으로 작년 6.7점에서 1.5점 하락함

- 직업 유형별로 보면 방과후학교 강사가 작년 7.5에서 3.9로 만족함에서 불만족으로 3.6점 하락한 것에 비해 가사서비스와 아이돌보미 근로자는 각각 0.7점 하락하였음.

- 연령과 학력에 있어서도 전술한 항목과 비슷한 패턴을 보였는데 20-40대, 대졸 이상 근로자의 만족도 하락이 크게 나타났음.
- 한편 유배우자보다는 무배우자가, 비수도권보다는 수도권 근로자의 전반적 생활 만족도 하락폭이 크게 나타남.

〈표 II-4-6〉 전반적 삶의 만족도

(단위: 점)

	전체(명)	작년	현재	증감(B-A)
전체	(1,096)	6.7	5.2	-1.5
가사서비스	(290)	6.0	5.3	-0.7
아이돌보미	(500)	6.7	6.0	-0.7
방과후학교 강사	(306)	7.5	3.9	-3.6
20-30대	(71)	7.7	4.3	-3.4
40대	(266)	7.3	4.5	-2.8
50대	(507)	6.6	5.5	-1.1
60대 이상	(252)	6.3	5.6	-0.7
중졸 이하	(83)	5.9	5.0	-0.9
고졸	(463)	6.4	5.7	-0.7
전문대졸	(205)	7.1	5.2	-1.9
대졸 이상	(333)	7.2	4.6	-2.6
모름/무응답	(12)	7.4	5.1	-2.3
유배우	(884)	6.9	5.4	-1.5
무배우	(212)	6.2	4.3	-1.9
서울/경기/인천	(486)	6.7	4.8	-1.9
수도권 이외	(610)	6.8	5.5	-1.3

- 1년 전과 비교하면 방과후학교 강사의 삶의 만족도 수준이 매우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특히 일자리 및 가계 재무상태의 만족도와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는 '만족'에서 '불만족' 수준으로 급락한 패턴을 확인할 수 있었음.
- 방과후학교 강사가 젊은 연령대 및 대졸 이상의 전문직일 가능성이 높은 직업군임을 가정할 때 이들 집단의 일자리 및 소득의 상실로 인한 박탈감과 경제적 충격이 더욱 클 것이라는 예상을 가능하게 함.

5. 소결 및 정책적 시사점

- 본 조사에서는 가사서비스, 아이돌보미, 방과후학교 강사 등 세 가지 유형의 특고·프리랜서 대면 직업군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이후 긴급하게 확대 또는 신규 추진되고 있는 대표적인 일자리 재정지원 정책(생활안정자금 용자,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에 대한 인지도 및 수요 등을 조사하고, 영역별 삶의 만족도 변화를 1년 전과 비교하여 질문하였음.

- 연령 및 학력, 혼인상태, 근무지역 분포
 - 가사서비스 및 아이돌보미는 50대 이상이, 방과후학교 강사는 40대 이하가 다수를 차지함.
 - 학력의 경우 가사서비스와 아이돌보미는 고졸 이하가 각각 88.0%, 58.2%이고, 전문대졸이 각각 7.6%, 22.2%인데 반해 방과후학교 강사는 전문대졸이 23.5%, 4년제 이상이 72.5%임.
 - 혼인상태의 경우 차이는 미미한데, 유배우자 비율이 아이돌보미에게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근무지역에 있어서, 방과후학교 강사는 수도권 근무가 61.6%, 아이돌보미는 수도권 이외가 68.8%이며, 가사서비스는 비슷한 분포를 보임.
 - 방과후학교 강사는 타 직업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학력, 젊은 연령대의 비중이 높고, 수도권 근무 비율이 높은 특징을 보임.
 - 각 직업군에 따라 인적사항 분포가 편중되어 나타나므로 제도의 인지도, 신청률, 수혜율 등의 인적사항별 분포 역시 직업별 분포와 비슷한 경향을 나타냄.

- 제도 인지도
 - ‘생활안정자금 용자’를 안다는 응답자는 조사대상 근로자 중 32.7%에 불과하여 제도 인지도는 매우 낮았고, 직업별로 보면 방과후학교 강사의 인지도가 40.8%로 가장 높고, 아이돌보미 30.6, 가사서비스 27.6%의 순으로 나타남.
 - ‘코로나 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을 알고 있다는 비율은 46.2%이고, 전반적으로 인지도가 낮았던 ‘생활안정자금 용자’와 비교하여 비슷하게 가사서비스나 아이돌보미 근로자 역시 낮은 인지도를 보였으나(28.6%, 31.8%), 방과후학교 강사의 경우 86.3%의 높은 인지도를 나타냄. 지역별로 충청(60.0%), 경기(51.1%), 서울(50.3%)에서의 인지율이 비교적 높은 반면, 전라/제주(31.3%), 인천/강원(43.9%)은 낮은 비율을 보임.
 -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알고 있다는 비율은 53.3%로 상기 두 정책에 비해 비교적 인지도가 높고, 특히 방과후학교 강사의 비율이 96.4%로 압도적으로 높는데 반해 가사서비스 근로자는 33.8%, 아이돌보미는 38.2%에 불과함. 지역별로는 충청지역이 60%로 가장 높았고,

전라/제주와 인천/강원은 가장 낮음.

○ 신청 여부 및 미신청 사유

- '생활안정자금 용자' 제도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근로자 중 신청했다는 비율은 6.7%에 불과하고, 직업별 관계없이 신청비율이 매우 낮았는데 특히 20-30대 젊은 근로자들은 신청사례가 없었음.
- 신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방과후학교 강사는 '원하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61.5%로 다수를 차지한 반면, 가사서비스 및 아이돌보미는 '지원대상이 안됨'이라는 비율이 비슷하거나 지원대상이 안된다는 비율이 더 높았음. 방과후학교 강사의 경우 타 직업과 비교하여 20-40대 젊은 근로자의 비율이 높고 대졸 이상의 학력이 대부분인 점을 감안하면 자녀학자금이나 혼례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등의 명목으로 지원이 되는 용자의 필요성을 못느꼈거나 대출에 대한 부담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임.
- '지원 대상에 해당이 안됨'이라는 응답비율이 아이돌보미 및 가사서비스 직업에서 가장 높았는데 방과후학교 강사를 포함해 이 직업들은 보험설계사나 학습지교사와 달리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법외 특수형태근로자임. '생활안정자금 용자'는 특수형태근로자의 경우 소득 조건은 한시적으로 면제되지만 산재보험 적용자여야 하는 조건이 있어서 특수형태근로자 중에서도 조사 대상 근로자들은 사실상 이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음. 따라서 소득조건 적용 유예와 마찬가지로 용자 지원과 같은 정책에 대해 수요가 비교적 높은 아이돌보미, 가사서비스 직종, 50대 이상 고연령 근로자에 대해 산재보험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할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생활안정자금 용자' 제도의 인지도가 전반적으로 낮고(인지율 32.7%), 실제 신청한 비율이 6.7%에 불과해 제도에 대한 홍보나 신청요건 등 제도설계와 관련한 전반적인 실태 점검이 필요.
-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을 신청했다는 비율은 35.6%인데, 직업별로 큰 차이를 보여, 아이돌보미는 7.5%로 여전히 낮은 신청률을 나타냈고, 가사서비스는 28.9%, 방과후학교 강사는 54.5%가 신청하였음. 무배우자의 신청률이 높았고, 인지도가 높았던 충청, 경기, 서울보다 경상 지역의 신청률이 48.8%로 높게 나타났고, 인천/강원, 전라/제주는 각각 21.3%, 18.5%로 가장 신청률이 낮았음. 긴급 자금지원 정책인 까닭에 자치단체별로 우선순위에 따라 조건에 맞는 기준을 정하기 때문에 인지도나 신청 여부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신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지원 대상에 해당이 안됨'이라는 응답비율이 아이돌보미(76.2%)와 방과후학교 강사(70.0%)가 가사서비스(57.6%)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가사서비스 근로자는 '신청절차가 까다로워서 포기함'(27.1%)과 '신청방법을 몰라서'(4.6%)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했거나 신청할 예정인 비율은 64.7%로, 방과후학교 강사는 90.2%에 달하는 반면 아이돌보미는 신청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70.2%이고, 가사서비스는 56.1%만이 신청(예정)이라고 응답함. 아이돌보미 근로자는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과 마찬가지로 인지도나 신청여부에 있어 매우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상세한 원인 파악이 필요함.

○ 수혜 여부 및 비수혜 사유

- 생활안정자금 용자를 신청한 근로자 중 가사서비스나 아이돌보미는 70% 안팎의 수혜비율을 보인 반면 방과후학교 강사는 37.5%에 불과하였음. 방과후학교 강사가 집중된 40대 역시 14.3%로 매우 낮은 반면 50대는 80%, 60대 이상은 71.4%로 나타났고, 유배우자의 경우 절반을 약간 넘어, 소득조건이나 산재보험 적용 이외에도 연령이나 가족관계 등 비금전적 요건의 장벽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을 신청한 근로자 중 신청자가 매우 적은 아이돌보미(12명)는 41.7%로 수혜율이 가장 낮았고, 가사서비스는 87.5%, 방과후학교 강사는 66.7%의 수혜율을 보였음.
- 각 정책에 대해 신청한 근로자 중 수혜를 받지 못한 근로자들에 대해 받지 못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많았음.
 -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서류증명을 못해서 탈락했다는 비율이 가사서비스는 13.9%, 아이돌보미는 8.3%로 3.2%인 방과후학교 강사에 비해 높은 비율을 보임. 인터넷이나 모바일 기기 등의 사용이 불편한 고연령대 근로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직업군에서 서류증명의 어려움이 탈락의 주요한 사유임을 고려해 서류증명 과정을 좀 더 수요자 중심으로 신속하게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줌.

○ 제도의 도움이 된 정도

- 제도가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80% 이상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는데, 직업별로 보면 아이돌보미의 경우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이나 긴급 고용안정자금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타 직업군보다 10%p 낮은 비율을 나타내 정책의 만족도가 떨어짐.
- 긴급 고용안정자금의 경우 무배우자는 도움이 되었다는 비율이 75.0%로 유배우자(89.2%)보다 낮은것으로 나타났음. 무배우자인 경우 소득액 급감이 커서 지원금액의 체감효과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됨.

○ 향후 신청 의사

- 향후 생활안정자금 용자 신청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가사서비스 및 아이돌보미 근로자의 경우 약 50%가 신청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방과후학교 강사는 72.4%가 신청할 의향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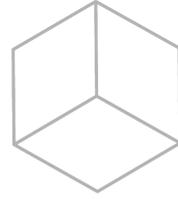
있다고 응답하였음.

- 전술한 바와 같이 제도를 인지하고 있는 방과후학교 강사의 경우 실제 신청한 비율은 6.4%에 불과하고, 신청하지 않은 이유의 상당수도 '원하지 않아서'인데도 제도를 인지하지 못했던 응답자의 72.4%가 신청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이유는 의문임. 생활안정자금 용자 제도가 지금 당장은 필요하지 않더라도 장기적 관점에서 필요성을 느꼈을 가능성, 제도를 인지하여 신청단계에서 부딪히는 장벽들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함.
-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제도에 대해 향후 신청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근로자는 65.3%로 제도에 대한 잠재적 수요가 매우 높음. 특히 방과후학교 강사는 거의 100%에 가까운 근로자가 신청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해 신청할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72.1%를 나타냈음. 직업군 중 아이돌보미는 68.0%만이 신청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여 가장 낮은 수요를 나타냈으며, 유배우자보다 무배우자의 신청 의향이 높았음.

○ 삶의 만족도

- 1년 전과 비교하면 모든 직업군에 걸쳐 건강, 경제, 사회적 관계 등 모든 영역에서 만족도가 하락하였음.
- 특히 방과후학교 강사의 삶의 만족도 수준이 매우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일자리 및 가계 재무상태의 만족도와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는 '만족'에서 '불만족' 수준으로 급락한 패턴을 확인할 수 있었음.
- 방과후학교 강사가 젊은 연령대 및 대졸 이상의 전문직일 가능성이 높은 직업군임을 가정할 때 이들 집단의 일자리 및 소득의 상실로 인한 박탈감과 경제적 충격이 더욱 클 것이라는 예상을 가능하게 함.

발표



토론

권현숙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아이돌봄분과 분과위원장)

김재순 (전국가정관리사협회 협회장)

김양지영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수)

박수옥 (방과후강사노조 경기지부장)

이윤아 (여성가족부 여성인력개발과 과장)



아이돌보미 코로나19 생계대책 시행 및 아이돌봄 국가책임제 도입 필요성

권현숙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아이돌봄분과 분과위원장)

1. 직종 소개 및 대략적인 근로조건

아이돌보미는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아이돌봄지원사업’ 종사자로 전국 2만3천여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직접적인 사용자는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같은 서비스제공기관(시·군·구 당 1개)임.

0세부터 만12세 이하까지의 아이를 돌보며 이용자가 서비스를 신청하면 서비스기관이 이용자와 아이돌보미를 연계해주는 방식으로 근무하며 이용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아이를 대상으로 돌봄 제공.

전체 아이돌보미 중 약 30%가 월 60시간 미만 근무. 시급은 8,600원으로 최저임금 수준이며 전체 평균임금은 90만원대에 불과한 저임금 돌봄노동자.

2. 코로나19 관련 아이돌보미 요구 관련 경과 및 아이돌보미 근로실태

지난 1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공공연대노동조합은 2월 말, 그리고 3월 초 두 차례의 의견서와 4월 17일 주무부서 면담, 그리고 여성가족부 장관께서 진행하는 간담회를 통해 입장을 밝힌 바 있음.

의견서를 통해서 감염병 확산에 따른 감염예방 물품 지급, 격리나 확진 시 근로조건 보호, 연계취소 등에 대한 대책 요구 등을 진행하였고 면담과 장관 간담회에서는 연계취소에 따른 생계지원 대책과 장기간의 발전 방향에 대해 설명한 바 있음.

그러나 여전히 코로나19 생계대책 관련하여 여성가족부는 정부 및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만을 가지고 있고 실질적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3차 추경안에도 포함되지 않음.

아이돌보미들은 코로나19 시기 감염에 대한 두려움과 연계취소로 인한 생계위협 두 가지와 싸우고 있으며 정부 방침에 따라 지속 근무를 한 만큼 반드시 코로나19 시기 생계지원 대책이 제시되어야 함.

더불어 2019년 10월 공공연대노동조합에서 진행한 아이돌보미 2,238명에 대한 실태조사에서도 “월 60시간 미만 근무한다”는 응답자가 32.74%로 나타났으며 “근무시간에 대해 만족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80.15%, 처우개선을 위해 시급한 과제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안정적 근무시간이 보장

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47.76%로 나타났다.

이러한 통계는 코로나19 시기 이전부터 불안정한 노동을 하고 있는 아이돌보미들에게 코로나19 발생은 생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근본적 변화가 필요함을 얘기하고 있음.

3. 아이돌보미 코로나19 연계취소 실태

정부는 휴원 및 휴교에 대해 이용가정이 늘어날 것을 대비해 아이돌보미들이 투입될 수 있도록 각종 대책을 마련했음.

그런데 현장에서는 정부 대책과 달리 오히려 코로나19 관련 이유로 연계 취소가 폭증했음.

지난 2월 말과 3월 초에 아이돌보미가 코로나 19 관련 연계취소 됐거나 연계 취소 예정인 건에 대한 전국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총 944건이 확인되었음

〈표 1〉 아이돌보미 코로나19 연계취소 건수

지역	연계취소 건수
서울	157
경기	130
인천	69
대구	6
부산	48
울산	96
광주	82
강원	108
충북	29
전북	118
경남	27
전남	50
미분류	24
합계	944

여성가족부에서 밝힌 통계에 따르면 1월 일평균 이용률 대비하여 3월2일 기준 66%로 이러한 실태가 객관적으로 확인됨

4. 문제점

아이돌보미는 코로나19 발생 이전부터 저임금 단시간 노동자로 근무시간도 불안정한 질 낮은 일자리였음.

이러한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대대적인 연계취소는 아이돌보미들에게 심각한 생계위협을 가중시켰고 일을 계속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게 만들었음.

여성가족부는 24시간 이내 연계취소에 대해서만 취소수수료를 아이돌보미에게 지급하여 실질적인 대책이 되지 못함(건당 9,890원으로 시간당 지급도 아님).

게다가 정부의 '특고 및 프리랜서 지원'을 비롯한 각종 대책에 해당하지 않아 사각지대에 있음. 이용자의 수요에 따라 근무하는 특성상 '휴직' 이나 '휴업'에도 해당되기 어려운 특징도 가지고 있음.

인천광역시외의 경우 '특고 및 프리랜서 지원'에 준해 연계취소 아이돌보미에 대해 지원하려 하였으나 결국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행 되지 않음.

5. 대책 및 요구

(1) 생계지원 대책 요구

예정되어 있던 연계취소 건에 대해서는 임금을 전액 지급하고 코로나19로 인해 근무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19년도 평균 근무시간 또는 코로나19 발생 이전 3개월 평균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임금 지급

* 불가능하지 않은 요구

지난 1월30일 여성가족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아이돌봄지원사업 관리 통보(2차)'를 통해 중국 방문 아이돌보미의 연계취소에 대해 급여(활동수당)를 모두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음. 현재 노동조합의 요구는 이러한 내용을 확장하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가능하고 적절함.



여성가족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아이돌봄지원사업 관리 통보(2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하여 아이돌봄지원사업에 관한 다음 사항을 추가(2차) 통보하오니, 각 센터 및 기관에서는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활동 및 서비스 이용 중지 관련

* 센터 및 대상자 등에 관련내용 유선으로 기 통보 조치 완료

(1) 중국 방문 아이돌보미(본인 또는 가족 포함)

구 분	기 준
아이돌보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3일 이후 귀국일 기준 최소 14일간 서비스 연계 중지, 예정되어 있던 연계건에 대하여는 급여 지급(지출과목-활동수당) · 서비스 제공 예정인 이용자에 대해 아이돌보미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자가 대체 아이돌보미를 원하지 않는 등으로 서비스 취소시 취소수수료 부과(24시간 이내 취소시)하나 이용제한 사유에는 미해당

더불어 한시적으로 2020년에는 코로나19 장기화를 대비하여 60시간 미만 근무자에게는 직무교육 등을 활용하여 최소 월60시간을 기준으로 임금 지급 할 것.

* 보건복지부 노인생활지원사의 경우 코로나19 시기 대면돌봄이 어려운 상황에서 간접서비스 및 온라인교육을 통해 주25시간의 근무시간을 모두 인정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한 사례가 있어 참고될 수 있음.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 단계 상황 관련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관리계획 안내

(20. 2. 24.(월), 노인정책과)

- (인력운용계획 수립) 직접서비스 최소화 조치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잔여근로시간*을 서비스 내실화를 위한 사전준비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필요

* 자가격리 중이라 하더라도 재택근무(유선안부확인) 및 보수교육(온라인교육) 이수 의무가 부여되지만 전체 근로시간(주25시간, 주40시간) 내에 잔여시간 발생

코로나19 관련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인력운용 방안

(20. 2. 25.(화), 노인정책과)

① 검토배경

○ 코로나19 관련 위기경보 '심각' 단계 상황에 따라 종사자 자가격리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간접서비스 중심으로 직접서비스 최소화(2.24~)

* 보건당국의 관리에 따른 자가격리 대상으로의 지정여부와 관계없이 **확진자·접촉자의 동선 중심으로 선제적으로 자가격리 실시**

- 이에 종사자의 잔여근로시간*을 교육 강화 등 서비스 내실화를 위한 사전준비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인력운용 방안 마련 필요

* 자가격리 중이라 하더라도 재택근무(유선안부확인) 및 보수교육(온라인교육) 이수 의무가 부여되지만 전체 근로시간(주25시간, 주40시간) 내에 잔여시간 발생

○ (생활지원사) 온라인 교육 수강 및 지역사회 노인돌봄 사각지대 완화

① 온라인 교육 수강 : 재택근무 중에 온라인 교육을 충실히 수강하고, 온라인 교육 미이수자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 예정

② 일시 긴급돌봄 지원* : 코로나19로 인해 보호자가 격리됨에 따라 권역 내 맞춤형돌봄대상자가 아닌 노인이 홀로 남게 되었을 때, 또는 복지관 등 시설 휴관에 따라 이용자 돌봄에 빈틈이 발생하였을 때 안부확인 등 필수 돌봄서비스 지원 필요*

* 코로나19 유행 대비 사회복지서비스 유지를 위한 공통대응지침(보건복지부)

③ 지역사회 노인돌봄 사각지대 발굴 : 서비스 미이용 어르신 중에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자를 발굴하여 시군구 및 수행기관에 의뢰하여 돌봄 사각지대 완화에 기여할 필요

⇒ 직접서비스 축소에 따라 생활지원사의 남은 근무시간을 충실하게 활용하여 교육수강, 일시긴급돌봄 지원, 지역사회 노인돌봄 사각지대 발굴에 기여한 우수생활지원사*에 대해서는 포상금 예정

* 시군구 담당자 및 광역관리자, 생활지원사 추천 등을 활용하여 선정

(2) 본질적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돌봄지원사업의 국가책임제와 아이돌보미 기본근무시간 보장

장기적으로 아이돌봄지원사업의 이용시간을 1,200시간으로 늘리고 이용자의 부담비율을 완화하거나 전면적으로 무상으로 해야 함. 코로나19 시기 휴원과 휴교에 대해 정부는 아이돌봄지원사업을 대안으로 제시하였으나 실질적 대책이 되지 못함(충북 사례를 보면 3월19일 기준 휴원에 대해 아이돌보미를 이용한다는 응답은 0.4%).

충청북도 3월20일 코로나19 대응 일일 상황보고

○ 어린이집 휴원 연장(3.22 → 4.5)

- 도내 어린이집 1,108개소 휴원
- 휴원에 따른 보육아동 돌봄현황 모니터링 결과(3.19.)

개소수	현원	긴급보육		어린이집등원 (긴급보육 이용)		부모 돌봄		친인척 돌봄		아이돌보미 이용	
		실시	미실시								
1,108	41,635	1,038	70	9,806	23.6%	28,216	67.7%	3,456	8.3%	157	0.4%

대안이 되지 못한 이유는 감염병에 대한 두려움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이용에 대한 비용부담 때문. 따라서 아이돌봄 국가책임제 도입이 필요함

그리고 일상적으로 30%의 아이돌보미들이 안정적 근무를 보장받지 못해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고 생계대책이 되지 못해 근무를 그만두는 아이돌보미들이 있음. 이러한 여건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연계취소는 아이돌보미들에게 더 큰 문제로 다가오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기본근무시간이 보장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음.

이용자의 수요에 따른 근무형태를 구조적으로 변경하지 않으면 아이돌봄지원사업의 안정화와 제대로 된 일자리는 요원할 것임. 불안정한 일자리 형태는 사회적 관계가 중요한 아동들에게도 부정적 요인이 될 것임.

군산시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 아이돌봄서비스 전액 지원

정규섭 기자 | bhaum2730@naver.com

[투데이안] 군산대학교가 군산시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군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군산시의 지원을 받아 지난 6일부터 별도 통보 시까지 아이돌봄서비스(종일제, 시간제 일반형)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어린이집·유치원의 무기한 개학연기에 따른 것이다.

지난 3월 2일부터 4월 3일까지 한 달 동안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들에게 1차 서비스 이용 요금을 완화한 데 이은 2차 지원이다.

전액지원 대상자는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3개월에서 만12세 이하 아동이다. 평일 8시부터 16시 사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에 한하며,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본인부담금을 군산사랑 모바일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1차 완화에 이어 2차 지원이 결정됨에 따라 서비스 이용가정은 서비스요금에 대한 부담을 덜고, 아이돌봄 서비스를 통해 일과 양육의 균형에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은 맞벌이, 야근, 아동의 질병 등으로 자녀 양육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방문해 임시보육, 학교·보육시설 등·하원지도, 놀이활동, 이유식·위생관리 등 가정에 필요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2007년부터 운영해 현재 200여 명의 아이돌보미가 활동하고 있다.

아이돌봄지원사업 이용을 원하면 아이돌봄홈페이지(<https://www.idolbom.go.kr>)에서 회원가입할 수 있고, 군산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단(☎ 063-443-2514~3)으로 문의하면 된다.

<별첨: 2019년 아이돌보미 고용 및 처우 관련 실태조사 결과>

2019년 아이돌보미 고용 및 처우 관련 실태조사 설문 결과

- 일시: 2019년 10월18일~20일(3일간)
- 대상: 아이돌보미 전체
- 주최: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 응답자: 아이돌보미 2,238명

2019년 아이돌보미 고용 및 처우 관련 실태조사 결과 월 60시간 미만 응답자가 총 32.74%로 최소한의 주휴수당도 지급받지 못하는 아이돌보미들이 3명 중 1명으로 안정적 근무시간이 필요함을 나타내고 있음.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부정적 응답(매우 부족하다, 부족하다)이 80.15%로 응답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아이돌보미들의 업무 성격상 근무시간이 곧 자기의 수입이 되기에 생계를 유지하기에 근무시간이 부족한 점을 나타낸 것임. 따라서 안정적 근무시간 마련을 위한 여성가족부의 대책이 필요함.

고용상태에 대한 부정적 응답(매우 불안하다, 불안하다)이 79.35%로 대부분의 아이돌보미들이 고용상태에 대해 불안감을 높게 느끼고 있었음. 아이돌봄지원사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을 여성가족부에서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함.

아이돌보미들에게 처우개선을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에 대해 질의한 결과 생활이 가능한 안정적 근무시간 보장 47.76%, 고용안정을 위한 대책 11.70%, 1만원의 시급인상 16.89%, 교통비 지급 7.81%, 수당 확대 15.81%로 응답함.

응답자 중 절반에 가까운 아이돌보미들이 안정적 근무시간에 대한 요구가 높아 일상적 생계에 대한 불안감을 엿볼 수 있음. 추후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에 대해 종합적인 방향과 방법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아이돌보미들에게 아이돌봄지원사업 발전을 위한 과제를 묻는 질문에는 매뉴얼 개발 및 교육 확대 3.79%, 아이돌보미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73.72%, 인원확충 0.88%, 현행 이용시간 확대 11.93%, 정부지원 대상 확대 10.45%로 응답함.

현재 근무하고 있는 아이돌보미들에게 무엇보다도 고용과 처우개선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나 (73.72%), 정부지원 대상 및 이용시간 확대에 대해서도 22.38%의 아이돌보미들이 응답한 것은 그만큼 현실에서 이용자들의 요구가 높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어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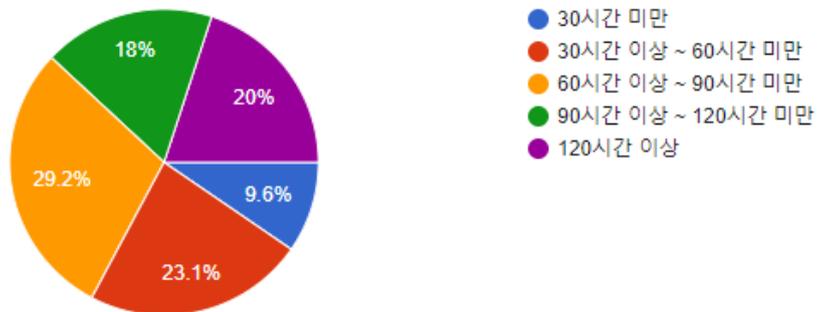
1. 아이돌보미 월 근무시간

아이돌보미의 월 근무시간에 대한 질의에 30시간 미만 9.6%, 30시간 이상 60시간 미만 23.14%, 60시간 이상 90시간 미만 29.22%, 90시간 이상 120시간 미만 18.00%, 120시간 이상 20.01%로 응답함.

60시간 미만 응답자가 총 32.74%로 최소한의 주휴수당도 지급받지 못하는 아이돌보미들이 3명 중 1명으로 안정적 근무시간이 필요함을 나타내고 있음.

1. 귀하의 월 근무시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응답 2,238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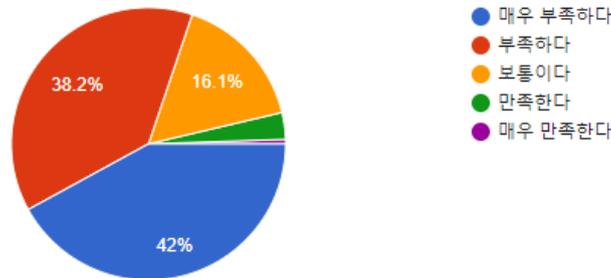
2. 근무시간에 대한 만족도

아이돌보미들에게 월 근무시간에 대한 만족도를 질의한 결과 매우 부족하다 42.00%, 부족하다 38.15%, 보통이다 16.13%, 만족한다 3.17%, 매우 만족한다 0.53%로 부정적 응답(매우 부족하다, 부족하다)이 80.15%로 응답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이러한 결과는 아이돌보미들의 업무 성격상 근무시간이 곧 자기의 수입이 되기에 생계를 유지 하기에 근무시간이 부족한 점을 나타낸 것임. 따라서 안정적 근무시간 마련을 위한 여성가족부의 대책이 필요함.

2. 귀하의 근무시간은 생활이 가능한 임금을 지급받을 정도로 충분하십니까?

응답 2,238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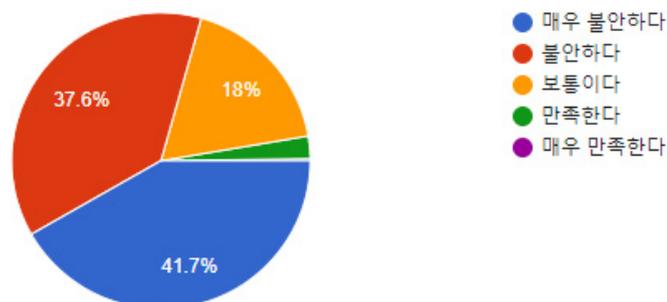
3. 고용상태에 대한 안정감

아이돌보미들에게 고용상태에 대해 질의한 결과 매우 불안하다 41.73%, 불안하다 37.62%, 보통이다 17.96%, 만족한다 2.45%, 매우 만족한다 0.22%로 응답함. 부정적 응답이 79.35%로 대부분의 아이돌보미들이 고용상태에 대해 불안감을 높게 느끼고 있었음.

이러한 결과는 아이돌봄지원사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을 여성가족부에서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음.

3. 귀하의 고용상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응답 2,238개



4.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을 위한 요구

아이돌보미들에게 처우개선을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에 대해 질의한 결과 생활이 가능한 안정적 근무시간 보장 47.76%, 고용안정을 위한 대책 11.70%, 1만원의 시급인상 16.89%, 교통비 지급 7.81%, 수당 확대 15.81%로 응답.

응답자 중 절반에 가까운 아이돌보미들이 안정적 근무시간에 대한 요구가 높아 일상적 생계에 대한 불안감을 엿볼 수 있음.

그리고 시급인상과 명절상여금, 보수교육비, 경력수당 등 수당확대에 대한 요구도 무시할 수 없으며, 고용안정과 교통비 지급에 대한 요구도 결코 낮지 않아 추후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에 대해 종합적인 방향과 방법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4.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입니까?

응답 2,238개



5. 아이돌봄지원사업 발전을 위한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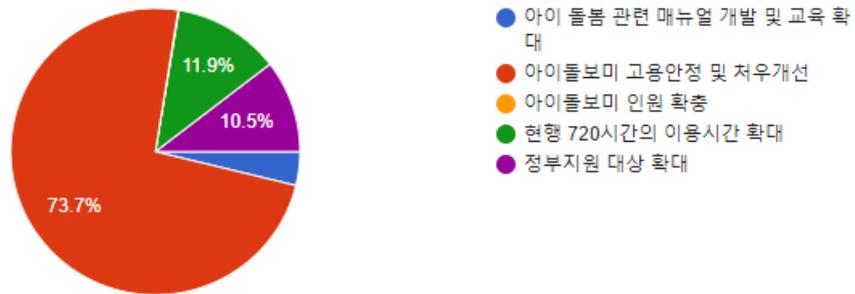
아이돌보미들에게 아이돌봄지원사업의 발전을 위한 과제는 묻는 질문에는 매뉴얼 개발 및 교육 확대 3.79%, 아이돌보미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73.72%, 인원확충 0.88%, 현행 이용시간 확대 11.93%, 정부지원 대상 확대 10.45%로 응답함.

현재 근무하고 있는 아이돌보미들에게 무엇보다도 고용과 처우개선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나 (73.72%), 정부지원 대상 및 이용시간 확대에 대해서도 22.38%의 아이돌보미들이 응답한 것은 그만큼 현실에서 이용자들의 요구가 높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어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다만 아이돌보미 확대에 대해서는 응답률이 저조한데 이는 안정적 근로시간과 처우가 열악한 현실에서 추가로 아이돌보미를 확대하는 것에 부정적 입장이 담겨 있어 정부차원에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5. 아이돌봄지원사업의 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되는 과제는 무엇입니까?

응답 2,238개



2019년 아이돌보미 고용 및 처우 관련 실태조사 설문

일시: 10월18일~20일(3일간)

대상: 아이돌보미 전체

1. 귀하의 월 근무시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 1) 30시간 미만
- 2) 30시간 이상~ 60시간 미만
- 3) 60시간 이상~ 90시간 미만
- 4) 90시간 이상~ 120시간 미만
- 5) 120시간 이상

2. 귀하의 근무시간은 생활이 가능한 임금을 지급받을 정도로 충분하십니까?

- 1) 매우 부족하다
- 2) 부족하다
- 3) 보통이다
- 4) 만족한다
- 5) 매우 만족한다.

3. 귀하의 고용상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불안하다
- 2) 불안하다
- 3) 보통이다
- 4) 만족한다
- 5) 매우 만족한다

4. 아이돌보미 처우개선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입니까?

- 1) 생활이 가능한 안정적 근무시간 보장
- 2) 고용안정을 위한 대책
- 3) 2020년 기준 1만원의 시급 인상
- 4) 교통비 지급
- 5) 명절상여금, 보수교육비, 경력수당 등 수당 확대

5. 아이돌봄지원사업의 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되는 과제는 무엇입니까?

- 1) 아이 돌봄 관련 매뉴얼 개발 및 교육 확대
- 2) 아이돌보미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 3) 아이돌보미 인원 확충
- 4) 현행 720시간의 이용시간 확대
- 5) 정부지원 대상 확대

재난의 사각지대, 가사노동자 법적 권리와 생계를 위한 제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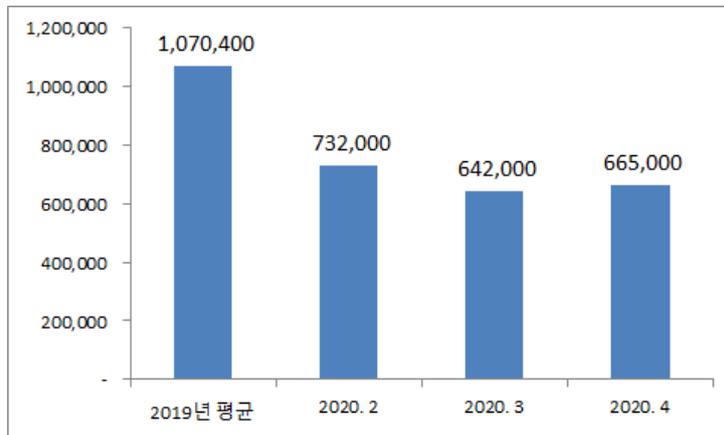
김재순 (전국가정관리사협회 협회장)

1. 가사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 주최 : 전국가정관리사협회, 한국여성노동자회
- 참여 : 128명
- 기간 : 2020. 4. 27 - 5. 31
- 방법 : 온라인

1. 전년도 월평균 소득 107만원에서 40%대의 수입 감소

응답자들의 2019년 월평균 수입은 107만4백원이라 집계되었으나 2020년 2월 73만2천원(2019년 대비 68.4%)으로 떨어진데 이어 3월 64만2천원(60.0%), 4월 66만5천원(62.1%)으로 급격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 시기별 평균 소득 분포

2. 본인 소득이 가계소득의 전부인 응답자 25.0%에 달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 소득이 가계소득의 전부라고 응답한 비율이 25%에 달해 생계에 심각한 곤란을 겪고 있을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본인 소득이 50%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57.8%에 달해

코로나 위기가 생계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다.

〈표 1〉 가족 생계비 중 응답자 소득이 차지하는 비율

	응답수	백분율
10% 미만	5	3.9%
10% 이상~ 20% 미만	8	6.3%
20% 이상 ~ 30% 미만	11	8.6%
30% 이상 ~ 40% 미만	16	12.5%
40% 이상 ~ 50% 미만	9	7.0%
50% 이상 ~ 60% 미만	19	14.8%
60% 이상 ~ 70% 미만	3	2.3%
70% 이상 ~ 80% 미만	7	5.5%
80% 이상 ~ 90% 미만	7	5.5%
90% 이상 ~ 100% 미만	6	4.7%
100%	32	25.0%
무응답	5	3.9%
계	128	100.0%

3. 소득 감소 이유는 고객이 오지 말라고 해서, 새로운 일거리가 없어서가 64.7%

소득감소의 이유(복수응답)에 대해 고객이 오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54.7%, 신규 고객이 없어서가 10.0%라고 응답해 64.7%가 일거리 감소를 호소하였다. 대개 4시간 단위로 일하는 가사노동의 특성상 소득감소분을 감안해 보면 약 40% 정도의 일거리가 떨어져 나갔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본인의 감염 우려로 14.7%가 일을 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소득이 줄어드는 문제도 심각하지만 감염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한 대면접촉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불안감을 드러낸다.

〈표 2〉 소득감소 이유(복수응답)

	응답수	백분율
고객이 오지 말라고 해서	82	54.7%
내가 코로나19 감염이 우려되서 일을 하지 않음	22	14.7%
가족돌봄때문에 일을 줄이거나 일을 하지 않음	6	4.0%
신규고객이 없어서	19	12.7%
감소하지 않음	15	10.0%
기타	6	4.0%
계	150	100.0%

4. 18.7%가 빚으로 생활

감소한 소득을 충당하는 방법에 대한 질문에서는 응답자의 54.7%가 지출을 줄여 생활을 유지한다고 응답하였으며 14.8%는 대출, 11.7%는 저축을 털어 쓰고 있었다. 지인에게 빌려서 충당한다에 7.0%가 응답하였다. 현재까지는 지출을 줄여 충당할 수 있으나 장기화될 경우 생계에 심각한 곤란을 겪을 우려가 높다. 대출이나 지인에게 빌려 쓰고 있다는 응답을 합치면 18.7%에 달해 5명 중 1명은 빚으로 살림을 꾸려가고 있다는 결론이다.

〈표 3〉 감소한 소득 충당 방법

	응답수	백분율
저축이용	15	11.7%
지출을 줄임	70	54.7%
대출(금융권, 신용카드 대출 등)	19	14.8%
지인에게 빌림	9	7.0%
다른 일자리를 통해	3	2.3%
기타 및 무응답	12	9.4%
계	128	100.0%

5. 17.2%가 인권침해 경험

이런 와중에 인권침해를 경험한 이들도 17.2%에 달했는데 세부 응답을 살펴보면 교회를 다니냐, 주말에 어디 다녀 왔느냐 등의 동선 공개 요구, 가족 중에 신천지가 있는가 등의 사적인 정보 요구, 대중교통이 아닌 자차를 이용해 방문해 달라고 요구하거나 마스크와 장갑 착용, 손 세정 등을 강하게 요구하는 등의 경험을 했다고 응답했다. 고객의 입장에서 가사노동자에 의한 감염을 우려할 수 있지만 역으로 고객에 의한 감염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뚜렷한 대책은 없는 현실이다.

6. 기본정보

- 연령 : 30-39세 0.8%, 40-49세 10.2%, 50-59세 38.3%, 60-69세 50.8%
- 소속기관 : 비영리기관 소속 80.5%, 영리플랫폼 8.6%, 직업소개소 3.1%, 소속없음 5.5%, 기타 2.3%
- 거주지역 : 경기도 36.7%, 부산 24.2%, 인천 18.8%, 광주 7.8%, 서울 6.3%, 전라도 3.1%, 경상도 1.6%, 세종시 0.8%, 강원도 0.8%

2 가사노동자의 현장 목소리

“안녕하세요? 000 관리사입니다. 내일 고객님의 댁에 방문합니다. 반갑게 뵙겠습니다.” 빠르게 던지는 나의 말끝에 고객이 대답한다. “당분간은 오지 마세요. 코로나 때문에 외부 사람들이 집에 드나드는 것이 부담스러우니 다음에 연락할 때까지 당분간 중지할게요.” 전화를 마치고 잠시 멍하니 앉아있다 답답한 마음에 다음 고객에게 전화를 돌려 본다. 역시 마찬가지로 대답. 코로나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음은 이해하지만 고정적으로 일하던 모든 고객 집에서 갑자기 중지를 해버려 일자리가 잃어버리는 갑갑한 현실이 되어 버렸다.

나는 우리 집안의 실질적 가장이며 관리사 활동으로 버는 돈이 가정을 꾸려나가는 주 수입원으로 나의 생계가 달리 문제인데 걱정이 태산 같다. 불안과 무기력에 빠진 지 벌써 사 개월이 되어 간다. 시간이 지나면 종식될 것 같던 코로나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다시 일하러 오라고 할 것 같았던 고객들은 감감무소식이고 이 힘들고 고된 상황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어 하루하루를 보내는 것이 막막하고 힘겹게 느껴진다.

조계자 전국가정관리사협회 인천지부 가정관리사

가사노동자인 우리 회원들은 일하면서 고객으로부터 ‘어디 다녀오셨냐?’ 하며 동선을 확인하는 질문도 받고 ‘마스크 절대 벗지 말아라’ ‘위생장갑 준비해서 오라’는 등 감염 관련 주의를 듣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고객이 어디 다녀왔는지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우리는 과연 ‘고객으로부터 안전한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우리의 건강권 또한 위협받고 있는 것입니다.

표연희 전국가정관리사협회 수원지부장

정부에서 특수고용 노동자 및 프리랜서 등에게 재난지원금 500,000원씩 3개월을 지원한다는 뉴스를 보고 사무실에 문의를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가사노동자들은 받기 어렵다는 말씀을 하더군요. 제출 서류가 복잡하고 협회로 서비스요금이 입금되었다는 확인과, 아니면 제 통장으로 서비스요금을 받았다는 확인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협회는 대부분 관리사들이 직접 서비스요금을 받고 있거나 현금으로 받는 경우가 많아서 소득을 증명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특수고용지원금은 각 지자체마다 지원하는 시기나 기간이 다르게 책정되어있어 지원하기 받기가 더 어렵습니다. 지자체에서 신청 기간이 지났으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센터로 문의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니면 고용센터 방문 접수를 해야 합니다.

조순례 전국가정관리사협회 안산지부 가정관리사

③ 가사노동자 권리보장법 제정, 안전한 노동환경, 재난 대책이 필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가사노동자들은 이중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 대면접촉 서비스업의 특성상 고객들의 서비스 중지 요청이 지속되는 가운데 수입은 급격하게 줄어들었고, 감염으로부터의 안전은 보장되지 않고 있다.

1953년 근로기준법이 만들어진 이래 노동자로서의 인정에서 제외된 가사노동자들은 사회안전망의 완전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4대 보험 가입 대상자가 아니므로 일하는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를 누리지 못하며 재난 상황에서도 실업급여, 휴업수당은 꿈도 꾸지 못한다. 가사노동자의 문제는 원천적으로 노동자로서의 인정조차 받지 못하는 현행법상의 문제에 있다. 가사사용인 적용제외라는 문구 때문에 노동자로서의 모든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 문턱을 겨우 넘었던 가사노동자 권리보장법은 19대 국회에서도 20대 국회에서도 회기 만료로 폐기되어 버렸다. 코로나19 재난을 거치며 가사노동자가 겪는 노동자로서의 권리 박탈은 더욱 심각하고 무겁게 와 닿았다.

재난 상황에서 정부가 마련한 특수고용 노동자 재난지원금도 그 요건을 맞추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노무 미제공 사실확인서를 떼어줄 사업주도 변변히 없는 가사노동자들은 임금마저 현금으로 받고 있는 경우가 많아 소득의 감소를 증명할 길이 없다. 요건에 맞추어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이들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고령자가 많아 정보 취득에서도 제외되기 일쑤이다. 감염으로부터의 위협으로부터도 안전하지 못하다. 고객들은 가사노동자들의 동선 공개나 자차 출퇴근, 보호장구 착용을 요구한다. 하지만 가사노동자가 고객으로부터 안전한가에 대한 질문은 전혀 되고 있지 않으며 보호장구 역시도 가사노동자가 챙겨야 할 몫이다.

감염으로부터의 위협, 생계 위협, 노동자로서의 배제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가사노동자의 근본적 문제해결과 재난 상황에서의 지원이 동시에 요구되는 현실이다. 정부와 국회는 가사노동자의 현실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한다. 배제된 이들이 보호받고, 차별받는 이들이 평등해지는 것. 그것이 사회정의이고 한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토론문

김양지영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교수)

방과후학교의 현황과 방과후학교 강사의 현실

박수옥 (방과후강사노조 경기지부장)

I. 방과후 학교의 현황

1. 방과후학교 개념

- (1) 방과후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와 선택을 반영하여, 수익자 부담 또는 재정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교과 외의 교육으로, 학교 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학교교육입니다.
- (2) 방과후학교는 교과에서 하지 못하는 다양한 특기, 적성, 예체능 등의 꼭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고, 사교육 절감, 교육격차 해소 등 순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학년 학부모의 수요에도 부응하는 돌봄의 기능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과후학교가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늘 표류하고 있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이 됩니다.
- (3) 방과후학교 강사는 청년, 여성 등의 일자리로도 활용됩니다. 그러면서 각자의 전문성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과후학교 강사이기에 생계와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강사들의 불안정한 삶이 심화되고, 잦은 이직 등으로 인해 방과후학교의 불안정한 운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2. 방과후학교의 참여율 및 개설 프로그램 수

- (1) 99.8%의 초등학교에서 57.1%의 학생들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과반수의 참여율을 보일 정도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표 1〉 방과후학교 운영학교 및 참여학생 현황 (2019 교육부 자료)

구분	초	중	고	계	과년도현황				
					2018	2017	2016	2015	2014
운영학교수(교)	6,247	3,118	2,323	11,688	11,746	11,791	11,775	11,740	11,686
비율(%)	99.8	96.2	98.5	98.6	99.2	99.6	99.7	99.9	99.9
참여학생수(천명)	1,567	370	711	2,648	2,934	3,371	3,648	4,070	4,469
비율(%)	57.1	28.5	50.5	48.6	52.6	58.9	62.1	66.9	71.2

- (2) 전체 프로그램 수는 33만 6천여개가 운영 중이며, 그 중 초등학교는 19만개, 특기적성 프로그램이 15만개입니다

〈표 2〉 프로그램 운영 현황 (2019 교육부 자료)

구분		초	중	고	계	과년도현황				
						2018	2017	2016	2015	2014
교과	수(개)	43,468	20,105	83,843	147,416	167,907	210,488	238,916	255,079	294,396
	비율(%)	22.5	46.0	84.5	43.8	46.1	50.0	52.7	53.6	54.7
특기 적성	수(개)	150,083	23,560	15,328	188,971	196,192	210,487	214,475	220,611	243,712
	비율(%)	77.5	54.0	15.5	56.2	53.9	50.0	47.3	46.4	45.3
합계		193,551	43,665	99,171	336,387	364,099	420,975	453,391	475,690	538,108

- (3) 초등의 경우 특기·적성 프로그램이 많고, 중·고등학교로 갈수록 교과 관련 프로그램(보충수업)이 많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저렴한 비용으로 교육받을 수 있습니다.

〈표 3〉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율 (2020 교육부/통계청 자료)

구 분		전 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018	전 체	51.0	59.3	32.1	52.6
	초등 돌봄교실	-	6.7	-	-
	특기적성프로그램	27.5	41.1	21.2	9.3
	교과 프로그램	33.8	34.4	15.7	48.4
2019	전 체	48.4	58.7	27.4	47.7
	초등 돌봄교실	-	5.5	-	-
	특기적성프로그램	28.2	41.8	19.6	9.7
	교과 프로그램	31.2	34.1	12.0	43.2

3. 방과후 강사의 현황

- (1) 전체 방과후강사는 약 12만 명에 이릅니다(2019년 기준, 116,760명). 초등 특기적성의 95.8%를 방과후학교 강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 (2) 법적 채용근거가 없어 「방과후학교 운영 가이드라인·길라잡이」에 따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과 처우가 매우 불안한 직종입니다.
- (3) 코로나19로 학교의 개학이 연기되고 방과후학교 수업이 없어 몇 달째 수입이 없는 절박한 상황이지만, 법적인 업무와 신분의 근거가 없어 교육부도 교육청도 직접 보상이나 지원을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II. 방과후학교 강사들이 처한 현실

1. 고용불안

- (1) 1~2년마다 면접을 보고, 고용관계가 아닌 계약관계인 '위·수탁 계약'을 맺습니다. 몇 년 전부터 강사에서 '프로그램 위탁자'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교육청 집합연수와 우수강사인증제도도 폐지되었습니다. 방과후학교 강사는 학교에서 지시를 받고 학교의 일정에 따라 학교의 공간에서 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함에도, 노동자가 아닌 사업자로 간주되어 노동관계법령의 보호로부터 배제되어 있습니다.
- (2) 보통 1년 단위 또는 분기 단위 계약을 하며, 2년 경과 시 무조건 재공고, 재면접을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또 학교의 수요조사나 만족도에 따라 수시로 폐강과 신설을 하기도 하여 이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는 강사들이 많습니다.

2. 차별적이고 불공정한 관행

- (1) 학교의 수업을 하면서도 시설물을 제대로 쓰지 못하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업에 필요한 자료를 만들어야 하는데 학교 복사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학교, 수업 도중 냉난방도 제대로 해주지 않는 학교, 강사는 학교 안에 주차를 하지 못하게 하여 학교 밖에 주차를 해야 한다는 학교, 공예나 미술 등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과목인데 학교에서 쓰레기를 처리하지 못하게 해서 쓰레기봉투를 가지고 다녔다는 강사 등... 지금까지 노조에서 들었던 이러한 믿기지 않는 사례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 (2) 학교의 일정에 따라 휴강을 할 때도 잦습니다. 태풍, 미세먼지 등 기상악화에, 학교의 재량휴업일이나 체험학습일에 일방적인 휴강을 하고 해당 강사료는 환불하는 관행이 많이 있습니다. 노조가 나서서 이런 관행을 많이 줄였지만 아직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 (3) 무엇보다 강사들을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닌 잠시 들렀다 가는 외부업자, 학원강사 정도로 취급하는 관행이 많습니다. 방과후학교는 일종의 사교육으로 간주하고, 방과후학교 강사를 학교 시설을 빌려쓰는 사람으로 취급하는 관행이 아직 많습니다. 심지어는 학급 교실을 쓰는 방과후학교 강사가 담임교사로부터 "교실 빌려 쓰면서 업무 방해하지 마세요!"라는 막말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3. 민간업체 위탁의 피해

(1) 민간위탁업체의 상황

학교에서 방과후학교를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업체나 기관에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중인 학교는 2019년 기준 전체의 19.3%이며, 서울, 인천,

충남의 초등학교에서 위탁 비율이 큼니다.

〈표 4〉 위탁 프로그램 운영 현황 (2019 교육부 자료)

구분	초	중	고	계	과년도현황					
					2018	2017	2016	2015	2014	
학교수(교)	1,999	212	44	2,255	2,557	2,933	3,406	2,918	3,352	
비율(%)	32.0	6.8	1.9	19.3	21.8	24.9	28.9	24.9	28.7	
프로그램 수 (개)	영리기관	26,438	1,094	119	27,651	26,408	27,162	28,676	21,494	20,835
	비율(%)	7.9	0.3	0.0	8.2	7.3	6.5	6.3	4.5	45.3
	비영리기관	14,294	815	187	15,296	17,076	20,555	22,398	23,972	25,191
	비율(%)	4.2	0.2	0.1	4.5	4.7	4.9	4.9	5.0	54.7
	소계	40,732	1,909	306	42,947	43,484	47,717	51,074	45,466	46,026
	비율(%)	12.1	0.6	0.1	12.8	11.9	11.3	11.3	9.6	8.6

* 비율(%): 방과후학교 운영학교 중 위탁 프로그램 운영학교 비율

(2) 위탁업체의 문제점과 폐해

- ① **과도한 수수료** : 위탁업체는 학교와 계약하고, 강사료의 10%~15%를 수수료로 가져갑니다. 이로 인해 수수료를 내고 수업하는 강사는 의욕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 ② **불공정한 계약** : 계약 만료 6개월 이전 계약파기 시 마지막 달 강의를 안 준다든지, 계약 기간 종료 후 1년간 개별강사 활동 금지, 계약서를 업체만 보관하는 등 강사에게 불공정한 형태의 계약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③ **더욱 심한 고용불안** : 업체의 말 한마디로 수업하던 학교를 그만두게 되기도 하고, 업체가 바뀌며 학교의 모든 강사를 해고하기도 하는 등 학교직영일 때보다 고용불안이 훨씬 심합니다.
- ④ **수업 재량권 박탈** : 업체가 공급하는 교재·교구(재료)만을 사용할 것을 강요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수업을 할 수 없도록 합니다. 자신들의 노하우나 교재를 쓰는 강사들은 학교가 업체위탁으로 전환하거나 업체가 바뀌면 수업을 계속하지 못하고 그만둬야 합니다.
- ⑤ **교육의 질 하락** : 업체들이 공급하는 교재·교구 가운데는 이윤을 크게 하기 위해 저가에 만든 부실한 교재·교구들도 있고, 폭리를 취하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이에 교재·교구의 질이 낮아지고 교육의 질이 전반적으로 하락합니다.

4. 코로나19로 인한 소득절벽

- (1) 코로나19로 학교의 개학이 늦춰지고 개학을 해도 정상적인 수업이 이뤄지지 않는 현실에서, 방과후학교의 수업은 100% 중단된 상태입니다. 수업을 하지 않으면 수입이 나올 수 없는 구조

에서 방과후학교 강사들은 6개월째 무급 상태입니다.

- (2) 교육부도 교육청도 이러한 방과후학교 강사들에게 어떤 보상도 지원도 직접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공적인,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자체와 고용노동부의 특고·프리랜서 지원금에 강사들이 해당이 되도록 협의한 점, 학교에서 임시로 필요한 일자리인 긴급돌봄 도우미, 원격학습 도우미, 방역 도우미 등으로 활용하도록 한 점, 기존의 대출상품에 방과후학교 강사들을 위해 금리를 낮춰주도록 한 점 등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방안만을 낸 정도입니다.
- (3) 생계위기에 처한 방과후학교 강사들은 여러 알바를 한다는 이들도 있고 다른 직업으로 이직을 고민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학교에서 시키는 대로 수업을 해온 강사들인데 학교의 일이 없을 때 어떤 책임도 보상도 받을 수 없는 막막한 상황입니다.

Ⅲ. 결론 - 방과후학교 개선 과제

1. 교육부, 교육청이 책임지는 공공성 마련

- (1) 지난 5월 19일 방과후학교의 법적 근거를 명시한 교육부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입법예고가 있었지만 이틀만에 철회되었습니다. 전교조, 교총, 실천교사모임, 교사노조연맹 등 거의 모든 교원 단체들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학교의 업무로 부담을 지기 싫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예전에도 비슷한 법안 발의가 몇 차례 있었지만 비슷한 이유로 철회되거나 제대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 (2) 교원단체들은 방과후학교는 지자체나 지역사회의 기관이 맡아서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역할이 있는 ‘아동복지법’이 있고 여성가족부의 역할이 있는 ‘청소년기본법’이 있고 이에 따라 학교 밖에서의 아동복지, 청소년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의 방과후학교의 역할을 근거하는 교육부의 역할이 있는 법률도 꼭 필요합니다.
- (3) 교육청, 교육지원청에 있는 방과후학교 전담 부서와 지원센터를 강화하고, 학교에 실무사를 두어 업무를 전담하도록 해야 합니다.
- (4) 방과후학교 운영에 들어가는 수용비(운영비)는 학부모가 수강료의 일부로 부담하고 있으나, 제대로 목적에 맞게 쓰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강사료에서 공제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수용비를 폐지하고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은 교육청이 부담하도록 해야 합니다.(전북도교육청에서는 2019년도부터 수용비를 폐지하고 교육청이 운영비를 부담합니다)

2. 민간업체 위탁운영 폐지

- (1) 방과후학교 업체위탁은 교육의 질 하락, 강사들의 고용불안, 수업재량권 침해, 부정과 비리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업체위탁을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학교가 직접 운영하도록 해야 합니다.

- (2) 많은 학교가 업체위탁을 하는 이유가 교원들의 업무경감 때문입니다. 방과후학교 관련 업무를 전담할 실무사를 두고 교육지원청의 전담 부서를 강화하여 교원들의 업무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3. 코로나19 피해 방과후학교 강사들의 피해 보상과 지원

- (1) 학교와 강사가 계약한 경우 감염병으로 수업을 하지 못했더라도 법적으로 학교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강사들에게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학교와 교육청이 책임을 지고 휴업급여에 준하는 보상 또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2) 1차 추경으로 각 지자체의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2차 추경으로 고용노동부의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사업으로 특고·프리랜서 직종에 대한 지원금이 시행 중입니다. 이것으로 6개월째 100% 무급인 방과후학교 강사들에게 충분한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 (3) 교육부와 교육청에 지원할 근거와 예산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또는 협력사업으로라도 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에서 이러한 방과후학교 강사들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주기를 바랍니다.

고용안전망 밖 노동자에 대한 정책적 보호 방향

이윤아 (여성가족부 여성인력개발과 과장)

1. 들어가면서 : 고용안전망의 중요성과 한계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해 고용, 복지, 경제, 보건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사회적 안전망 강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고, 특히 고용안전망에 대한 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한 상황이다. 이는 고용 위기가 소득 감소로 연결되고, 생계를 위협하여 삶의 질까지 저하시키게 되는 등 고용은 개인에게 곧 삶의 문제이고 이는 국가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고용안전망은 고용보험제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고용보험제도는 고용과 생활안정을 위해 사업자와 근로자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로 고용유지지원금 등 고용안정, 육아휴직급여 및 산전휴가 급여 등 일·생활균형지원과 능력개발을 지원하고 실직한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일정기간 소득을 보장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대규모 일시 휴직자 증가는 이러한 고용안전망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다만, 고용부진 지속시 비경제활동인구로 확대가 우려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외환위기·금융위기 등 상당수의 실업자가 발생했던 심각한 경제 위기 시에도 고용보험제도의 작동이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도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고용보험은 전형적 일자리 위주로 적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고용보험의 주요 미적용대상은 자영업자(임의가입은 가능), 특수형태근로자, 초단시간 근로자(3개월 이상 근속근로자는 가입 가능), 가사노동자 등이고 적용대상 중에서도 미가입자도 상당하여 전체 취업자 중 고용보험 가입자는 49.4%에 불과한 상황이다.¹⁾

이에 코로나19의 고용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적 고용·생계 지원 정책 추진 과정에서 최대한

1) 한국노동연구원 고용·노동브리프 제96호 중 <표3 고용보험적용과 가입 사각지대(2019)>

구분	취업자			
	비임금근로자	임금근로자		
		적용제외	미가입	가입
	법적사각지대	실질적 사각지대		
근로자수(1,000명)	6,799	3,249	3,781	13,528
취업자 내 비중(%)	24.9	11.9	13.8	49.4
임금근로자 내 비중(%)		15.8	18.4	65.8
적용대상 근로자 내 비중(%)			21.8	78.2

※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은 공무원, 교원, 별정우체국 직원,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서 5인 미만 농림어업, 가사서비스업, 65세 이상, 주당 평소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3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 제외), 특수형태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임.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2019. 8(시계열 보정 후).

사각지대 없이 고용보험 미적용 대상들에게 까지도 정책적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생계지원 등의 긴급재정지원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위기대응을 위해 임시적으로 강구된 대책으로 미래에 반복적 위기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며 사각지대를 포함할 수 있는 통합적이고 포용적인 안전망에 대한 고민이 요구되고 있다.

2. 고용안전망 밖 노동자 실태 : 현황과 취약성

고용보험 적용범위는 고용보험법과 법 시행령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용보험법 제8조에서 고용보험은 기본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도록 하고 일부 사업과 근로자에 대한 예외를 두고 있다.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는 이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영업자는 일정 조건 만족 시 임의가입은 가능하다) 특수형태근로자 또는 프리랜서의 경우도 이에 해당되지 않는데 1인 자영업자로 활동하는 경우에는 임의로 가입 가능하다.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적용 범위 중 제외 사업을 구체화하고 있는데 농·임·어업 중 법인 아닌자가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가구 내 고용활동 및 자가소비 생산활동, 일부 공사²⁾로 정하고 있으며 법 제10조와 시행령 3조에서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별정우체국지원, 초단시간근로자(단, 3개월 이상 근로시 의무가입 대상)를 예외로 두고 있고, 65세이상 취업자는 실업급여와 모성보호급여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이를 현실에 적용한 결과가 앞서 언급한 전체 취업자 중 반에 좀 못 미치는 근로자만이 고용보험이라는 고용안전망 안에 들어온 상황인 것이다. 취업자 여성 11,794천명 중 5,633천명, 즉 47.76%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였고, 취업자 남성 15,565천명 중 7,895천명, 즉 50.72% 이다³⁾. 이는 남성·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제2호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다만, 법 제1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시공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항 제2호에 따른 총 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

3) 배진경(2020), '성평등 노동과 돌봄 뉴딜을 위한 제언' 코로나19 관련 여성·가족 분야별 릴레이 토론회 자료 <고용보험 성별 사각지대>

(단위: 천 명)

생산가능인구 여성 22,636		남성 21,910			
경제활동인구 여성 12,137		남성 16,079			
취업자 여성 11,794		남성 15,565			
비임금노동자		임금근로자 9,163		11,396	
2,630	4,169	적용제외자		고용보험적용대상 8,505	
		658	811	5,633	7,895
미적용 사각지대		고용보험 가입자		미가입 사각지대	

출처: 이정아(2020), '여성 노동시장과 코로나19 영향의 젠더성', 한국여성노동자회 임금차별타파의날 워크숍 자료

여성 모두 취업자의 상당수가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상황에서 전체 비정규직, 초단시간근로자, 특수형태근로자 등에서 차지하는 여성의 비율이 남성보다 높고,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대부분이 여성이라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실업예방, 고용촉진, 부득이한 실업 시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고용보험 밖에 있는 노동자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노동시장에 있어 취약한 지위에 있게 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에서 보듯이 비정규직 노동자는 최저임금에 가까운 임금을 받으며 생계를 꾸려가는 상황이 많은데 그럴수록 고용유지가 절실하고, 그러다보니 고용안정성이 낮은 상황에서 합당한 요구는 하기 어렵고, 불합리한 요구는 감수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지위에 취약성에서 오는 것인데, 여성의 경우에는 임신·출산기에 모성보호 제도를 사용하기 어렵거나 사용하지 못하고, 성희롱 등에 노출되는 위험도 크게 되며⁴⁾ 이번 코로나19 상황에서와 같이 돌봄이 재가정화 된 상황에서는 실업에서 나아가 노동시장에서 배제되거나 이탈될 위험이 더 크게 된다.

코로나19로 일자리가 크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남녀 모두 상용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증가한 반면, 임시·일용 근로자는 큰 폭으로 감소⁵⁾한 것으로 나타났고, 비경제활동인구가 '20년 2월 이후 3·4월간 여성이 211천명, 남성은 72천명이 증가하였는데 그 사유(활동상태)가 남성은 쉬었음이나 연로, 심신장애 등 일신상의 사유인 반면 여성은 대다수가 가사와 육아인 것으로 나타난 것에서 알 수 있다.

3. 고용보험 미적용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 현황 : 코로나19의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충격을 완화하고 경기를 회복하기 위해 고용유지, 소득지원, 기업지원 등 전사적으로 대책을 강구하여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대한 많은 대상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해 기존 제도를 확장하는 방식과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를 임시적으로 지원 대상으로 삼는 방식을 함께

4) 성희롱 피해경험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비정규직이 정규직 보다 높음(여성가족부, 성희롱 실태조사 2018)

5)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중 종사자 지위별 취업자 수 및 전년동월대비 증감 (단위: 천명)

종사자 지위별	남성		여성	
	2020.3월	2020.4월	2020.3월	2020.4월
임금근로자	11,211 (-40)	11,136 (-127)	8,845 (-93)	8,783 (-255)
- 상용근로자	8,703 (+229)	8,606 (+192)	5,858 (+230)	5,795 (+208)
- 임시근로자	1,693 (-193)	1,714 (-218)	2,591 (-227)	2,574 (-370)
- 일용근로자	816 (-77)	816 (-102)	396 (-96)	414 (-94)

추진하고 있다. 고용유지지원금 요건완화 및 지원수준 상향이 대표적인 전자에 해당하는 방식이다.

후자의 경우 생활안정자금융자, 긴급복지지원의 대상에 특고·프리랜서 등을 포함하고, 특고·프리랜서 등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득감소의 위기를 겪는 특고·프리랜서, 무급휴직자 등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고용대응특별지원,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도 신설하였다.

그러나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던 경우일수록 구두계약 하에서 일하거나, 소득을 현금으로 받거나, 사업주 또는 고용주의 증빙서류 제출 협조를 구하기 어려운 등 노동과 현재 처한 어려움을 입증하는 것 자체가 어렵기 마련이다.

정부는 이런 현장의 어려움을 보완하기 위해 현장 의견을 듣고 최대한 기존 사각지대가 배제되지 않도록 지원대상을 구체화하면서도 예시에 없더라도 인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그간 근로기준법 등에서 노동자성이 인정되지 못해왔던 가사노동자도 공고에 명시하였다. 다만, 증빙서류의 경우 입증이 용이하면서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였으나 부정수급 방지와 행정적인 부분 등에 대한 고려가 함께 이루어질 수 밖에 없었다.

4.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보완 정책방향

코로나19의 위기를 계기로 우리의 취약한 고용안전망에 대해 진지한 논의가 이뤄지기 시작했고, 이를 확대·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난 5월10일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시대'와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이라는 정책 방향이 나왔다.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보험 가입을 조속히 추진하고,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자영업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 고자 하는 내용이다.

이후, 고용보험 대상에 예술인을 추가한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5월20일 국회를 통과하여 예술인 고용보험제도가 도입되었다. 예술인도 이제 고용보험 당연가입과 실업급여, 출산전후급여, 구직급여 등을 수급할 수 있게 되었다. 이 외의 특고·프리랜서 등 비전형적 근로형태를 갖는 노동자들도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TF를 가동하고, 금년말까지 대상별·단계별 고용보험 적용 시기를 담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 마련을 추진하는 상황이다.

경력단절여성이 재취업 시 특고·프리랜서 등으로 취업하는 경우가 많고 특고 중 비중이 높은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등은 대표적인 여성 다수 직종인 점 등을 감안할 때,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보완이 여성 일자리에 갖는 의미가 매우 큰 바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 추진과정에서 여성

노동자와 여성 다수 직종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이뤄지도록 해 나갈 것이다.

또한, 정부는 20대 국회를 넘지 못했던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재입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입법예고를 마친 상황이다. 법의 주요내용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정부 인증제를 도입하고,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가사근로자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이 적용되고, 유급주휴·연차 유급휴가·퇴직급여 등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법 제정을 통해 가사서비스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을 통해 고용안전망을 확충·강화하고, 가사서비스와 관련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정부는 한국판 뉴딜을 기획·추진하고 있다. 앞서 발표한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기본적 토대로서 ‘사람 우선의 가치’와 ‘고용안전망 확충’에 중점을 둔 휴먼뉴딜 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있으며 그 안에서 고용안전망 구축, 청년·청소년 등 사람투자 확대, 돌봄 강화 등을 포함시키고자 하고 있다.



제2차 코로나19 관련 여성·가족 분야별 릴레이 토론회

